

민주시민이
미래다

민주시민이 미래다

이 책자에 실린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의 「이종희 정치살롱」
(<http://blog.naver.com/jongheesalon>)에 게시된 콘텐츠를 모아서 제작한 것입니다.



국민 소통 마중물을 바라며



2000년대에 들어 '정보의 바다'라 불리는 인터넷의 발달과 그 활용이 빈번해지면서 트위터·페이스북·블로그 등 온라인 소통의 방법도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지만, 정작 선거·정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는 온라인 매개체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해 7월 선거연수원이 개설한 '이중희 정치살롱' 블로그의 시작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도전과 같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제 갓 한 돌을 넘긴 블로그의 470여개의 게시글과 6만여 명에 이르는 방문자 수는 이 블로그가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냄으로써 민주시민의식 향상과 선거·정치에 대한 새로운 소통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책자는 온라인에서 시작된 소통이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 10여 년간 블로그에 축적된 다양한 선거·정치이야기 등을 모은 것으로써,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선거와 정치가 그동안 무거웠던 이미지를 벗고 우리 주변의 친근한 이야기로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블로그 운영에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다한 이중희 교수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선거연수원 '이중희 정치살롱'이 다시 찾고 싶은 블로그, 국민과의 멋진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블로그가 되길 바랍니다.

과천 관악산 자락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 대 년

발간에 즈음하여



선거연수원이 창설된 지 어느덧 2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선거연수원은 직원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선거관리 교육 뿐만 아니라, 정당관계자·미래유권자·대학생·다문화가족·외국 선거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선거·정치제도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교재와 콘텐츠를 개발·제공함으로써, 이제 선거연수원은 민주시민교육 전문기관과 민주주의의 버팀목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선거연수원은 국민과의 소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일련의 작품이 "이중희 정치살롱"입니다. 정치살롱은 국내외의 선거·정치이야기, 민주시민교육 사례 등을 공유·소통하는 블로그로서, 지난 해 7월 말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 개설된 후 현재까지 6만 명이 넘는 방문자가 다녀갔습니다.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닌, 시민들과의 공감과 소통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정치살롱의 방문객은 모든 세대와 계층에 두루 분포되어 있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열린 공론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거연수원이 수원의 새로운 터전에서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힘찬 도약을 꿈꾸는 이 시점에서 선거·정치 환경변화에 부응하면서 많은 국민과 소통하고 있는 정치살롱의 귀중한 글을 발췌하여 책으로 엮었습니다. 조금은 미완의 작품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이 건강한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성숙한 선거·정치문화 발전을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길 기원합니다.

국민소통의 블루오션인 정치살롱을 열어보자는 아이টে를 제공해 주신 김대년 사무총장님, 블로그 운영자 이중희 교수님, 그리고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열과 성의를 다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民主市民을 사랑하는

선거연수원장 서 인 덕

01 민주시민교육 이야기

- 01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모델: 연방정치교육원을 중심으로 · 12
- 02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와 스웨덴의 민주시민교육 · 24
- 03 각 국의 청소년 모의선거: 독일·스웨덴·캐나다·한국 · 30
- 04 호주의 민주시민교육 사례 · 40
- 05 영국의 민주시민교육 사례 · 44
- 06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 48
- 07 내 생애 가장 뜨거웠던 여름 교원연수강의 그 2주일의 잔상 · 55
- 08 제12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 『사회적 합의 형성 기반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
(1): 《독일 통일과 민주시민교육》 · 59
- 09 제12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 『사회적 합의 형성 기반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
(2): 《시민교육의 일상화, 시민성 그리고 노르웨이 민주주의》 · 66
- 10 제12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 『사회적 합의 형성 기반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
(3): 《뉴질랜드의 합의제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 · 71
- 방문객 - 정현중 · 77

02 정치살롱소개 / 초대손님

- 01 “이종희 정치살롱”을 열면서 · 80
- 02 [인터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상임위원 · 84
- 03 [인터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김홍신 원장 · 96
- 04 [인터뷰] 따루 살미넨: ‘미녀들의 수다’의 방송인·‘가장 가까운 유럽, 핀란드’작가 · 104
- 05 [설 특집] 광장시장 인터뷰, 현장의 소리 · 111
- 남쪽 꽃 - 서인덕 · 119

03 선거·정치로 세상보기

외국의 선거 이야기

- 01 쉽게 풀어쓴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 · 122
- 02 미국 대통령후보자 TV토론: 역사, 절차, 진행방식 · 128
- 03 포스터로 보는 미국 선거사: 프랭클린루스벨트 · 135
- 04 독일의 비례대표제도 · 139
- 05 2017 독일 총선 결과 · 150
- 06 2017 독일 총선과 독일 청소년 모의선거 결과 비교 · 154

- 07 쉽게 풀어쓴 <영국의 선거제도> · 157
- 08 쉽게 풀어쓴 <이탈리아 선거제도> · 164
- 09 쉽게 풀어쓴 <네덜란드 선거제도> · 170
- 10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히카 우루과이 전 대통령 · 179
- 11 그림으로 보는 역사 속의 선거이야기: 고대 그리스 · 182
- 12 그림으로 보는 역사 속의 선거이야기: 로마 · 187
- 13 그림으로 보는 역사 속의 선거이야기: 스칸디나비아 · 191
- 14 그림으로 보는 역사 속의 선거이야기: 미국 · 195
- 15 재미있는 선거이야기 <한표의 가치> · 200

대한민국 선거 이야기

- 16 "투표용지"로 보는 대한민국 선거사 · 202
- 17 "투표함"으로 보는 대한민국 선거사 · 205
- 18 "기표용구"로 보는 대한민국 선거사 · 208
- 19 특별기획 <사진으로 보는 대한민국 선거사> 1963년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 211
- 20 대선 특선 <사진으로 보는 역대 대통령 선거사> · 217
- 21 우리나라 대통령선거 후보자 TV 토론 · 228
- 봄길 - 정호승 · 239



04 소통 한마당

- 01 이종희 정치살롱 매니페스톡(Talk) 10, "매니페스토 10년을 말하다" · 242
- 02 '투표소 가는 길',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그림 · 249
- 03 팝페라 테너 임형주 교수,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홍보대사·중앙선관위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 252
- 04 중앙선관위 <작은 음악회 '복면가왕' 레전드의 귀환> · 256
- 05 중앙선관위, 은희경작가와 '다多락樂방' 북콘서트 개최 선거와 인문학을 접목시켜 · 262
- 06 가수 솔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대사로 위촉돼 · 268
- 07 토크콘서트 <전설의 토론이 온대 케네디는 닉슨을 어떻게 이겼나?> 현장스케치 · 274
- 우리 어머니 - S.B.Kim · 282

05 문화산책

- 01 식민지·해방·전쟁·분단의 근대사를 관통하는 삶과 예술혼 《이중섭, 백년의 신화》전 · 286
- 02 시대의 변화와 갈등을 노래한 <노트르담 드 파리> · 291
- 03 20세기 현대미술의 세 거장을 한자리에서 만나다: 샤갈·달리·뷔페 전(展) · 296
- 04 끈대별곡 <소심한 상사가 날리는 로우~킵> 26화 - 건강김진 · 301
- 05 <책이 된 예술, 예술이 된 책 展> · 304
- 06 [이교수의갤러리] 화가 이기남 전시회 '나·無'출품작 · 308
- 07 [이교수의갤러리] 김동일 작가 사진展 · 314
- 08 영화<서프러제트>, 여성에게 투표권을! · 317
- 나 하나 꽃 피어 - 조동화 · 323

01

민주시민교육 이야기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모델: 연방정치교육원을 중심으로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0920906714>

I.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민주주의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통일 후 사회통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은 공공영역, 민간영역, 정치영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장 인터뷰: Thomas Krüger(토마스 크뤼거)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장(좌), 김진배 전 선거연수원장(우)

이 글은 입법국정전문지 "The Leader" 2017년 2월호 p.120~p.123에도 게재되었다.

공공영역의 교육기관으로는 연방정치교육원, 주(州)정치교육원, 각급 학교, 시민대학 등을 꼽을 수 있으며, 민간영역의 교육으로는 교회, 노동단체를 포함한 사회 및 시민단체의 교육을 들 수 있다. 정치영역의 교육으로는 정당 및 정당 재단의 교육이 있다.

공공영역	민간영역	정치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치교육원 - 주(州)정치교육원 - 각급 학교 - 시민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회 - 노동조합 - 시민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 및 정당재단

〈표 1〉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체계

II. 독일 정치교육의 기본 원칙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 Consensus)는 독일 정치교육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교육, 연방정치교육원과 주정치교육원 등 공공영역의 정치교육은 이른바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 Consensus)'로 불리는 세 가지 기본원칙을 따른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독일 정치교육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교사 직업윤리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1.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역사적 배경

독일은 1968년 학생운동을 거치면서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 사민당과 기민당 간의 논쟁과 대립은 정치교육 교과 과정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론적 입장도 주(州)정부의 정치성향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당파적·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연방정치교육원과 주(州)정치교육원은 정치교육의 정치적 도구화를 방지

하고 이념적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1976년 11월 19일과 20일 양일간 독일 남서부의 소도시 보이텔스바흐에서 “정치교육에서의 합의 문제 (Das Konsensproblem in der politischen Bildung)”라는 대주제하에 진보와 보수 진영의 저명한 정치교육 학자들을 초청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보이텔스바흐 회의를 총괄했던 한스 게오르그 벨링(HansGeorg Wehling) 바덴뷔르템베르크 주(州)정치교육원 편집국장은 책으로 발간할 목적으로 보이텔스바흐 학술대회의 발제문들과 논쟁 내용을 요약하여 ‘보이텔스바흐 합의’로 불리는 세 가지 원칙을 정식화하였다. 이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현재까지 독일 정치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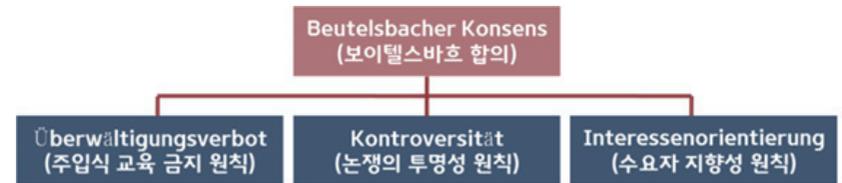
2.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의 세 가지 원칙

보이텔스바흐 합의 내용의 첫 번째는 주입식 교육 금지(Überwältigungsverbot) 원칙이다. 바람직한 견해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으므로써 독자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강압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해석되고 있다.

두 번째는 논쟁의 투명성(Kontroversität) 원칙으로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인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한다(Was in Wissenschaft und Politik kontrovers ist, muss auch im Unterricht kontrovers erscheinen)는 것이다. 논쟁의 투명성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는 상이한 입장들이 균형적으로 고려되지 않거나,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거나, 대안들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뇌나 교화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수요자 지향성(Interessenorientierung) 원칙이다. 학생은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개인적 관심에 대해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Der Schüler muss in die Lage versetzt werden, eine politische Situation und seine eigene Interessenlage zu analysieren)는 원칙으로, 자신의 현재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생의 분석능력과 개인의 관심 존중을 강조한 원칙이다.



〈그림 1〉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의 세 가지 원칙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단순한’ 방법적 원칙도 아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인간 존엄성의 불가침성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헌법의 규범적 핵심에 대한 지향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방법적 합의인 것이다. 또한,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관점의 다양성에 대한 필연성, 즉 바꾸어 말하자면 이견(異見)의 정당성에 대한 합의라고 할 수 있다.”(최영돈, 2016. p.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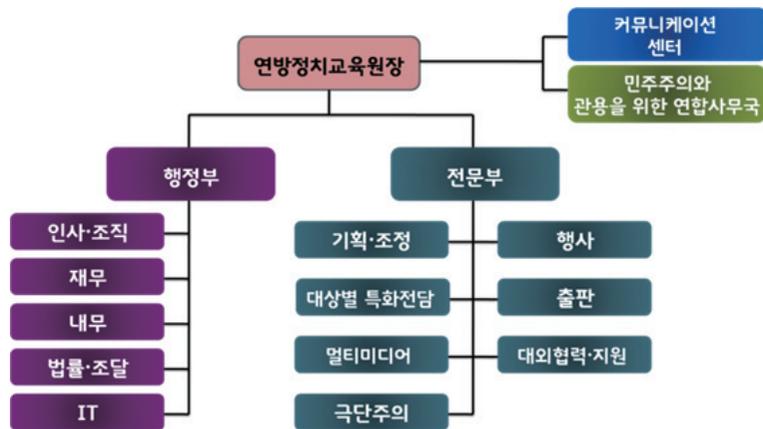
III. 연방정치교육원

연방정치교육원은 1952년 11월 25일 '지역 정치교육을 위한 연방 본부'라

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 연방정치교육원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나치즘 청산, 전체주의 방지, 민주시민 사회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연방정치교육원은 본(Bonn)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베를린(Berlin)에도 미디어센터와 일부 사무실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1. 조직

연방정치교육원은 연방 내무부 산하에 설치된 기관으로 연방 내무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원장은 연방 내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조직은 크게 행정부, 전문부를 두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연방정치교육원장 직속으로 ‘커뮤니케이션 센터’와 ‘민주주의와 관용을 위한 연합 사무국’이 연방정치교육원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연방정치교육원에는 감독위원회와 학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정치적 중립과 학술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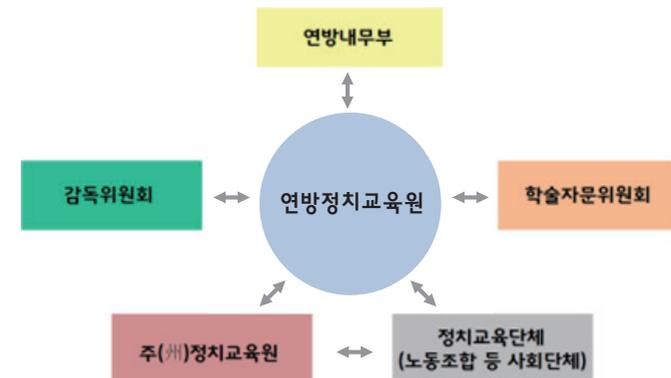


〈그림 2〉 연방정치교육원 조직도

연방정치교육원의 정치적 중립은 여러 정당 소속의 연방 하원의원 22명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에 의하여 유지된다. 구성 위원 비율은 연방의회의의 석비율에 따른다. 또한, 연방정치교육원 교육 내용의 이념적 균형과 학술적 독립성은 학술자문위원회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최대 12명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술자문위원회는 연방정치교육원의 정치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안을 자문한다.

2.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주요 사업

연방정치교육원의 민주시민교육 내용은 기본법에 입각한 인권존중, 자유, 평등, 법치주의 등 민주주의 사회에 중요한 사항들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주요 관심사는 시대별로 달라졌다. 2012년 연방정치교육원은 설립 60주년을 맞이하였다. 연방정치교육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설립된 민주시민교육 기관으로서 민주시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과 시민단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들의 행사를 지원한다. 지원 단체, 기관 등의 수는 약 4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연방정치교육원의 민주시민교육 협력 체계도

또한, 연방정치교육원에는 특별히 교사들과 교육사업 및 청소년 사업 중 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으며, 청소년과 젊은 성인층의 연령에 맞는 주제와 매체를 통해 직접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원은 스포츠 단체, 군 또는 경찰서에서 활동하는 젊은 계층 대상으로 특별 미디어 패키지와 재교육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한다. 연방정치교육원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출판간행물 발간·보급

1950년대 초반에는 세미나, 수업, 행사 형태의 민주시민교육에 치중하였고, 이후 다수 국민에 대한 효율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정기간행물과 서적출판 사업 비중을 늘리게 되었다. 출판물은 자체적으로 발간하기도 하며, 출판사들과 공동협력사업 형태로 발간된 출판물도 다수 존재한다.

2)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보급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뉴미디어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연방정치교육원은 1984년에 미디어부서를 신설하고, 본(Bonn) 이외에 베를린(Berlin)에도 미디어센터를 1992년 설치하였다. 멀티미디어 매체의 종류로는 영화, 오디오, 만화, 컴퓨터 게임, TV 시리즈물, 인터넷 자료 등이 있다. 영화는 DVD로도 제작하여 저렴하게 보급하고 있고, 서적출판물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민주시민교육 단체들과의 협력 및 재정지원

연방정치교육원은 주(州)정치교육원, 민주시민교육 단체와의 협력·지원형태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약 400여 개의 다양한 시민단체, 사

회단체, 교육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세미나, 행사 등 프로그램 진행

연방정치교육원은 출판·미디어 보급, 간접적 재정지원에 의한 민주시민교육에 주력하면서도 2000년부터는 규모가 큰 세미나, 학생경연대회도 개최하고 있으며, 청소년 민주주의 상(賞)도 선정하고 있다. 또한, 유권자를 위한 정당 정책 비교 인터넷프로그램인 'Wahl-O-Mat'를 개발하여 유권자에게 자신의 성향에 가장 잘 맞는 정당을 추천해주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5) 통일 관련 연방정치교육원의 주요 역할

베를린 장벽의 붕괴 직후 연방정치교육원은 먼저 동독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였고, 통일 이후에는 신(新)연방 주에서도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통일 직후 연방정치교육원은 민주시민교육 출판물을 제작하여 동독지역의 학교와 도서관에 보급하였으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한 예로서 통일 이전에 동독에서 '국가 시민(Staatsbürger)' 교과 과목을 담당했던 교사들이 연방정치교육원에서 개발한 4~6학기의 통신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다시 신(新)연방 주에서 정치 과목 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꼽을 수 있다.

IV. 연방정치교육원과 기타 민주시민교육 기관의 관계

1. 주(州)정치교육원

주(州)정치교육원은 연방정치교육원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일종의 파트너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주(州)정치교육원은 조직상으로 각 주(州)의 교육부 혹은 문화부 산하 기관으로 운영되거나 혹은 주(州) 의회 산하 기관으

로 설립되는 등 주(州)별로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주(州)정치교육원과 연방정치교육원 간의 관리자 회의는 연간 2회 개최되며 각 주(州)정치교육원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5개 신(新)연방주의 재건 당시에는 연방정치교육원과 서독의 주(州)정치교육원들이 신(新)연방주의 자문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5개 신(新)연방 주에 주(州)정치교육원이 설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그 결과 각 신(新)연방주는 독자적인 주(州)정치교육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연방정치교육원은 통일 후 신(新)연방주의 민주시민교육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 정당 재단

연방정치교육원은 정당의 교육에 관여하지 않고 상호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 정당 재단과 연방정치교육원과의 관계도 상호 자율성을 존중하는 관계이다. 독일의 정당 재단 사업으로는 학술 및 정책연구, 장학사업, 민주시민교육 사업, 국제교류사업 등이 있다. 연방정치교육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초정파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 정당 재단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

3.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 사회단체는 연방정치교육원, 주(州)정치교육원 등의 예산 지원으로 현장에서 직접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은 각자 자신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원과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상호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 연방정치교육

원은 주(州)정치교육원 및 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다수의 대규모 행사들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V.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시사점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은 전반적으로 성공리에 실시되었으나 최근 들어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 및 이민, 난민 문제 등으로 인해 독일사회는 인종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양극화 경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세계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는 극우주의 및 정치적 극단주의는 독일사회도 당면하고 있는 과제로서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향과 함께 유럽 공동체에 대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도 독일 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다양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사회의 민주주의 정착과 독일 통일 후 사회통합을 위해 연방정치교육원과 주(州)정치교육원은 큰 역할을 하였다. 독일의 사회통합과정에서 구동독지역이었던 신(新)연방주(州)에 행정체계와 주(州)정치교육원 등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반시설이 비교적 단기간에 구축되었던 것이 효율적인 민주시민교육과 사회통합의 바탕이 되었다. 구동독 지역의 민주시민교육과 사회통합 과정에서 연방정치교육원의 대대적인 재정지원, 방대한 자료지원 등이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였다.

또한, 신(新)연방주의의 효율적인 민주시민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방정치교육원은 각 신(新)연방 주와 합의하여 서독의 여러 대학의 도움을 받아 4주~6주에 해당하는 정치교육 교사 원격 강좌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학교 외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 단체에 대해 재정보조도 하였다. 또한, 1990년 말까지 시행된 수천 회의 교육행사에 1백만 명 이상의 구동독 주민이 참여한 것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독일에서 민주시민교육은 기본법(Grundgesetz)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근본가치를 공유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시민사회 육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의 높은 시민의식과 탄탄한 기반의 민주시민 사회는 독일 사회통합의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기반조성에 연방정치교육원과 주(州)정치교육원이 크게 기여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더 체계화되고 장기적인 안목의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제화와 민주시민교육 전담기구로서 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이 요청된다.

민주시민교육원은 전국적인 기반이 있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원의 전제조건으로서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하는 장치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할 때, 2004년부터 독일 연방민주시민교육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의 역할이 기대된다. 현재 선거연수원은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249개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전국적으로



베를린 미디어센터

로 다양한 형태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 사례가 시사하듯이 우리나라도 민주시민교육원이 국가적 차원에서 설립되어 초당적으로 운영되어 민주시민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강순후 (2016), "독일정치교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비공개 보고서.
 이종희 (2016), "통일 후 동독지역의 민주시민교육 :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 토론문. 2016년 제12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 『사회적 합의 형성 기반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 자료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pp.40-42
 이종희 (2016), 『독일의 정치교육 모델: 연방정치교육원을 중심으로』, 선거연수원 (비공개 논문)
 최영돈 (2016), "독일의 정치교육과 관점의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토론문. 2016년 제12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 『사회적 합의 형성 기반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 자료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pp.70-77
 Evens, Josephine(2016), "Post-unification civiceducation for democracy in the former East German region: Focusing on social consens (통일 후 동독지역의 민주시민교육 :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발제문. 2016년 제12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 『사회적 합의 형성 기반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 자료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pp.5-36
 Schneider, Herbert(1999), Der Beutelsbacher Konsens. In: Wolfgang W. Mickel (Hrsg.), Handbuch zur politischen Bildung. Schriftenreihe Band 358.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Schiele, Siegfried; Schneider, Herbert (Hrsg.) (1996), Reicht der Beutelsbacher Konsens?, Wochenschau Verlag.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와 스웨덴의 민주시민교육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1061840483>

스칸디나비아 북부에 자리한 입헌군주국 스웨덴은 투표율 약 85%를 자랑하는 높은 정치 참여율로 유명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참여와 소통, 대화를 중시하는 스웨덴의 정치



문화가 있다. 이러한 정치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스웨덴 최대의 섬이자 휴양지인 고틀란드(Gotland) 섬에서 매년 7월 초 약 8일에 걸쳐 개최되는 정치박람회 '알메달렌 주간(Almedalen Week)'이다. '알메달렌'이라는 이름은 정치박람회가 개최되는 공원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알메달렌 주간 동안 스웨덴 정당, 유권자, 시민 단체, 학습동아리, 학계, 언론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토론과 대화를 통해 정치·사회적 이슈를 공론화한다. 스웨덴

이 글은 입법국정전문지 "The Leader" 2017년 8월호 p.152~p.155에도 게재되었다.

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 이 시기에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수만 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즐긴다. 즉, 정치가 축제가 되는 것이다.



알메달렌 정치박람회는 1968년 스웨덴 총리 내정자 올로프 팔메 사회민주당 당수가 알메달렌 공원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던 중, 트럭 위로 올라가 즉흥적으로 연설한 것에서 기원했다. 그의 즉흥 연설은 언론에 소개되며 국민적 관심을

받았고, 정책을 홍보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팔메 총리는 알메달렌 공원에서 매년 정책연설회를 개최하였다. 알메달렌 공원에서의 총리 정책연설회는 연례행사처럼 개최되었고, 1975년에 정당이 참여하며 확대되었다. 1982년에는 스웨덴의 대다수 정당이 참여하며 '알메달렌 주간'이라는 명칭을 얻으며 공식화되었고,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행사로 격상된 것은 1991년의 일이다. 이후 1994년에는 노동자조합, 경영자 단체,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정치박람회로 확대되었다. 2011년 이전까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8개의 정당이 각 하루씩 주요 이벤트를 주관하는 8일의 알메달렌 주간이 시작되었다.

현재 알메달렌 정치박람회는 스웨덴 의회의 8개 정당-기독교민주당, 스웨덴민주당, 녹색당, 중도당, 좌파당, 자유당, 중앙당, 사회민주당-이 주최하고

있다. 각 정당은 고틀란드 주(州) 지구당을 통해 '알메달렌 주간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고틀란드 주(州)의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알메달렌 주간'이 시작되면 각 정당은 정당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 중 최고 관심 행사는 매일 저녁 정당별로 돌아가며 각 정당 대표들이 진행하는 연설회이다. 이때 각 연설회의 순서는 의석수와 관계없이 추첨을 통해 정해진다. 당대표 연설회 외에도 각 정당은 주요 정책과제,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발표 등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는데, 방식 역시 TV 방송 출연, 정책설명회, 당수와의 만남, 정책세미나, 문화행사 등으로 다양하다.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모든 정당이 격의 없이 시민들과 소통한다는 점이다. 스웨덴 시민들은 휴가지에 온 듯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정치인들을 만날 수 있다.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의 주축이 되는 것은 정당이지만, 사회 이슈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공동주최자의 역할을 하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에서는 시민단체, 학습동아리, 노동자단체, 이익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주관하는 일반 행사도 활발하게 개최된다. 특히, 3-12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학습 모임인 '학습동아리'는 알메



달렌 정치주간에서도 활발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스웨덴 특유의 시민교육 형태인 '학습동아리'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기회를 스스로 조성하여 다양성과 평등, 공동체를 중시하는 시민의식 형성에 도움을 준다. 이 때문에 스웨덴의 민주주의가 '학습동아리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설명되기도 한다. 학습동아리들은 10개의 학습동아리 협회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28만여 개의 학습동아리에 많은 성인들이 참여하고 있어 스웨덴 민주시민교육의 큰 맥을 이루고 있다. 알메달렌 주간에 진행되는 행사 중 가장 주된 형식으로는 세미나가 꼽히며, 토론회, 영상 상영, 강연회, 워크숍 등도 활발하게 진행된다.

알메달렌 주간의 참가자 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09년 550개 기관이 참가하여 총 행사 수는 1,041개였으며, 2017년에는 공식적으로만 1,895개 기관이 참여하여 총 행사 수는 4,062개, 참가자는 4만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언론의 관심도 매우 높다. 매년 참여하는 언론인들은 약 400여 명 정도로, 알메달렌 주간에서 다뤄진 주요 이슈들을 전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와 같은 정치축제를 꿈꾸기 시작함에 따라 외국 언론사들의 취재 열기 역시 뜨겁다. 핀란드는 2006년 재즈페스티벌에 정치토론회를 접목한 '수오미 아레나(Suomi Arena)'를 매년 7월 중순에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생각을 듣고 정책화하는 정책박람회를 2012년부터 개최하고 있고, 민주시민교육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형 정치박람회를 2018년부터 개최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알메달렌 정치박람회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것과 함께 알메달렌 정치 박람회의 주제도 점차 세계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스웨덴 국내 정치에 관한 이슈가 주로 다루어졌다면, 이제는 브렉시트, 시리아 내전, 난민 위기 등의 글로벌한 의제들도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 지속가능한 산업,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직업 변화 등 스웨덴을 넘어 오늘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들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정당은 축제적 방식으로 유권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정책을 알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이는 정책 조정 과정으로 이어진다.



시민들 역시 알메달렌 주간에의 직접적 참여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정치 의제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기회를 갖게 된다. 2017년 알메달렌 정치박람회를 방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인덕 선거연

수원장은 “알메달렌 정치박람회는 정당과 시민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이익단체, 학계 등도 자신의 의제를 공론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속의 민주주의의 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선진국인 스웨덴의 정치적 풍경의 핵심적인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 정리: 박소엽
사진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도재은

<참고 자료>

김학린 (2015), "공공갈등 예방과 속의적 공공협의: 프랑스 국가공공토론위원회, 스웨덴 알메달렌 정치주간, 미국 21세기 타운홀미팅, 2014 국민대토론회의 비교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13:pp.1, 5-32

Stean Dahlberg(2016), "Voter Turnout in Sweden 1994-2014",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 pp.1-17

<http://www.almedalsveckan.info/6895>

<https://www.thelocal.se/20170705/almedalen-week-has-the-makings-of-a-global-event-give-it-ten-years>

<http://ibd.or.kr/245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1/0200000000AKR20170511029300004.HTML?input=1195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720010708213_06003

각 국의 청소년 모의선거: 독일·스웨덴·캐나다·한국

<http://blog.naver.com/jongheosalon/221107310861>



전 세계 190개국의 선거권 연령은 만 16세에서 21세까지로 다양하며, 이 중 약 148개국은 만 18세를 선거연령으로 정하고 있다. 최근 선거연령을 조

이 글은 이종희 (2017), “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 및 활성화 방안 - 토론편”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입법국정전문지 “The Leader” 2017년 10월호 p.164~p.167에도 게재되었다.

정한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이란, 아르헨티나, 일본 등이 있다. OECD 국가 중 선거연령 기준이 가장 낮은 오스트리아는 2007년 선거권 연령기준을 18세에서 16세로 하향 조정한 한편, 이란은 2011년 15세에서 18세로 선거연령을 상향 조정하였다. 아르헨티나는 2012년 선거권 연령기준을 18세에서 16세로 하향 조정하였고, 일본 역시 2015년 선거권 연령기준을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였다. 우리나라는 2005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만 19세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은 정치적 현안에 대한 참여 주체로서 점점 더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즉, 청소년들은 정치 이슈에 대해 즉각적이고 실제로 관여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권을 부여받기 이전의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는 대표적인 예로 ‘청소년 모의선거’를 꼽을 수 있다. 청소년 모의선거는 청소년들에게 실제의 정치 환경에서 합

연령	국가명	비고
16세	오스트리아, 니카라과, 쿠바, 브라질, 소말리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7
17세	북한, 인도네시아, 수단, 동티모르	4

18세	아시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등	20
	중동	키프로스, 이집트, 이란, 이라크 등	7
	아프리카	알제리,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등	36
	유럽	벨기에, 불가리아, 알바니아, 안도라 등	39
	중·남·북미	미국, 캐나다, 볼리비아, 앤티가바바다 등	31
	오세아니아	호주, 아메리칸 사모아, 키리바시 등	14
19세	한국		1
20세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등		19
21세	싱가포르, 쿠웨이트, 통가, 사모아, 피지 등		12

〈표1〉 국가별 선거연령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15),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p.93 수정·보완)

리적인 선택을 내리는 연습을 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함과 동시에 건전한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

독일 ‘청소년 모의선거’(Juniorwahl, 유니어 발)는 독일 최대 규모의 학생 대상 프로그램이다. 독일의 청소년 모의선거는 연방총선, 주의회선거, 유럽의회선거에서 실제 선거일 7일 전부터 실시되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실제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투표할 기회를 갖는다.

모의선거 결과는 실제 선거 당일 정식 투표가 종료된 직후 발표되어, 독일 시민들은 실제 선거 결과보다 청소년 모의선거 결과를 먼저 알게 된다. 청소년 모의선거에 참여하는 학교는 약 한 달간 후보자 공약집과 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청소년들은 후보자와 정당의 공약을 비교, 평가한 후 투표한다. 투표는 투표용지를 통한 오프라인 투표와 온라인 투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선거 관리 역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독일 청소년들은 모의선거를 통해 선거과정을 체험하고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것이다. 청소년 모의선거는 7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모의선거 참여 여부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며



독일 청소년 모의선거 진행 모습 (사진 제공: Juniorwahl)

참가비용은 무료이다.

독일의 청소년 모의선거는 1999년부터 시작되었다. 2002년 연방총선에서는 독일의 모든 주에서 청소년 모의선거가 실시되어 약 8만 명의 청소년들이 모의선거에 참가하였으며, 86%의 투표 참가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2004년 유럽의회선거에서는 세계 곳곳의 독일 국제학교와 연계하여 폴란드와 오스트리아에서도 청소년 모의선거가 실시되었다. 2009년 연방총선거에는 총 1,043여 개 학교가 청소년 모의선거에 참여하여 약 24만 6천 명의 학생들이 투표하였다. 2017년 9월에 실시된 연방총선 청소년 모의선거에는 전국적으로 3,490개 학교가 참가했으며 총 95만 8,462명의 학생들이 등록하고, 79만 6,332명이 실제로 투표하여 83.1%의 투표 참가율을 나타내었다. 독일 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모의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웨덴

대규모 정치박람회 ‘알메달렌 위크’, ‘학습동아리 민주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민주시민교육의 강국 스웨덴 역시 청소년 모의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 투표(School vote, Skolval)’라고도 불리는 스웨덴의 청소년 모의선거는 중·고등 수준의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선 기간에 실시되며, 학생들은 스스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제 선거 방식과 동일하게 투표와 개표를 진행한다. 청소년 모의선거의 개표 결과는 총선 결과와 함께 신문과 TV 등의 매체에 발표된다. 이렇게 스웨덴 청소년 모의선거를 통해 학생들은 선거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민주주의 원리와 시스템에 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스웨덴의 청소년 모의선거는 2002년 스웨덴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처음 실시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유럽의회 선거 기간에도 실시되고

있다. 시행 초기인 2002년에는 34.3%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했으나, 2006년에는 86.66%로 참여율이 대폭 상승했다. 2014년에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1,800여개 학교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 정부는 2018년 총선거와 2019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청소년 모의선거에 약 500만 스웨덴 크로나를 출연하였으며,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학교도 모의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 모의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캐나다

캐나다의 학생 선거 프로그램, ‘스튜던트 보트(Student Vote)’는 2003년 10월 온타리오 주에서 처음 실시되어 43%의 주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후 학생 선거 프로그램은 캐나다 전 지역으로 점점 확대되어 2006년 연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학생 선거에서는 2,500개 학교에서 468,00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지난 2015년 10월 캐나다 연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학생 선거에는 6,662개 학교에서 922,000명의 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했다.

캐나다의 학생 선거 프로그램은 비정당성(non-partisan)을 원칙으로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는 정부 인가 자선단체 ‘CIVIX’에서 운영한다. 실제 선거일을 1주 정도 앞둔 시기에 ‘전국 학생 투표 주간(National Student Vote Week)’이 지정되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2015년 캐나다 연방 선거 기간에는 선거일인 10월 19일을 앞두고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학생 투표 주간으로 정해졌다. 이 기간 동안 캐나다의 학생들은 후보자, 정당과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조사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 정치 토론을 벌인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맡는다. ‘스튜던트 보트’의 자체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에 참여한 교육자의 100%가 학생 투표



캐나다 학생투표 진행 모습 (출처: studentvote.ca)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학생의 83%가 미래에 선거에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학부모의 90%는 이 프로그램이 가족들에게 정치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밝혔고, 28%는 이 프로그램이 그들의 투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대답했다.

한국

우리나라에서도 YMCA 주관으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 여부에 대한 질의 과정을 거친 후,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청소년 모의대선투표가 실시되었다. 4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한 달간 청소년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60,075명의 청소년이 선거인단으로 등



한국 청소년 모의대선투표 진행 모습과 당선증 전달 장면(사진제공: YMCA)

록한 가운데 이 중 86%인 51,715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사전 투표일은 5월 4일부터 5일, 본 투표일은 대선일과 동일한 5월 9일이었다. 투표일에는 지역 거점 투표소를 통한 오프라인 투표와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투표가 함께 진행되었는데, 지역거점 투표소는 실제 투표일에만 운영되었다. 청소년 모의 대선투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39.14%의 지지를 받아 최다 득표자가 되었으며, 2위는 36.02%의 득표율을 얻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차지했다. 청소년들은 문대통령 취임 100일인 2017년 8월 19일 청와대를 방문해 청소년들이 뽑은 대통령 당선증을 전달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은 모의선거를 통해 정치를 체험하고 경험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적극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주장을 펼치며 민주주의를 생활화하게 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도 이러한 민주주의 체험을 생활화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면, 향후 이 청소년들이 선거권 연령에 도달하여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때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관심사와 공익적인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정치의 질도 한층 더 향상될 것이다.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실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번 청소년 모의대선을 주관한 YMCA 김진곤 국장은 “민주주의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귀족에서 천민으로, 지배계층에서 민중으로 참정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그리고 이끌어 갈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이 보이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자료정리 : 박소엽

<참고 자료>

- 김진곤 (2017), “청소년이 직접 뽑은 대한민국대통령 모의투표의 의의와 과제”, 『청소년정치참여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진선미의원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최, 선거연수원 후원 세미나 자료집, pp.3-15
- 이종희 (2017), “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 및 활성화 방안 - 토론문”, 『청소년정치참여확대 및 활성화 방안』, 진선미의원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최, 선거연수원 후원 세미나 자료집, pp.55-5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15),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 Milner, Henry (2010), *The Internet Generation: Engaged Citizens or Political Dropouts*. Medford, MA: Tufts University Press
- <http://studentvote.ca/>(검색일: 2017-09-15)
- <http://www.government.se/articles/2017/04/school-elections-initiative-inspires-young-voters/>(검색일: 2017-09-22)

호주의 민주시민교육 사례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0903150089>

민주시민교육 사업 현황

호주의 민주시민교육은 정부 기관인 호주선거위원회(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AEC)와 그 산하의 국립선거교육센터(National Electoral Education Centre, NEEC)에서 주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교육 과정은 선거과정에 대한 학습을 통해 헌법과 법률이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정당과 국회 역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며 청년들의 시민사회 참여를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에서도 연구 협력 등 정부의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은 선거연수원 호주 해외연구원 김리라(2014), "호주의 민주시민교육", 『2014 해외연구원 보고서』, 선거연수원, pp.679~694를 수정·보완한 글이다.

민주시민교육 교육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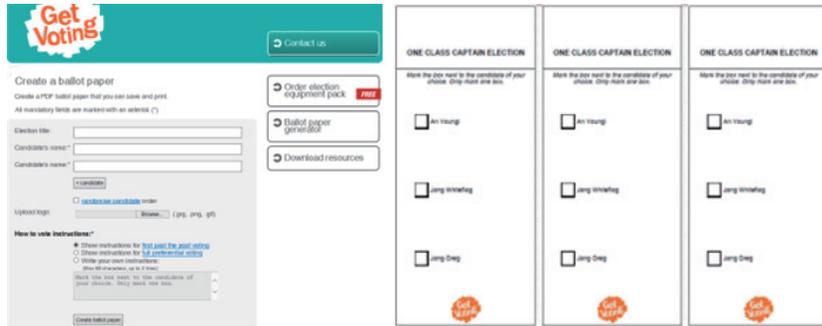
학생선거 지원 프로그램 '겟 보팅(Get Voting)'

'겟 보팅'은 호주선거위원회(AEC)의 민주시민교육의 방법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연방선거와 비슷한 환경에서 선거교육을 실시하고 선거권과 선거의무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실제 선거와 같은 형식으로 학교에서 치러지는 선거를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단계는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로 나누어지며, 각 단계별로 PPT 예시와 선거 도구가 제공되어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

- ① 시작 : 선거를 계획하고 후보자 선정을 하는 단계
- ② 조직하기 : 선거에 필요한 것을 함께 나열해보고 확인하는 단계
- ③ 선거교육과 캠페인 : 선거의 내용과 올바르게 투표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단계
- ④ 투표하기 : 선거 당일을 가상으로 체험하는 단계
- ⑤ 결과보기 : 개표와 당선자를 공표하는 단계

The screenshot shows the 'Get Voting' website interface. On the left, there's a 'GET VOTING' banner with the text 'Get Voting is everything you need to run a free and fair election for your class or school.' Below this, there's a section titled 'Why use Get Voting?' with bullet points. On the right, there's a 'Tally Sheet preferential' form. The form has a table for candidates with columns for 'Candidate's name', '1st Count', 'Transferred votes', '2nd Count', 'Transferred votes', and '3rd Count'. Below the table, there's a section for 'Votes needed to be elected' with a grid for 'Formal votes' and 'Informal votes'.

'겟 보팅(Get Voting)'의 첫 웹페이지(좌), 투표수 기록용지 예시(우)



학생들이 직접 투표용지를 만들 수 있는 코너(좌), 학생들이 만든 투표용지 예시(우)

국립선거교육센터(National Electoral Education Centre, NEEC)

국립선거교육센터는 선거 정보에 관심이 있는 모든 연령층이 참여하여 선거 과정을 체험하고 민주시민교육 강의를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멀티미디어실 강연, 투표소 시뮬레이션 등으로 다양하며, 교육 내용을 통해 호주 민주주의 역사와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또한, 국립선거교육센터가 위치한 캔버라 주변의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국회의사당, 옛 국회의사당, 호주전쟁기념관 등에서도 관련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다.



국립선거교육센터(NEEC)에서 학생들의 투표소 시뮬레이션

국립 평가 프로그램(National Assessment Program, NAP)

호주 교육협의회(Education Council)에서는 2004년부터 학생들의 시민교육 및 시민의식에 관한 국립평가프로그램(NAP-CC)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평가프로그램은 6~10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년마다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지난 2013년 이루어졌던 평가에서는 호주의 정치 시스템과 정부·시민사회에 대한 이해를 묻고 시민활동에 대한 태도와 가치, 참여정도를 측정했다.

민주시민교육 라디오 시리즈 'The Good Citizen'

1998년에 정부 주도 개방형 교육(Open Learning Australia)의 일환으로 'The Good Citizen'이라는 라디오 시리즈가 방영되었다. 젊은 세대들이 호주 정치제도 및 기구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평등, 접근권(access), 대표성, 현안에 대한 찬반, 법적 질서 등 호주 민주주의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주시민교육 라디오시리즈 'The Good Citizen'의 대본

기타

호주선거위원회(AEC)에서는 '민주주의 규칙(Democracy Rules)'이라는 전자교육자료를 모든 학교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 손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Education) 섹션에는 18세가 되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국가 시민으로서 선거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고 이들이 새로 선거인 등록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생 대상 선거인등록 홍보 포스터

영국의 민주시민교육 사례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0771767839>

정규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을 의무적으로 편성해

영국은 정규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Education for Citizenship)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정규과정내의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참여·선거제도·정당 정치·의회정치·사법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개혁법 1988 (Education Reform Act 1988)」에 따라 의무교육 기간(만 3~18세)은 총 6개의 핵심단계(key stage)로 나누어지며, 각 단계별로 아동·청소년이 습득해야 할 학습 기준이 제시된다. 6개의 핵심 교육단계 가운데 3단계(만 11~14세) 및 4단계(만 14세~16세)에 해당하는 기간에 민주시민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민주시민교육이 의무적으로 정규과정에 편성된 것은 2002년 8월이었으며, 교육의 주된 내용은 사회적·도덕적 책임감(social and moral responsibility), 정치적 판단능력(political literacy), 지역사회 관여(community involvement) 3가지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내용은 선거연수원 “2014 해외연구관 보고서”, p.638~p.653을 기초하여 작성한 것이다.

민간 단체들이 민주시민교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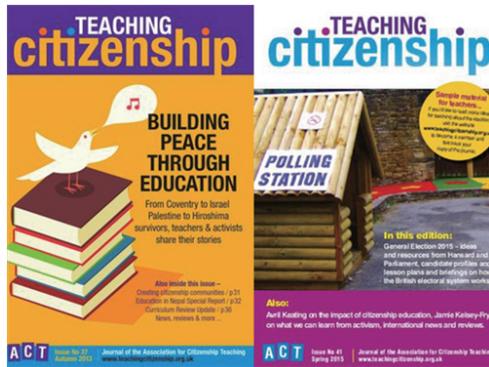
전국시민서비스(National Citizen Service, NCS)는 만 15~17세 잉글랜드 및 북아일랜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1년에 세 차례(봄, 여름, 가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문제해결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NCS 프로그램은 정규학기 이외의 시간을 활용해 구성되는데 졸업시험의 일환으로 중등과정 자격시험인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에 부합하는 요건들로 구성된다.

GCSE는 학생들이 다양한 형태의 능동적 민주시민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1〉 지역 현안에 대한 개별 프레젠테이션 수업 및 야외활동 모습

민주시민교육협회(The Association for Citizenship Teaching: ACT)는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및 관련 교육 종사자들의 단체로 지난 2001년 설립되어 일선 교사들에게 민주시민교육 및 평가 방안 등에 대한 지침을



〈그림 2〉 민주시민교육협회에서 발간하는 민주시민교육 저널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재단 (Citizenship Foundation) 은 민주시민교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특히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교사 및 학생 대표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추구하고 있는

데 재정·경제, 정치적 판단능력, 사법제도, 사회활동 등 주제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피닉스 교육재단 (Phoenix Education Trust)은 '실적주의(meritocracy)' 용어의 창시자인 마이클 영(Michael Young) 경에 의해 지난 2000년 설립된 재단으로서 학교의 민주시민교육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민패널 운영은 젊은 층의 정치적 무관심 현상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위기의식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시민패널은 자체 연합, 'National Youth Agency' 등 다양한 단



〈그림 3〉 시민교육재단의 사법제도 교육프로그램 학생들이 모의재판에 참여한 모습과 변호사가 직접 수업에 참여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토론하는 모습



〈그림 4〉 시민패널 모집 공고문, 시민패널 모임장면

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증진시키고 있다. 특히 시민패널의 운영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민주시민교육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Andrews, Rhys and Andrew, Mycock (2007),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UK: divergence within a multinational state, *Citizenship Teaching and Learning*, 3(1), pp.75-76

Association of Citizenship Teaching in partnership with the National Citizen Service Trust (2013), *Teaching guide: NCS and citizenship curriculum materials*, p.4

Clarke, Simon (2007), 'The trajectory of 'political education' in English schools: the rise and fall of two initiatives', *Citizenship Teaching and Learning*, 3(1), pp.3-4

Department for Education (2013), *citizenship programmes of study, key stages 3 and 4*,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Huddleston, Ted (2003), *Teaching about controversial issues: guidance for schools*, The Citizenship Foundatio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2014), *Youth transitions: helping every young person reach their full potential*, pp.30-31

NatCen Social Research (2013), *Evaluation for National Citizen Service: finding from the evaluations of the 2012 summer and autumn NCS programmes*, p.8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2013), *Citizenship consolidated?: a survey of citizenship in schools between 2009 and 2012*.

<http://www.nrdc.org.uk/content.asp?CategoryID=759&ArticleID=622> (검색일: 2014년 11월 7일); John Potter (2002) *Active Citizenship in Schools*, London: Kogan Page, pp.14-15

<http://www.citizenshipfoundation.org.uk> (검색일: 2014년 11월 10일)

<http://bristol.gov.uk/page/council-and-democracy/citizen-panel-overview> (검색일: 2014년 11월 12일)

<http://www.feedbackonline.org.uk/gallery/95/> (검색일: 2014년 11월 15일)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0903150089>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김홍신 원장



제 10기 개강식



제 9기 수료식



제8기 수료식



제7기 수료식



제6기 수업 후 기념촬영



제5기 분임 토의 시간



제4기 청강 모습



제3기 현장체험학습



제2기 개강식



제1기 수업 후 모습



김형오 前 국회의장 강의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을 감동케 하라'는 기치 아래, 정치·사회 지도자를 양성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3년에 개설하였다. 설립 후 현재까지 총317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료생들은 법조계·교육·문화계·기업·금융계·의료계·언론·방송계 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다.

수강생들은 15주 동안 선거·정치 분야, 외교·국방 분야, 경제·사회 분야, 교육·과학 분야, 인문·역사 분야, 문화·언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명망 있는 강사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 강의



홍석우 前 지식경제부 장관 강의



조벽 동국대 교수 강의



방송인 황수경 강의



청강 모습

각 분야의 명망있는 강사들의 수준 높은 강의는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의 특색을 잘 보여주며 수강생들의 좋은 평가를 받는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귀화한 인요한(Johan Linton) 연세대학교 교수는 진한 전라도 사투리를 살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흥미로운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코미디언으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김병조 조선대학교 교수는 '명심보감에서 배우는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가치관과 정도를 지키며 낮아지고 비우는 삶을 실천하는 법을 강연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는 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면밀히 분석하며 '국제법으로 본 독도 문제'에 대해 강의했다.



인요한 연세대 교수 강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강의



김병조 조선대 대학원 교수 강의



또한, 김홍신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특강,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한국 선거,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우리의 벨 에포크(La Belle Époque)를 위해서'와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의 '선거와 민주주의 발전' 등의 강의에서는 선거·정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배울 수 있었고,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국가 안보와 리더십',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우리의 대응' 등에서는 현직에 종사했던 경험을 토대로 한 귀중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김병준 前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강의



강철규 前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강의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강의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원택 서울대 교수 강의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선수단 감독



김황식 전 국무총리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제8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워크숍



제8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현장체험학습

수강생들은 모든 강의에서 늦은 시간까지 흐트러짐 없이 진지한 모습을 보이며 의미 있는 질문을 통해 강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을 나타냈으며, 1,2교시의 강의 후에는 일명 3교시 모임을 통해 강의실 바깥에서도 서로 소통하는 대화의 장을 가졌다. 아울러 수강생들은 여러 차례의 자치활동을 통

내 생애 가장 뜨거웠던 여름 교원연수강의 그 2주일의 잔상

<http://blog.naver.com/jongheesaion/220785499599>

선거연수원 교수 김상범

대지는 거대한 비닐 돔 속에 갇혀 가마솥처럼 찰찰 끓고 있었다.

주차해 둔 자동차는 이미 불가마다. 반숙계란을 원하면 오전만, 찜질방계란을 원하면 종일 차 안에 두기만 하면 된다. 잠시만 밖에 나가도 내 두개골 속 단백질이 응고될 것 같은 막연한 공포심에 움츠린다. 중복을 전후로 한 교원연수 기간은 여름휴가의 피크로 교통체증까지 겹쳐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는 냉각수가 없다면 아마 엔진은 멈췄을 것이다.



‘내 생애 가장 뜨거웠던 여름’ 그것은 강의 프롤로그의 화두였다.

나의 각오와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의 열정이 통했고 같은 장소에 함께 있는 이유가 같았기에 이야기는 쉽게 통했다.

한 다양한 체험을 하기도 하였다. 2016년 상반기에 진행된 제7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에서는 견학과 워크숍을 겸한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제7기 원생과 졸업생이 함께하여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 등이 열렸다. 하반기에 진행된 제8기에서는 북악산에서 출발해 인왕산을 거쳐 서대문형무소를 견학하며 강의실 밖에서 역사를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동문과의 대화’를 통해 50여 명의 원생과 졸업생이 서로 교류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원우회는 특별로 조직되어 수료 후에도 원우 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선배와의 대화

이중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시민교육부장은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를 수료한 수강생 모두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하면서, 각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가 훌륭한 강사들·수강생들과 함께하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동일

전남 무안 백련지를 지날 때, 물속에 비친 내 얼굴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지난날들이 부끄러웠다. 연뿌리는 쉽 없는 정화작용을 하여 깨끗함을 유지함으로써 물속 생명체가 탈 없이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보았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다양한 생각들이 공감을 거쳐 의식과 행동으로 정화될 때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평범한 진리로써 이번 연수의 방향을 설명하고, 교원연수의 강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다졌다. 미래 유권자인 다음 세대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입장도 일맥상통하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으로 화답했다.

오늘날 정치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대안 없는 비판들이 우리 사회에 넘쳐 있다. 그것이 마치 지성과 열정인양 포장되기도 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일방적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민주주의와 주권, 그리고 정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다음 세대에 그냥 스며들게 된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기에 교육현장의 선생님들부터 선거와 정치의 순기능에 대한 긍정의 끈을 움켜쥐고 학생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울골은 가치관을 심어 주자고 호소했다. 기울지 않은 생각과 가치관이야말로 민주시민으로서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 사회를 바로 서게 하는 평형수이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선거와 민주주의 그리고 더 나은 정치문화를 위하여 유권자의 의식에 평형수를 채우는 역할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가치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우리의 선거사와 민주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이 확실하다. 전환기 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우리의 선거시스템은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른바 '선거한류'로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맑고 거대한 한강물은 역사와 함께 오늘도 유유히 흐르고 있다. 눈에 보이는 큰 쓰레기나 독성 폐수들을 방관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계곡의 맑은 물줄기가 있었기에 오늘의 한강은 존재하는 것이다.

불량품은 소비자의 손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된다. 마찬가지로 유권자의 손에 의해 선거판과 정치판이 서서히 지속적으로 정화되어 왔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거나 나의 한표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포기한다면 남는 것은 혼탁함뿐일 것이다. 이런 내용의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나름대로 신선한 울림이 있음을 보고는 강사로서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다.

내 강좌는 선생님들께 선거법이나 선거제도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나라 선거와 민주주의 성장과정에 대한 성찰, 현재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진단, 그리고 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교육현장에서 함께 공유하자는 것이었다.

오후 1시의 강의는 잘못하면 강사의 무덤이다. 재미없는 강의는 졸음을 부르고, 자장가이거나 소음으로 전락한다. 강의 내용의 본질을 살리면서도 자연스러운 유머를 섞는 것은 마치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와 같은 것이었다. 잘못 쓰면 오히려 잘된 음식의 담백함을 해치듯 안하느니만 못하니 유머에도 철저히 설계된 기술이 필요했다. 선거제도의 변천과정을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역대 대통령의 성대모사로 메시지를 전달하니 모두들 웃으면서 재미

있게 받아들였다. 다음 지역으로 운전해 이동하면서도 새로운 메시지를 구성하고 소리 내어 연습했다. 심지어 숙소에서 잠들기 전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리허설을 하기도 하였다.

2주간 동일한 주제로 하는 아홉 번의 강의는 오히려 나에게서는 집중훈련이었다. 교사들의 반응을 보며 매일 보완하면서 자연스러움을 축적하고 자신감을 얻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의 강의를 아니라 수강생이 듣고 싶고 궁금해 하는 고객맞춤 내용으로 수정해갔다.

강의 직후 좋게 평가해주고 격려해 주시던 선생님들이 생각난다. 난 그들의 열정이 더 나은 내일을 열 것이라 기대했고, 나의 이런 기대가 결코 틀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한 분 한 분 모두가 한강으로 흘러드는 계곡의 맑은 물이고, 다음 세대를 우뚝 서게 하는 국가백년대계의 '평형수'이기 때문이다.

'내 생애 가장 뜨거웠던 여름'도 지나갔다.

모두에게 시원함이 가득한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제12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

『사회적 합의 형성 기반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1):
《독일 통일과 민주시민교육》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0839219528>

제12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이 2016년 9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사회적 합의 형성 기반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선거연수원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국제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민주주의 지수 최상위권 국가의 시민교육 전문가 및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독일, 노르웨이, 뉴질랜드 3세션으로 나누어 개최되었다.

김진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장의 개회사로 이번 행사의 막이 올랐다. 김진배 원장은 '다문화, 난민, 테러 등 현재 직면한 지구적 문제와 한반도 통일 이후 해



김진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장

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를 앞둔 이때, 민주시민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시대적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의 개최 의의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을 바탕으로 '선거연수원의 역할과 과제를 진지하게 모색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민주정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정우탁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정 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역할을 강조했다.



정우탁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



독일연방정치교육원 요세피네 에벤스(Josephine Evens)

제1세션은 전태국 강원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독일 통일과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 발제문 발표는 '통일 후 구동독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독일연방정치교육원의 요세피네 에벤스(Josephine Evens)가 맡았다. 에벤스는 독일의 정치교육 발전 과정, 연방정치교육원과 주정치교육원의 역할, 독일 정치교육의 도전과 과제 등을 분석하였으며, '민주시민교육은 성숙한 시민사회를 필요로 하나, 40년간 독재를 경험한 구동독 지역은 구서독 지역에 비해 민주시민의식이 부족했다'며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이 펼쳤던 다양한 활동들도 소개했다. 그 예로는 다양한 집단별로 맞춤형 온·



첫 번째 토론 모습

오프라인 자료 제공, 행사 주최, 책자 출간 등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들었다. 한편, 에벤스는 '현재 독일은 극우주의 경향이 강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에 할애한 시간이 적을수록 극우주의에 휩쓸리기 쉽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통일 후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말하며,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법제화와 민주시민교육원 설립을 통해 혁신적·다학제적·다관점적인 민주시민교육으로 과제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에벤스의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김택환 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추진위원장은 '민주주의는 정치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뮌헨 매니페스토 선언을 언급하며 '한국형 민주시민 정치교육원의 설립'을 제안했고, '여러 정파가 존재하는 독일의 정치 현실에서 통일된 정치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있었다.'며 '정치교육이 계몽적이고 억압적인 형태가 아닌 융·복합적이고 자발적인 형태를 띠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의 청소년,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회 통합을 위해 보다 많은 정치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벤스의 발제에 대한 두 번째 토론자인 선거연수원 이종희 교수는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민주주의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고, 독일 통일 후 독일의 사회통합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근대화의 역행요소들과 흡수통일 과정의 문제점들을

언급했다. 그리고 ‘독일 통일 후 26년이 지난 오늘날, 독일의 사회통합은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다.’고 분석하면서, 통일 독일의 사회통합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방정치교육원, 그리고 주정치교육원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했다. 한편, 독일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독일 인구 20%가 이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인 점, 난민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문화적 사회통합이 큰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에 주목하며 ‘한국에도 민주시민교육의 법제화와 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는 정기섭 인하대학교 교수의 “독일 민주시민교육 방법 사례 분석”이었다. 그는 독일의 “정치교육에서 ‘교육’의 의미와 교육방법”을 다룬 다음 ‘독일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을 분석하였고, 이어서 ‘정치교육방법 사례’들을 논했다. 그는 ‘교육을 뜻하는 에어찌웅(Erziehung)이라는 동의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교육에서 빌둥(Bildung)이라고 용어를 쓰는 이유가 정치교육에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의미를 내면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독일의 정치교육에는 대화중심, 텍스트중심, 생산물중심, 시각중심, 놀이중심, 연구중심 등 다양한 형태의 방법이 사용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치교육의 목적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인간을 기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행위능력의 함양과 방법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밝혔다.



정기섭 인하대학교 교수

이러진 토론에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김재홍 전문



심포지움 전경

관은 ‘독일의 정치교육이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논했다. 그는 2012년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세계교육의 우선과제 중 하나로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을 언급한 이후 세계시민교육은 전 세계에서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독일의 정치교육 역시 세계시민교육, 그리고 그 이전에 국제사회에서 논의된 개념인 ‘지속가능발전전략’과 맥을 같이한다고 했다. 또, 그는 교육과정에서의 패러다임 변화(Paradigm Shift)가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분절되어 시행되고 있는 정치교육을 독일의 선례처럼 통합적으로 변화시키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서 최영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방송토론팀장은 ‘독일의 정치교육과 관점의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그는 민주주의 교육의 보편타당한 원칙인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며, 여기에 담긴 의미를 다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고 강조했다. 그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역사적 배경,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내용과 이론적 정당성도 깊이있게 소개했다. 그는 '갈등은 인간 공동생활에서 보편적 현상이며 특정한 여건 아래에서는 생산적인 변화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갈등이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방식, 즉 소통의 방식에 있다.'며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통일 후 독일의 사회구조변화와 민주시민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한 허영식 청주교육대학교 교수의 발제가 있었다. 허영식 교수는 근대화이론의 관점에서 '통일 후 독일의 사회구조변화'를 분석하고, 독일통일과 사회구조변화에 대한 독일국민의 여론에 기초하여, 통일과 사회구조변화에 비추어 본 민주시민교육의 과제에 대해 논했다. 그는 구동독의 '획일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에서 벗어나도록 장려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게 된다'고 하면서 '민주적 갈등 문화(conflict culture)·논쟁문화(controversy culture)·대화문화(dialogue culture)를 조성하고 착근시키는 일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페기다(Pegida)', '독일을 위한 대안(AfD)'등 독일 사회 내 극우주의적 논란을 언급하며 다문화사회 속의 사회통합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단극복과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 역시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공동의 집단정체성이나 민족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영식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세 번째 토론 모습

이어서, 토론자인 마르쿠스 하츨만 (Markus Hatzelmann) 주한독일대사관 언론홍보 1등 서기관은 장년 세대뿐만 아니라 통일된 독일에서 자라난 젊은이들에게 역시 통일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독일사회에서 낙오되었다고 느끼는 구동독 출신의 장년층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통일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나간 사람'이라며 이들의 생애를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서독 통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현실을 변화시킬 것인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연구원의 안지호 박사는 독일 통일 이후 동서 간의 문화·경제적 격차에 주목했다. 그는 '동·서독의 경제적 격차는 어느 정도 좁혀졌으나 문화적 격차는 남아있다.'며 독일 통일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주목하면서, '서독 TV 시청을 통해 동독의 국민들은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결핍이 동독의 일당독재체제와 밀접히 연관되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한편,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통일을 원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인 '남한 드라마가 북한 정치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남한 드라마나 영화 시청이 북한사회의 남녀 평등의식, 합리적 사고를 고취하는 한편, 남북한 사회의 비교를 통한 정치적 자아(me)를 형성시켜 북한사회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촉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연구원의 안지호 박사는 독일 통일 이후 동서 간의 문화·경제적 격차에 주목했다. 그는 '동·서독의 경제적 격차는 어느 정도 좁혀졌으나 문화적 격차는 남아있다.'며 독일 통일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주목하면서, '서독 TV 시청을 통해 동독의 국민들은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결핍이 동독의 일당독재체제와 밀접히 연관되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한편,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통일을 원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인 '남한 드라마가 북한 정치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남한 드라마나 영화 시청이 북한사회의 남녀 평등의식, 합리적 사고를 고취하는 한편, 남북한 사회의 비교를 통한 정치적 자아(me)를 형성시켜 북한사회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촉진한다.'고 밝혔다.

제12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

『사회적 합의 형성 기반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 (2):
《시민교육의 일상화, 시민성 그리고 노르웨이 민주주의》<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0839933938>

2016년 9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개최된 제12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 『사회적 합의 형성기반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 제2세션은 “노르웨이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의 일상화”라는 주제하에 정창화 단국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 타르예이 헬란드(Tarjei Helland) 오슬로·아케르스후스대학교 교수는 노르웨이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토대로 ‘학교 과목으로서의 시민교육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현대 노르웨이 민주주의 교육이 직면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노르웨이의 자유 민주주의는 1814년 헌법채택과 1905년 독립 등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오랜 전통을 갖는다.’고 하면서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이 동반 성장했다’고 말했다. 또한, ‘노르웨이의 시민교육은 초·중등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



타르예이 헬란드(Tarjei Helland) 오슬로·아케르스후스대학교 교수

하며, 특히 사회 교과과정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의 민주주의는 테러리즘, 극단주의 등의 도전을 받고 있으며, 민주적 참여와 적극적인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고, 향후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위험감수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포지엄 전경

이어서, 김인춘 연세대학교 교수는 토론을 통해 노르웨이 독립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논했다. 그는 ‘노르웨이는 외부요인이 아닌 자력으로 독립했다고 말하며 그 밑바탕에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교육의 힘’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 토론자 장준호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노르웨이 국가교육과정이 제

시하는 인간상 중 ‘spiritual human being’이 한국에서는 ‘종교적인 존재’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 ‘정신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즉 성찰하는 사람’을 뜻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헬란드 교수에게 ‘위험감수’ 개념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청했고, 노르웨이의 ‘국가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의 관계’와 다중시민성에 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헬란드 교수는 ‘spiritual human being은 종교적인 존재가 아닌 것이 맞다’며, ‘노르웨이 교육은 가치를 추구하는 인재 육성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위험감수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속에는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완전한 안보와 안전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지양해야 한다’고 부가 설명했다. 세계시민성과 국가시민성

의 문제에 대해서는, ‘난민 문제가 대두되고 극우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시민교육을 통해 국가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두 번째 발표자 이현근 부경대학교 교수는 ‘노르웨이의 시민교육, 정치참여 그리고 민주주의’에 관해 발표했다. 그는 ‘노르웨이가 공산주의 위협과 1930년대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시민주의 이념과 개방주의 전통을 형성하게 되었다’며 ‘참된 민주주의란 위기를 극복하는 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화중재국가 및 성평등국가로서의 노르웨이’를 조명하며 ‘한국사회의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의식을 개혁하고,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현근 부경대학교 교수

이어서, 토론자인 최병효 전 노르웨이 대사가 과거 노르웨이에 주재하면서 겪었던 경험에 근거하여 노르웨이의 평등주의와 다양성 존중,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노르웨이는 가치체제 확립을 통해 지배체제를 확립하고, 민주시민교육이 다시 국가 및 가치체제를 지탱하는 양방향의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것이 노르웨이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유가치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가 과제라고 밝혔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위정희 나눔교육센터장은 ‘공유가치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시민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90년대 이후로 민주시민교육을 고민



두 번째 토론 모습

민희 경희대학교 교수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법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 등의 지자체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다’며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세 번째 발표자, 민희 경희대학교 교수는 ‘노르웨이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토대가 무엇인지’에 관해 논했다. 그는 ‘평등주의는 곧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평등과 자유의 융합이 노르웨이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르웨이에서는 비정규교육이나 비공식교육과정에도 참여율이 높고, 성인교육 실천에서 공적·사적·NGO적 영역의 공조가 두드러진다고 하며 ‘노르웨이의 높은 민주주의 수준은 교육, 특히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교육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토론자인 제주평화연구원의 이성우 박사는 ‘말하는 법, 듣는 법, 대화하고 협상하는 법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문서화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과학적 학

제12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

『사회적 합의 형성 기반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 (3):
《뉴질랜드의 합의제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0839948237>

습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를 배양하고, 여기에 사회과학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역이기주의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집단적 사고(Group think)를 통해 생각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토론자, 선거연수원의 고선규 교수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시민교육의 일상화가 직결된다'며 '토론을 통해 일상 속의 문제해결능력을 습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북유럽에서는 지역기반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한다고 언급하며, '한국에서도 지역기반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역의 민주시민교육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 모습

2016년 9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개최된 제12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 「사회적 합의 형성기반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 제3세션은 강순원 한신대학교 교수의 사회 아래에 '뉴질랜드의 합의제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는 에이미 플레처(Amy Fletcher) 캔터베리대학교 교수로, 이번 발표에서 뉴질랜드의 시민교육과 민주주의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마오리와 비(非)마오리 태평양 섬 주민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최



에이미 플레처(Amy Fletcher) 캔터베리대학교 교수



첫 번째 토론 모습

근 추세를 분석하고, 참여적 미래예측 방법을 통합적 시민교육에 이용하려는 뉴질랜드의 시도를 살펴보았다. 그는 “뉴질랜드의 혁신적 시민교육을 통해 지역사회가 ‘미래에 서서’ 바람직한 미래상을 함께 그릴 수 있다”고 말하며, “급격한 기술변화 시대에 미래 시민의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는 ‘예측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이경 중앙대학교 교수는 토론을 통해 ‘뉴질랜드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그 과제란 ‘기존에 구성된 시민과 새로운 이민자를 통합하는 문제’와 ‘미래의 시민이 될 청소년을 통합하는 문제’라고 정리했다. 그는 또한 플레처 교수의 발표에 대해 “과학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통합한 ‘과학적 시민성(Scientific Citizenship)’ 개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하며, ‘한국의 민주 시민교육 참여 수준을 높일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번째 토론자 서현진 성신여대 교수는 ‘다민족 국가를 향해가는 한국에서 사회통합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뉴질랜드의 연구결과가 중요하다’고 했고, 플레처 교수에게 민주시민교육과정의 포괄적인 과정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청했다.

플레처 교수는 김 교수의 질문에 대해 ‘민주시민참여는 학생들의 여가시간을 필요로 한다’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충분히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서 교수의 질문에 대해서는 ‘춤, 연기, 모의회의 등 여러 가지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하므로 포괄적으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고 대답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최태욱 한림국제대학교 교수로, 뉴질랜드 정치 개혁의 성공 요인과 그것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독일식 비례

대표제를 도입한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선거제도개혁연합(ERC) 등 여러 시민단체와 언론사, 소정당 등이 개혁여론을 동원하고, 정치기업가가 구심점 역할을 한 것이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하는 한편, ‘해당 문제를 국민투표로 부칠 수 있었다는 점 역시 주요한 성공 요인이었다고 덧붙였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교 교수

두 번째 발표에 대해 김형철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토론을 통해 ‘뉴질랜드의 정치 개혁은 유권자들이 평가하고 심판해야 정치권이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하며, ‘정치기업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책임성을 묻는 유권자들의 투표가 정치 개혁에 있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어서 성장환 대구교육대학교 교

수장은 ‘정치개혁의 성공은 유권자들이 평가하고 심판해야 정치권이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하며, ‘정치기업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책임성을 묻는 유권자들의 투표가 정치 개혁에 있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어서 성장환 대구교육대학교 교



심포지움 전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장근영 연구위원

수는 '선거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당정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그리고 '대통령제와 의회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형태의 변화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최 교수는 김 교수의 질문에 대해 '정치 개혁의 성공 요인으로서의 정치 기업가는 여부가 아니라 퍼포먼스의 문제'라고 대답했으며, 성 교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정당정치 변화와 선거개혁은 닭과 달걀의 문제'라고 하면서도 '제도 개선이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형태의 문제에 관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유력한 대선후보가 민주주의 제도를 개선한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한다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마지막 발표를 맡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장근



질의응답 장면

영 연구위원은 '뉴질랜드의 교육개혁 내용', 그리고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이 어떻게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뉴질랜드 교육개혁의 이론적인 틀은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의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에 기반을 둔다'며 이는 '참여와 기여뿐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 정치적인 참여와 의사 표현을 위해 스스로를 동기화하는 능력, 다양성을 포용하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육개혁의 급진성에도 불구하고, 상호이해에 기반을 둔 협의와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자율성 보장의 원칙이 유지되면서 각 학교들에 개혁내용이 원활히 수용되었다'고 말하며 개혁의 절차와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주목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첫 번째 토론자인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교수는 '뉴질랜드의 민주시민교육에는 다중시민교육 및 환경정치가 강조되며, 세계시민교육과 맥

락을 함께한다'고 설명하고, '뉴질랜드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교과인 사회과학 교과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어떤 모습으로 실천되고 있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두 번째 토론자, 주선미 선거연수원 교수는 '교과목이 아니라 주제별 활동으로 교육을 추진하다 보면 교사들의 교수 역량에 따라 교육의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며 '개별 과목을 채택해서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하는 방식과 뉴질랜드의 방식 중 어떤 것이 민주시민교육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를 질문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의 원칙들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중 어떤 단위에 독립성을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에 장 연구위원은 '싱가포르 방식은 인성과 시민교육을 애국심과 관련지어 국가관을 가르치지만, 유럽에서는 대개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을 다른 개념으로 본다'며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이 서로 대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플레처 교수는 이 질문에 보충답변을 하면서 '싱가포르의 인성시민교육모델을 뉴질랜드에 적용하면 너무 권위주의적이라는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각 국가에 적합한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문객

정현중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02

정치살롱소개/
초대손님



이종희 정치살롱을 열면서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0771245815>

이 시대 우리의 정치는 희망을 주고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불신과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른 정치, 정의로운 정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치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개방·공유·소통의 공간을 만들고자 “이종희 정치살롱”을 열게 되었습니다. “개인”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공론장을 꾸미고 싶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어느새 20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자취를 하던 서울의 자그마한 방 전세금 300여 만원과 아르바이트로 차곡차곡 모았던 쌈짓돈, 그리고 가족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챙겨준 돈이 전재산이었던 저는 독일로 유학의 길을 떠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의 어른이 멀리 독일까지 홀로 유학을 떠나는데 불안하지 않느냐고 조금은 걱정스레 물으셨습니다. 저는 환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뇨, 오히려 희망에 부풀어 있어요!”... 공부가 끝나

고 돌아오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그때 그 자신감과 열정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지금 생각하면 절로 피식웃음이 납니다.

그렇게 독학의 길에 올랐고,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학생이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환경보호 등 높은 민주시민의식과 성숙한 정치문화였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던 독일생활에 적응하기도 전에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공장에서, 때로는 실험실에서, 또 어느 낯은 회사에서... 물론 학업에도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독일의 대학에서는 대부분의 강의가 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학기가 끝나고 방학 중에 과제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학점이 납니다. 하지만 방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저에게 몇 개의 리포트를 그것도 외국어로 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힘이 들었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겠지요. 더구나 독일에서 전공을 바꿔 처음부터 대학공부를 다시 시작했으니...

대학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은 저에겐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책도 읽어가면서 생활비를 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도서관 아르바이트를 신청했지만 대기 학생들이 많아 당장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고 드디어 대학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연구소와 국제단체에서 일하기도 하고 한글학교교사로, 회사 통역관으로 일하기도 하였지만, 조교를 하면서 조금 안정되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독일대학은 등록금이 없었고 유학생들

에게도 차별없는 다양한 복지혜택이 주어진 것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는 든든한 밑받침이었습니다. 독일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시절, 한국의 교육제도와 정치제도 등을 소개할 때 반짝이던 독일 학생들의 눈망울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르바이트로 인해 유학기간이 길어지기는 했지만, 독일에서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쌓은 경험들은 어느 순간 저에게는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방송토론팀장의 업무를 수행할 때, 독일에서의 힘들었던 순간들이 소중한 값진 경험이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얻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다양한 현장 경험들이 귀국 후 여러 직업군을 상대해야 하는 방송토론팀장으로서의 활동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8년 동안 몸담았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떠나, 2016년 5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랜 독일생활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애정과 열정, 많은 강의 요청 등이 자리를 옮긴 계기였습니다. 이제 “이종희 정치살롱”을 통해 선거연수원 교수로서 그동안 구상했던 다양한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이종희 정치살롱”은 생활주변의 선거와 정치 이야기를 엮어 내고, 외국의 민주시민교육 사례 등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함께 나누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하면서 미래를 향한 희망의 공론장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이종희 정치살롱”을 통해 평범한 사람의 눈으로 이 시대의 고통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대안을 모색해 나가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상임위원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0800318007>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이종희 정치살롱 초대손님”으로 모셨다. 문상부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담당관, 선거과장, 조사국장, 선거국장, 기획조정실장, 사무차장, 사무총장 등 30여년의 공직생활을 선거제도의 발전에 몸바친 선거관리전문가이다. 2014년 문상부 사무총장의 퇴임식은 이별의 아쉬움과 많은 감동을 남겼다. 퇴임식의 강렬한 여운은 그의 삶과 인생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공직을 떠나 일반 시민으로 머물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다시 돌아온 ‘작은 거인’의 철학은 어떤 것일까?

책임과 소신으로 일관한 행동 후회하지 않아
공정한 인사가 조직의 힘

이종희: 상임위원님께서서는 일선 직원에서 출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및 사무총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셨는데요, 30여년 공직자로 걸어오셨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에서 특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요?

문상부: 약골로 태어나 어린 시절의 거의 절반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어요. 어릴 때부터 독한 약을 오래 복용하고 주사도 많이 맞으니 장기가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 영양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늘 감기에 걸리고 아프고 해서 학교에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지요. 고등학교 때에는 1년간 휴학을 하고, 병원에서 위장을 절반 이상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뒤에 3학년으로 복학을 했지만 몸이 안 좋아서 학교를 거의 못 간데다 공부도 할 수 없었는데, 살기는 살아야겠다 싶어서 혼자 요가를 시작했어요.

그 당시는 사람들이 요가를 잘 모를 때였어요. 잡지책을 보고 독학으로 요가를 배웠는데, 그 책에 단식 과정이 나와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주신 2학기 등록금을 들고, 혼자 대구 앞산 밑에 있는 절을 찾아갔어요. 부모님께는 말씀도 드리지 않았지요. 2주간 단식을 했는데 단식 전후로 거의 한 달간 아무 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죠. 힘겨운 과정을 거치면서 극단적 선택에 대한 유혹도 받았는데, 장남으로서 부모님께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참고 견뎠어요.

공직에 몸을 담은 후에는 소신껏 생활했는데,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장을 할 때였어요. 간부 실무연수회가 경주에서 있었는데, 인사에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사람이 승진이 된 거예요. 우리 조직의 미래가 달린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인사가 있을 수 있냐고 내가 비판을 했어요.

사실상 인사권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잖아요. 나중에 사무총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인사권자의 마음이지 어떻게 시·도의 짧은 간부가 중앙에 대놓고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하극상이다.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했고, 이게 전국적으로 알려진 거예요.

내게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우여곡절 끝에 나는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로 인사이동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 그 일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우리 조직의 가장 큰 장점은 인사가 공정하고 부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불합리한 인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합리적인 인사, 공정한 인사가 우리 조직의 큰 힘이죠.

정직함과 강직함이 나의 무기

정치인이나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야

이종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퇴임하셔서 일반 시민으로 계시다가 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취임하셨는데, 그에 관한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문상부: 퇴임한 사람이 다시 상임위원으로 복귀한 사례는 내가 처음이래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나쁜 사람이지요. 후배들이 들어올 자리를 가로챈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부담감은 있어요.

일하면서 내가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비록 내 상관이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요. 정직이 곧 나의 정책이에요. 정직하면 주변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죠. 처음 공직 생활을 할 때부터 난 그렇게 해 왔고,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신뢰하고 믿어주고 그런 것을 내가 느꼈어요. 물론 윗분들 중에는 나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그런 이유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요.

한편, 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가 되면서부터 늘 우리 조직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해 왔어요. 상임위원이 된 지금은 크게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우선은 선거개혁에 관한 겁니다. 정치권을 설득해서 제도를 고쳐야 하는데 내 임기동안 해야 할 일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의 의식이 높아져야 하고, 선거문화가 발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민주주의 교육을 해 나가야 해요.

**안심번호 활용한 여론조사와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기관이 필요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권한, 국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겨야**

이종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원활하게 관리하셨는데요. 부정확한 여론조사, 선거구획정지연 등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요?

문상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반국민들은 대부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데 여론조사는 집에 있는 유선전화로 하니까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된 원인은 제도에 문제가 있는데, 제도상 정당 활동을 위한 여론수렴이나 정당의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만 안심번호에 의한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나머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안심번호에 의한 휴대전화를 활용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집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하니 결과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안심번호에 의한, 그러니까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반드시 안심번호를 활용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법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거죠.

여론조사의 두 번째 문제는 여론조사기관의 신뢰성에 있어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여론조사기관을 설립해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기관이 난립되고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만연해졌어요. 이에 여론조사기관이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등록제라고 해서 아주 엄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수준의 장비나 요건을 지닌 그런 업체가 등록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해서는 국회가 구성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 같아요. 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조직 구성 권한을 국회가 가지고 있는 한 여전히 국회의 조직이지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정치인 중심이 아닌 유권자 중심의 선거구획정이 되려면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권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완전히 넘겨야 돼요. 그래야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유권자중심으로 선거구획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규제위주의 선거법 유권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이종화: 상임위원님께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남다른 것으로 들었습니다. 규제사항이 많은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 관계법 개정의 방향과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지요?

문상부: 현행 선거법은 1993년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하여 1994년도에 제정한 것이죠. 그 당시에는 선거운동의 자유보다는 선

거의 공정성 확보와 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부정을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규제 위주로 선거법을 제정했어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흘렀죠. 그동안 규제위주의 이러한 제도를 통해 이제는 선거질서가 완전히 확립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보다도 선거운동의 질서도 잡혀있고 선거결과에 대해서도 다 승복을 하고, 또 선거의 공정성도 거의 확보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너무나 지나친 규제 때문에 오히려 우리 정치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죠. 규제위주의 제도로 인해 후보자는 자신의 인물됨과 정책 등을 유권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유권자도 후보자와 소통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유권자들은 누가 제대로 능력이 있는지, 도덕성이 있는지,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지를 못해요. 유권자는 후보자의 모든 면, 즉 후보자의 자질, 능력, 정책 등 모든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제대로 비교하고 평가해서 누가 우리나라를 가장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 줄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투표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해요. 두 번째는 선거비용에 관한 것인데요. 선거비용을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어야 해요. 정당을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검은 돈을 받지 않아도 정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돼요. 그렇게 하더라도 또 부정이 생기거든요. 이것을 방지하려면 투명하게 해야만 해요. 서구의 민주주의 잘하는 나라들처럼 우리 국민들이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공개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공개하게 되면, 부정의 소지가 있을 수 없는 거죠. 다음은 정당 제도에 관한 것인데요, 당원의 손에 의해서 공천이 되고 당원의 손에 의해서 정당 대표를 뽑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된다면 왜 당원이 안 모이겠어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정당 공천의 입법화는 전세계적인 추세이죠. 정당이 공천할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능력, 자질, 정책을 당원이 제대로 검증하고, 당원의 손에 의해서 정당의 후보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년이 되면 대선정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엔 바로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정치관계법 개정은 일부 현안을 제외하고는 근본적인 개혁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금년 내에 정치관계법 개정논의가 이루어져야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구로을 선거구’ 부재자 우편투표함 개함·개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 임무는 한 치의 오차 없이 공정했고, 일말의 부정도 없었다는 것을 증명

이종화: 지난달 ‘구로을 선거구’ 부재자 우편투표함이 29년 만에 개봉되었는데요, 이번 투표함 개함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문상부: 해당 투표함을 개함하려는 의지는 과거부터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차기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농성과 경찰 진압 과정에서 직접 관련된 증거자료가 소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도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개함했을 때 또 다른 의심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았지요. 하지만 이제는 오랜 세월이 흘렀고 올해는 특별한 선거도 없으며 마침 정치학회의 제의도 있고 해서 이제 개함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우리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9명인데 그 중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이 한 명씩 있게 되어 있었어요. 당시 야당추천 위원은 세 명 있었는데, 우편투표를 접수하는 업무는 본인들이 직접 집행했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막을 가장 잘 알고 있었죠. 정당에서 사실상 파견 나와 있는 사람인데, 선거기간에 그 사람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부정 없이 공정하게 하는지를 감시하고, 부재자 우편투표를 직접 접수하는 이 두 가지 임무를 수행했죠. 당시에 이 부재자투표함을 관리하고 매일매일 우편투표를 부재자투표함에 투입한 사람은 야당추천 위원이었던 거죠. 그러니 정황상 당시 야당에서도 문제의 투표함이 부정한 것인지 여부를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의심스러웠다면 투표함을 열어보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안 열었어요. 기회가 수차례 있었는데도...

아직도 개표부정을 행한다고 의심하는 국민들도 있고, 개표결과를 불신하는 국민들도 있어요. 그래서 권위주의 시대가 끝나고 민주화가 시작된 그 당시 선거 때도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집행한 임무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부정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죠. 이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을 국민들이 신뢰할 때가 됐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경제력에 미치지 못하는 민주주의 지수의 개선이 시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민주시민교육의 중추적 역할 맡아야

이종화: 우리나라 정치·선거문화의 발전을 위해 상임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계신 부분은 무엇인지요?

문상부: 북유럽 국가들이 민주주의 지수가 가장 높잖아요.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전 세계 20위 수준인데, 경제력은 10위권이예요. 경제력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니, 앞으로는 최소한 경제력에 걸맞는 수준이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 정치의식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인 시민교육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 분야별로 또는 여러 계층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교육부와 시민단체, 언론과 학계, 대학 등과 연대를 해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을 해 나가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중심이 되고, 선거연수원을 더 확장해서 민주주의 교육의 본산지가 되도록 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합니다. 국민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주의 수준을 향상시켜 민주주의 지수가 최소한 경제력에 걸

맞는 수준이 되는 날이 빨리 오도록 해야죠.

이상적인 리더는 위기의식 갖고 한발 앞서 제도를 마련하고 조직을 변화시켜야

이종화: 조직을 위해 이상적인 리더십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며, 어떤 리더십을 실천하고 계신지요?

문상부: 조직의 리더는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야 해요. 미래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의주시해서 그 상황에 맞도록 한발 앞서 제도를 마련하여 조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려면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해요. 조직구성원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변화를 실행할 수 있는 거죠. 비전은 내가 제시하지만 절차와 방법, 이것들에 대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이 제안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도 내 자신이 항상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되고, 마라톤 하듯이 끊임없이 일관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라톤은 에너지와 추진력, 끈기의 원천이며 소통의 창구

이종화: 마라톤 풀코스를 수십 회 완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라톤은 상임위원님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문상부: 2000년 경에 마라톤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 시기에 우리 자체 동호회를 내가 결성했어요. 마라톤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분들 대상으로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내가 했죠. 마라톤을 통해서 건강도 챙기고 인내도 배우죠. 나의 에너지는 마라톤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든 에너



지의 원천이 마라톤이고, 마라톤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업무에도 추진력도 생기고 끈기도 생기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성사를 시켜요. 게다가 내가 동네 마라톤클럽 회장이어서, 그 곳에 가서 주민과 함께 하니 그분들로부터 국민들이 우리 조직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요. 이처럼 마라톤은 이웃과 친교를 나누며 건강을 다지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대국민 소통을 위한 창구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해 주니 마라톤은 참 장점이 많아요.

[인터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김홍신 원장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0771110504>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사회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과정이다. 자치활동을 제외한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다. “대한민국을 감동케 하라!”는 표어 아래 운영되는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의 핵심 가치는 ‘참여와 나눔의 실천’이다. “이종희 정치살롱”의 초대 손님으로 전 국회의원이자 소설가인 김홍신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을 만났다.

이종희: 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작가, 교수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요,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

김홍신: 2016년은 등단한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소설 한 편과 명상록 한 권을 집필하는 것이 올해 목표이지요.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다 보니 사람들의 머리가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명상과 마음공부... 이런 것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록을 탈고해서 원고를 넘겼어



요, 올해 책 두 권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불신의 정치를 벗어나 정치의 정의가 바로서야

이종희: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치의 정의와 정치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신: 신문 1면 기사가 정치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국가나 정부의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이고, 정치를 통해 한 사회의 중요한 틀이 정해져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에 대해 불신을 하고 있어요. 불신의 이유는 정치인의 자질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가 구분이 되어야 해요. 중앙에서는 지방의회에다 맡기고 중앙정치만 해야 되는데 지방예산까지 중앙에서 다 간섭을 하다 보니 마찰도 있고 지방정부하고 소통이 안 돼요. 게다가 부정부패, 불법선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중간에 사퇴하고 도지사 출마를 하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또한,

사익을 위한 정치인들의 흔적들이 계속 드러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사법고시 패스한 변호사가 9급 공무원 시험을 본다는 기사가 나왔더군요... 현재 취업준비생이 54만 명인데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27만 명이네요. 청년층들이 취업이 안 되어 오갈 데가 없는데 정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해요. 취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은 재투자를 안 하니 일자리가 줄어들죠. 그리고 나이 든 분들은 50대 초반만 되면 전부 회사에서 은퇴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50세가 넘는 분이 9급 공무원 시험을 보는 거죠. 왜? 노후가 걱정되니까. 평균수명은 늘어났지만 미래가 불안한데다 노후준비가 제대로 된 구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이지만 국민연금 수령 액수가 평균적으로 굉장히 낮은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높거든요. 그러니까 정년이 보장된다는 장점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볼 수 밖에 없는 거죠. 장기적으로 이런 사회는 창의력이 없게 되고 열정이 없어지게 되죠. 일본사회만 보더라도 젊은이들이 열정을 잃으면서 성장이 둔화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열정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어요. 사실 열정을 다시 불어넣어 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이죠. 그 다음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이 중요하구요. 우리는 지금 정치의 정의가 바로 서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감동케 하는 정치·사회지도자를 제대로 양성해야

이종하: 선거연수원의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초대 원장을 맡으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김홍신: 법률스님과 함께 우리 사회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어요. 남북한이 평화적이고 따뜻한 통일을 이루고 선진화된 사회로 진입해서, 통일한국이 어려운 이웃나라들을 도와주는 역할 등에 대한 고민이죠. 사실 한민족의 문명은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것의 참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보잘 것 없이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판 ‘마쓰시타 정경숙(政經塾)’ 같은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거였죠. 체계적으로 기반을 갖추려면 우수한 강사진, 참석대상 구성, 내부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하죠.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 가지를 찾고 있었어요. 여성리더아카데미, 평화리더아카데미 등... 그때, 현 선거관리위원회 총장님이 선거연수원 원장으로 계실 때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에 대해 설명을 하셨어요. 순간적으로 “오, 이걸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정치·사회지도자를 제대로 양성해야 좋은 나라가 되니까요. 선진국 정치 시스템을 보면 젊어서부터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지방의원들은 지방의회에 들어가서 보좌관 등 경험을 쌓아가요. 경험을 축적해야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시작해서 경험을 충분히 쌓고 난 후에 하원의원, 상원의원 이렇게 진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선거 때가 되면, 불쑥 정계로 들어가요.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또는 장사하다가, 아니면 사업하다가 불쑥 정계로 가면, 정치계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에서는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정신적 멘토가 생기고, 선거법을 비롯해서 정치인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들을 접하게 되지요.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을 감동케 하라!”인데요, 이걸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표어예요. 아주 멋진 표어죠. 표어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감동케 하라”라는 문구를 보면 약간 충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난 그동안 뭘했냐 생각할 수



있죠. 공부하느라, 변호사 생활하느라, 직장생활 하느라, 뭐 하느라... 선거연수원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에서 “대한민국을 감동케 하라!”를 접하고 나면, “내가 뭔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세계정치사나 발달사를 보면, 구성원 전원이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꼭 몇 명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역할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시민운동을 하다가 정치에 들어선 분들은 일은 못해도 나쁜 짓은 안 해요. ‘내가 돌아갔을 때 다른 곳에서 욕먹는 건 괜찮은데, 시민단체들에게 욕먹으면 그건 죽는거나 마찬가지죠. 비리,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면 절대 용서 못해요. 그것이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도덕성, 우월성인거죠. 이걸 안 지키면 시민단체가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해

이종학: 우리나라의 선거와 정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김홍신: 선진국에서는 정치에 시스템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민주적 절차에 대해 배우고 학생회장선거를 할 때에도 여러 가지 규율과 규정, 방법론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대에서 현대로 이동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순탄하지 않았거든요. 다른 나라한테 강탈당한데다 강대국의 힘에 의존해서 독립을 했죠.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전쟁과 동시에 신분제도가 뒤집어졌어요. 그 결과, 고시에 합격하거나 아부를 잘하거나, 어떻게 해서라도 돈만 벌면 되는 구조가 너무 오래 축적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정치 발전을 못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시민교육이 필요해요. 어려서부터 하려면 가정교육, 그 다음에 유치원이나 학교 교육 이렇게 쭉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경쟁만 강조하는 시스템이죠. 얼마 전 아동 교통사고수가 줄었다는 경찰청 발표를 보고 젊은 엄마가 “우리 아이가 교통사고 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전부 학원에 가서 경쟁해야 되는데”라는 말을 했다죠. 경쟁을 안 하면 우리 아이가 도태당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는 적게 낳고... 옛날 같으면 대학입시까지만 경쟁 할 줄 알았는데 취업 때문에, 취업만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40대말 50대초반에 은퇴 강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경쟁만 하다 결국 행복도는 낮아지는거죠. 이런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국가형태는 민주국가인데 삶의 모습은 민주적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합니다.

사회의 유기적인 소통을 위한 기제의 핵심은 정치이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의식이 중요

이종학: 사회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해 가기 위해 사회의 주인으로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의식과 해안은 무엇일까요?

김홍신: 인간은 사실 혼자서는 못 살아요. 아프리카 밀림지대에서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혼자 도착하면 생존불가능해요. 뿔이 없죠, 악어처럼 이빨 없죠, 독사처럼 독이빨도 없죠, 사자, 표범처럼 이빨도 발톱도 없죠, 물속에서는 부레가 없어서 살 수가 없죠, 원숭이처럼 나무 탈 수도 없죠. 하지만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더불어 끌어안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죠. 혼자 살 수 없고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가족문제이고 가족이 이뤄지면 교육문제,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보육정책문제이구요. 한 사회가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정치거든요. 정치가 변혁되지 않으면 그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가요. 그렇게 되고나면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사회가 지금 소통을 하느냐? 소통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통하는 사회,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사회, 이를 형성하기 위해서 정치의식이 중요한 거죠.

이종희: 인생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이루셨는데, 앞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다면?

김홍신: 우리 민족의 원류를 찾아서 대서사시를 꾸며보고 싶어요. 우리민족이 얼마나 장엄하고 위대한 민족이었는데를 한번 밝히고 싶어요. 그걸 추적해서 글을 쓰고 싶은 욕구가 있고, 인생철학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다루어서 써보고 싶어요. 그 다음은 남북통일인데요. 민족의 정체성과 우리 미래를 위한 전제조건은 남북통일이거든요. 통일은 첫째가 평화적이고 따뜻해야 되고, 전쟁이나 어느 한 집단이 우월적 위치를 가지고 통일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남쪽이 우월적 위치를 갖고 통일을 하면 북쪽에 문

제가 생겨요. 가야하고 신라는 평화적으로 통일했었죠. 나머지 백제, 고구려는 평화적 통일이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평화적 통일을 했는데도 문제가 있잖아요. 동서갈등이 쉽게 풀어지는 건 아니죠. 이것을 풀지 못하고 남북이 통일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서갈등부터 풀고 그 다음에 남북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북한도 물론 마찬가지이구요. 총체적으로 국민끼리 연주를 하자면 협연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통일이 오거든요. 통일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고, 금방 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죠.

이종희: 제가 선거연수원 전임교수로서 “이종희 정치살롱”을 열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홍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하려는 아이디어가 좋아요. 제 얘기가 다 유효적절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맞을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그게 총합이 되면 그게 시대의 철학이 되는 거예요. 질문도 다양하게 해서 그걸 쪽 묶어 나가보면 예를 들어 100명만 만나면 정말 괜찮은 책 한 권이 나올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논리냐 하면 100명의 주장을 정리를 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사회사상도 되고 철학적 근거도 되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종희 정치살롱”이 많은 이들과 소통하는 공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사진 제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동일

[인터뷰]따루 살미넨:
‘미녀들의 수다’의 방송인·
「가장 가까운 유럽, 핀란드」 작가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1003996183>

이종희: 한국으로 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따루 살미넨: 1998년도부터 한국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한국말을 배워서 대학교에서도 한국어를 공부했었는데요. 중학생 때부터 한국에 펜팔 친구들이 있어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공부했고, 그 과정을 통해 한국과 한국 문화에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종희: 오랫동안 한국에 살았는데 한국의 어떤 점이 좋았나요?

따루 살미넨: 음식이 마음에 들어요. 회를 비롯한 다양한 해산물, 나물 비빔밥, 막걸리 등등 한국 음식은 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대해 좋은 인상도 가지고 있어요. 친구들이 저한테 인복이 많다고 할 정도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어서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종희: 한국에 살 때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따루 살미넨: 한국은 유교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 서열화가 자연스러운 반면, 핀란드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한국말도 잘 못하고 문화에 익숙하지 않을 땐 힘들었는데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유교문화의 깊은 부분까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핀란드에 비해 장바구니 물가가 비싸고 외식비는 핀란드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보통 외식을 하는 편입니다.

이종희: 핀란드에서 우리가 본받을만한 복지나 제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따루 살미넨: 좋은 복지제도가 많은데 ‘한국이 본받을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하기에 저는 그럴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를 꼽자면 육아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핀란드와 비교할 때 대한민국은 여성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며 육아를 해나가기 쉽지 않은 환경인 것 같



습니다.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출산율 상승을 원한다면 육아로 인해 여성의 경력에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한국이 본받을만한 민주시민의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따루 살미넨: 한국의 교육은 다음 단계로의 진학을 위해 주입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핀란드의 교육은 아이들이 최대한 자기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민주시민의식들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민주시민교육을 받고 삶에 적용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배려와 관용의 문화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핀란드의 민주시민교육 사례 중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따루 살미넨: 핀란드는 학생들이 지역마다 있는 <프로젝트 회사 마을>에서 하루 동안 생활하며 직업체험을 비롯하여 선거, 경제활동 등에 참여하는데, 핀란드 전체 학생의 70% 정도가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니어처 사회에서 사회의 일원이 되어 사회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체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도 학생회라든지 국회 체험 프로그램 등이 있지만 한국의 교육은 어른들이 학생들의 활동을 위에서 평가하듯 바라보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핀란드의 청소년 국회는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1, 2년에 한 번씩 모의국회를 개최하는 것인데 이 행사에 핀란드 장관들이 직접 참석합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민주시민의식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한국도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희: 한국의 선거·정치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따루 살미넨: 한국과 핀란드 선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 인물 위주의 선거가 이루어진다는 점이고, 핀란드는 정책 위주의 선거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인물 위주의 선거가 이루어지는 만큼 그 후보를 선전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핀란드는 정책 이슈 위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선거기간의 분위기가 조용한 편인 것 같아요. 축제 같은 시끌시끌한 한국 선거기간의 분위기가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종희: 한국 선거·정치 문화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따루 살미넨: 한국에는 대선에서 과반수가 아닌 투표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당선되는데 핀란드의 경우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 2명끼리 결선투표를 진행합니다. 한국은 과반수 득표를 위해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 후보들끼리의 단일화를 통해 승부에 높은 비중을 두는 것 같습니다.

이종희: 한국과 핀란드 선거를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 있나요?

따루 살미넨: 한국에는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공탁금을 내는데 핀란드에서는 그런 공탁금을 내지 않습니다. 공탁금을 내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후보에 출마할 수 없고,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후보자들이 선거에 출마하기 어렵게 됩니다. 물론 한국에서 그렇게 제도를 책정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저에게는 매우 생소한 제도였습니다.

이종희: 한국 남성들이 핀란드 남성들과 사회적인 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따루 살미넨: 핀란드는 남성들도 육아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핀란드는 남성의 경우 근무일 기준으로 54일의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성의 경우는 그것보다 길고요. 한국의 아버지들은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도 잘 사용하지 않는데, 핀란드 아버지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 장관들은 장관 업무를 하면서도 2주 정도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 한국과 핀란드 남성들의 가장 큰 차이 같습니다.

이종희: 많은 책을 쓰고 번역을 하셨는데, 저서 「가장 가까운 유럽, 핀란드」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따루 살미넨: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핀란드가 아주 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핀란드는 유럽 대륙에 속한 나라 중에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9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 만날 수 있는 나라이고요. 그래서 책 제목을 ‘가장 가까운 유럽, 핀란드’라고 지었습니다. 이연희 씨와 공동 집필한 책으로 이연희 씨는 여행기 부분을 주로 쓰고, 저는 현지인으로서 도시의 맛집, 중요한 관광 포인트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핀란드는 한국처럼 4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요즘 여행하기 좋은 계절인 만큼, 「가장 가까운 유럽, 핀란드」 책을 들고 핀란드로의 여행을 추천합니다.

이종희: 최근에 지인분과 사업을 시작하신 걸로 아는데,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따루 살미넨: 일종의 구매대행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핀란드 제품들을 한국에 들여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핀란드는 ‘베리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빌베리, 링건베리, 크랜베리 등 여러 가지 유명한 베리 종류가 많습니다. 매일매일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하는 베리 종류, 차



가버섯, 자일리톨 등을 구매자들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들어와 판매하는 것인데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요즘은 민트 초콜릿 그리고 무민 쿠키의 인기가 높습니다.

[설 특집] 광장시장 인터뷰, 현장의 소리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0919304591>

설 명절을 앞두고 종로구 <광장시장>으로 인터뷰를 나갔다.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전하고 싶었다. 퐁퐁 얼어붙은 매서운 날씨였다. 날씨보다도 더 매서운 경기침체를 실감하였다. “이종희 정치살롱 초대손님”으로 광장시장의 세 분을 모셨다.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이 시대의 어머니, 아버지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이다.

1. 광장시장 강봉구씨(55세)

이종희: 몇 년 간 광장시장에서 장사하셨는지요?

“같은 업종에서 장사한 지 올해로 16년 짜죠.”

이종희: 예년과 비교했을 때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매출이 매년 50퍼센트 썩 줄어요.”

이종희: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까?

“지금은 영업 자체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저희 뿐만 아니라 특수한 몇 업체 외에는 전체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우리가 보통 경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없어요. 경기가 실종된 지 아주 오래 되었어요.”

이종화: 경기는 실종되고, 매우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네, 명절과 같은 어떤 특수라던가, 우리가 보통 대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만약, 지금 여기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특수나 대목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아마 손가락질 당할걸요. 몇 십년 전에 없어진 얘기를 물어보냐고 할 거예요.”

이종화: 예년에 비해 나아진 점은 전혀 없고 상황이 많이 악화되었다는 말씀이신지요?

“악화 되었다, 안 되었다. 그런 개념의 차원을 이미 넘어섰어요. 처음 얘기

했다시피 존립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때예요.”

이종화: 가게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업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일상적인 소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소비라고 하는 것은, 특권층이나 특수층 몇 퍼센트의 소비를 두고 소비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전 국민의 보편적인 소비가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요...”

음... 모르겠어요. 제가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시중에 돈이 없다고 해요. 수출하는 업체는 수출 경기가 좋고, 국가 경제는 나아졌다고 매스컴이나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민생에 있어서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쓸 돈이 없어요. 나와서 써야 하는데 쓸 돈이 없으면 어찌 되겠어요.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영업 자체가 정지되는 상태에 놓이는 거죠.

경기 자체를 이야기하는 분들께 역설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경기가 뭐예요?’ 라고 되묻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영업을 이렇게 안 될 때는 경기라는 자체를 체감 못 해요. 체감해야 되는데 체감 경기가 없으니까요. ‘경기를 겪어봤어?’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이종화: 시국이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민생문제 중에선 어떤 것이 가장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할까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물갈이가 싹 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 국가나,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준다. 그런 것은 말장난이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부터,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구한테 무엇을 해 줄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해요.

내가 내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이 지역 구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속해 있는 내 지역 단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이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더 나아가 국가가 또는 정부가, 또는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복지에 대해 매일 이야기 해 봐야, 복지... 그냥 해 주는게 아니잖아요. 밑바탕에 그런 생각들이 어느 정도 깔려 있어야 해요. 그런 생각들이 자리매김되어 있어야만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를 하는 거죠. 모래 바닥에 말뚝을 아무리 박아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모르겠어요. 저희 같은 백성이야, 민초들이야... 단편적으로 얘기하지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구세대, 신세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386 세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 같이 모두 정신수양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종화: 올해 어떤 선거가 있는지 아시는지요?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이루어지겠죠.”

이종화: 우리 사회에 어떤 정치인들이 필요할까요?

“기본이 되어있는 정치인, 그거 이외에는 할 말이 없네요.”

2. 광장시장 오정숙씨(76세)

이종화: 몇 년 동안 광장시장에서 일하셨는지요?

“약 20~30년 되었어요.”

이종화: 예년과 비교해서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다 어렵지요... 집안이 편안해야 나도 편안하듯이, 나라가 힘드니까 우리도 힘들어요.”



이종화: 장사가 잘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매우 힘들고, 그리고 김영란법이 생겨서 선물을 많이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큰 선물도 있었고 작은 선물도 있었는데, 지금은 큰 것도 작은 것도 없어요. 물론 불경기이지만요... IMF 때 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업자가 많으니까 돈 쓰기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렇지만 내야 하는 건 많고... 그래서 힘들어요.”

이종화: 장사하시면서 불편한 점이나 힘든 점은 어떤 것 일까요?

“그냥 시장에 손님 많이 와 주시면 고맙고, 손님이 적으면 장사가 안 되니까 불편한 거죠.”

이종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민생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정부패가 없어야 해요. 그래야 국민이 국가를 신임하죠. 그런데, 부정

부패가 많으면 조금은 정부를 무시하게 되는데요. 높으신 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비워야 살기 편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마음을 비워야지요. 옛말에 ‘황금을 도로 알라’ 그랬어요. 너무 황금을 밝히면 나를 잊어버려요. 황금을 조금 멀리해서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주면 국민도 따라가지요.”

이종화: 올해 어떤 선거가 있는지 아시는지요?

“올해는 높은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을 찍을지... 찍어 줄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종화: 어떤 정치인이 있어야 할까요?

“아까 말한 대로 마음을 비운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면... 그것이 국민의 바람이지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나라를 찾기 위해서 많은 분이 봉사를 했잖아요. 어려움도 겪고, 가정도 버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요. 많은 국민을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면 우리는 찍어주죠.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정치인의 모습이지요...”

3. 광장시장 수복상회, 이정남씨(75세)

이종화: 예년과 비교하면 현재의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영란법 때문에 장사가 정말 안 돼요.”

이종화: 예전 상황보다 많이 안 좋아졌다는 말씀이시죠?

“안 좋아졌지요. 여기서 일한 지 오래 됐는데, 장사가 정말 안 돼요. 처음이에요. 장사 60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어요. IMF 때도 이렇지는 않았어요.”

이종화: 가게를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딱 60년 되었어요. 15살 때부터 장사 시작했으니까요.”



이종화: 계속 광장시장에서만 장사를 하셨는지요?

“그렇지요. 내가 최고 고참이에요. 내가 터줏대감이니까요.”

이종화: 예전에 같이 장사하신 분들 중에 이곳에 계속 남아 있는 분들이 있으신지요?

“남아 있는 분들 없어요.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이종화: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게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지요. 다른 건 없어요. 물건은 준비해 놓았는데 팔려야지 회전이 되고 돈이 되는데, 안 팔리고 물건이 쌓여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장 전체가 그래요. 예전에는 동대문시장, 광장시장을 최고로 여

졌는데, 지금은 지역마다 시장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종화: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민생 문제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민생 문제는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다들 잘 알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이종화: 올해 어떤 선거가 있는지 아시는지요?

“대통령선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이종화: 어떤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필요할까요?

“글쎄 뭐... 많이 바뀌어야겠죠...”

남쪽 꽃

청천(淸泉) 서인덕

종로 골 연수 마을
살롱집 불현듯 들렀더니
매화꽃이 매병에서 웃네

달려왔노 뛰어왔노
따라왔노 앞서왔노
하늘에서 내려왔노

꽃망울이 머금기도 하고
활짝 피기도 하였구나

천리길을 달려온 여인처럼
향기를 품으니
매화 사이로 보이는
님이 매화보다 더 매화로다

사월이 되면
남쪽의 매화 이화 벚꽃 만발 시샘한데
전령사마냥 먼저 인사하니 더 예쁘구나

세상이 어지러우니
을 봄엔 남쪽 향기 맡을 수나 있겠나
잠이나 청하자.



쉽게 풀어쓴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0835244667>

미국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이다. 후보자 TV토론도 큰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우리와는 달리 상당히 복잡하다. 미국은 직접 선거가 아닌 선거인단 선출을 통한 간접선거 형식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대통령 선출방식의 기원은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는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들이 아메리카합중국 연방을 이루던 때였고, 당시의 미국은 국가의 규모에 비해 통신과 교통 발달도 미약하였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 하에 국민의 직접선거로 국가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건국 지도자들 중에는 대중의 정치적 식견 부족 등을 이유로 대통령 선거



존 트럼볼 '독립 선언', 출처:Wikime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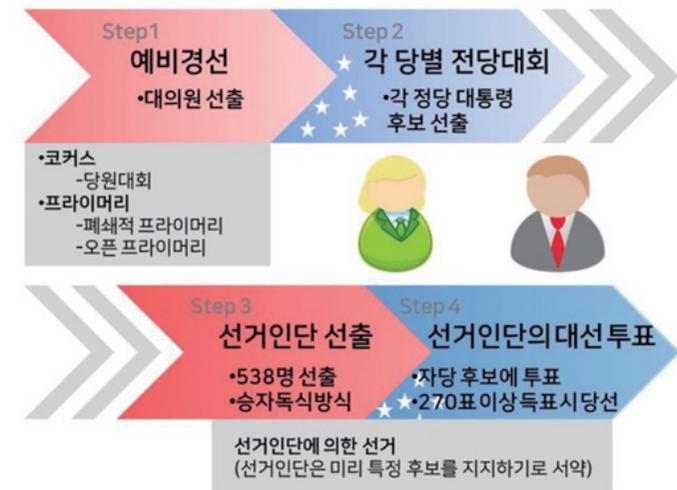
이 글은 입법국정전문지 "The Leader" 2016년 11월호 p.138~p.141에도 게재되었다.

인단에 의한 간접선거가 더 효율적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결국, 미국은 연방 헌법에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 제도를 명시하게 되었다.

미국 선거인단 제도의 변천사

미국연방헌법 제2조는 선거인단 선출을 각 주에 위임하고 있다. 하원의원의 수는 각 주의 인구비례에 따라 정해지며, 상원의원의 수는 각 주마다 동일하게 배정된다. 즉, 선거인단의 수는 각 주의 상·하원 수와 같다.

초기의 대통령 선거는 최다 득표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차점자를 부통령으로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제4회 대통령선거에서 토마스 제퍼슨 후보와 아론 버 후보가 동수의 득표를 얻는 사태가 벌어지며 정·부통령 러닝메이트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1789년 첫 대선에서 대부분의 주는 주



미국 대통령 선거의 절차

민들의 직접선거가 아니라 주 의회를 통해 선거인단을 선출했다. 오늘날처럼 모든 주가 선거인단을 주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게 된 것은 1830년대 이후이다.

예비선거

미국은 각종 선거에 출마할 각 당의 후보를 중앙당 공천 방식으로 뽑지 않고, 예비선거(primary election)를 통해 선출하며, 예비선거를 통해 선출된 각 당의 후보들이 본선거(general election)에서 대결한다. 예비선거에서 프라이머리(primary) 또는 일종의 지구당 당원대회인 코커스(caucus)를 통해 대의원을 뽑는데, 예비선거 방식은 각 주마다 다르다. 코커스는 각 마을에서 대표를 뽑고, 그 대표들이 모여서 또 대표를 뽑는 계단식 대표선출 방식이다. 프라이머리 제도에는 자기당 소속으로 등록한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폐쇄적 프라이머리(closed primary)'와 무소속 또는 반대당 소속으로 등록한 사람에게도 투표를 허용하는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가 있다.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선거인단 선출

미국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치러진다. 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대통령 선거는 간접선거의 특성상 두 가지 선거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선거와 그 후,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바로 그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선거인단 선출로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선거인단은 총 538명으로 이는 미국 상·하원을 합한 수인 535명에 워싱턴 DC대표 3명을 더한 수이다.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수인 270명을 얻으면 대통령에 당선된다. 선거인단을 가장 많이 보유한 주는 캘리포니아이며,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등이 그 뒤를 따른다.

미국 헌법은 선거인단 선출일을, '선거가 있는 해 11월 첫째 월요일이 속한 주의 화요일'로 규정한다. 따라서 제45대 미국 대통령선거 선거인단 선출일은 2016년 11월 8일 화요일이다. 투표 개시 및 투표 종료 시간은 지역별 표준 시간에 따라 다르다. 선거일 이전에도 사전 투표나 부재자 투표와 같은 절차를 통해 투표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출마 자격은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 시민이어야 하고, 14년간 미국 내에 거주해야 하며, 35세 이상이어야 한다.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모두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선거인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스스로 선거인 명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 제도는 명목상으로는 부정선거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번거로운 선거인 등록 절차 때문에 소수민족이나 장애인, 문맹자 등이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현재까지도 몇몇 주의 선거인 확인 방법이 사회적 약자들의 선거권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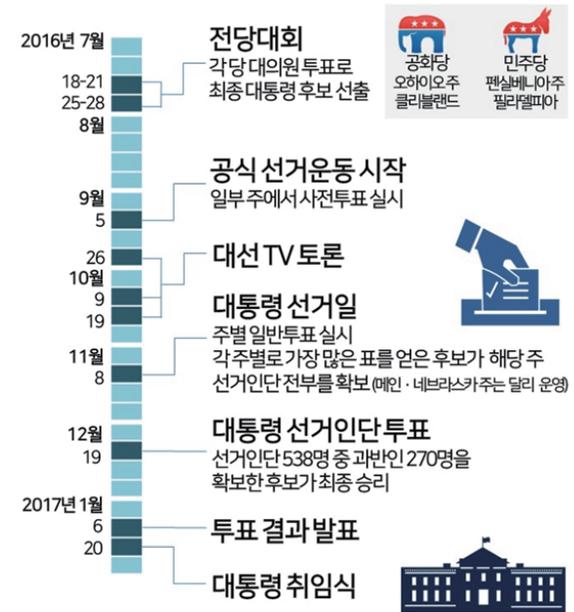
유권자들은 각 당에서 지명한 선거인단 후보를 뽑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투표용지에는 선거인단의 성명이 아니라 정·부통령 후보들의 성명만 나와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선거인단 후보 선출은 실제로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것과 같으며, 이를 사실상의 직선제로 보

는 시각도 있다.

한편,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승자독식방식(Winner-Take-All)을 채택하고 있다. 즉, 각 주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 모두를 가져간다. 단, 메인 주와 네브라스카 주에서는 의회선거구 방식(Congressional District Model)을 사용하여 상원의원 몫의 선거인단은 전체 주를 대상으로 최다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돌아가며, 하원의원 몫의 선거인단은 하원 선거구 각각에서 최다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돌아간다. 승자독식방식의 독특한 제도 때문에 일반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00년 미국 대선에서 엘고어 후보가 48.4%를 득표하여 47.9%의 조지 부시 후보보다 일반 유권자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었지만 주별 선거인단 확보에서 밀려 당선에 실패했다. 즉, 엘 고어는 일반유권자에게서 조지 부시보다 54만표를 더 획득했으나,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엘 고어가 266표를 획득했었고, 조지 부시가 271명을 획득했었다. 1명은 기권하였다.

선거인단을 통한 대통령 선출

대통령은 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된다. 미 헌법은 선거인단의 대통령선거일을, '선거가 있는 해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 월요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45대 미국 대통령선거의 선거인단을 통한 대통령 선거일은 2016년 12월 19일 (월요일)이 된다. 선거인단은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주의 주의사당, 행정관청 또는 국무장관실에서 투표하게 된다.



제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 일정

미 헌법은 선거인단의 선거방법을 비밀투표로 규정하나, 벌금을 부과하는 몇몇 주를 제외하면 자당후보에게 투표를 하지 않는 선거인단을 규제할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 따라서 선거인단이 교차투표를 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이를 '선거인단의 반란'이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수백 년의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이런 사례는 단 12회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드물며, '선거인단의 반란'이 실제 당락에 영향을 준 사례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윤용희 (2008), 『미국의 대통령 선거 : 살림지식총서』, (주)살림출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15),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미국 대통령후보자 TV토론: 역사, 절차, 진행방식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0835244667>



사진출처: Wikimedia_Krassotkin | Gage Skidmore

이 글은 이종희(2014), 「정치와 TV 토론: 한국, 독일, 미국, 프랑스」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고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본 원고는 이현숙(2004), 범기수(2013; 2014), 이상철(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박빙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첫 번째 TV토론이 9월 26일부터 시작되었다. 총3차례 개최되는 이번 TV토론은 ‘달 착륙 이후 최대의 TV 이벤트’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시청자 수가 1억을 훌쩍 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TV토론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 등을 동시에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실제 선거 결과에도 적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박빙의 선거전의 경우 TV토론이 당락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미국의 TV 토론은 수십여 년 간 많은 대통령 후보자들의 당락의 판도를 바꾸며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미국 대통령후보 TV토론의 역사적 발전과정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첫 TV토론은 1956년 당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위한 TV토론으로서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애들라이 스티븐슨 후보와 에스테스 커퍼버 후보 간의 토론이었다. 토론은 총 1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각 후보당 3분간의 모두발언, 질문, 5분간의 마무리 발언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TV토론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부각되자 초청대상선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1959년에 의회를 통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 방송사들이 당선가능성, 주요 정당의 추천 등에 입각하여 후보자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출처: Wikimedia_Krassotkin | Gage Skidmore

미국의 대통령후보 TV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60년 대통령선거이다. 민주당의 존 케네디와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간의 TV토론은 일명 '대토론회'라 불리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60년 대통령선거에는 종전과 달리 총 4회의 TV토론이 개최되었으며, 신문기자들이 패널리스트로 참가하여 TV토론의 역동성을 가미시켰다. 이 TV토론은 대통령선거 캠페인의 판도를 바꾼 토론회로 평가되고 있다. 분장을 하지 않고 무대배경과 유사한 색깔의 회색 양복을 입고 출연한 닉슨의 모습은, 케네디의 젊고 쾌기 있는 모습과 대조를 이루었으며, 선거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60년 이후, 64년, 68년, 72년의 대통령선거에서는 일대일 TV토론은 성사되지 않았다.

1976년 대통령선거에서도 후보 TV토론은 쉽게 성사되지 않았다. 포드 대통령은 처음에는 TV토론에 나갈 의사가 없었으나, 여론조사 결과 등이 박빙의 선거전이 될 것으로 나타나자 당초의 입장을 바꾸어 TV토론에 참석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포드 대통령은 토론회 진행 중 말실수를 하기도 하고, 선언적인 발언을 많이 함으로써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남기는 등 이미지에 손상이 가게 되었고, TV토론은 선거에도 영향을 미쳐 재임에 실패하게 되었다. 1976년 TV토론에서 선거에 있어서 토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이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TV토론은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이 토론회부터는 대통령선거의 TV토론 주관을 '전미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사 연맹'이 아닌 비영리적, 비당파적 단체인 '여성유권자 연맹(League of Women Voters)'이 하게 되었다.

미국 여성유권자연맹은 1984년까지 대통령선거 후보 TV토론을 주관하

였으나, 이 연맹이 주최하는 TV토론을 비판했던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와 민주당 마이클 듀카키스 진영과의 불화로 여성유권자연맹은 TV토론 주관 을 철회한다. 1985년 공화당과 민주당은 40여 명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2년에 걸쳐 토론에 대한 연구 과정을 거친 후, 1987년 비영리 민간기구인 대통령토론위원회(Commission on the Presidential Debate: 이하 CPD)를 발족하게 된다. 그 이후 CPD가 미국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주관하고 있다. CPD의 주요 업무는 대통령선거 등의 토론회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선거시에는 유권자 교육과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며 다른 나라의 토론에 대한 교육과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후보자 TV토론 절차

미국 대통령선거의 TV토론시간은 대체적으로 1시간 30분 정도이며, 기존 1회에 그치던 TV토론은 1960년 대통령선거 TV토론에서는 개최 횟수를 대폭 늘려 4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그 후로 다시 개최 횟수가 줄어들어 1976년 토론은 3회, 1980년부터 1988년까지의 토론에서는 2회에 머물렀다. 1992년 대통령선거 때 다시 개최 횟수가 증가하여 3회 실시되었으며, 1996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대통령선거 TV토론은 3회 개최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대통령후보자 TV토론의 1차 토론은 스탠딩형식, 2차 토론은 유권자들이 직접 참가해서 질문하고, 후보자들이 무대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타운홀 미팅방식, 3차 토론은 두 후보자가 45도 각도로 테이블에 앉아서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자유토론 방식도 확대하였다. 1988년 이전까지 여러 명의 저널리스트들이 토론 패널

로 참여해왔지만 최근에는 1인의 사회자가 사회와 질문을 모두 맡아 왔다.

미국은 TV토론 참석요건이 비교적 엄격한 편이다.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한 자이거나, 지지율이 15% 이상인 후보자를 토론회에 초청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민주당과 공화당의 후보의 양자토론이 펼쳐지게 된다. 지난 2012년 토론에서는 1~3차 토론의 토론주제를 6개 정도의 핵심으로 단순화하고 각 주제별 토론시간을 과거보다 길게 배정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유도하였다. 아래 <표1>은 2012년 개최된 미국대통령후보 TV토론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의제	선정과정
1차	일자리 창출 방안, 감세정책, 경제회생, 건강의료서비스, 정부의 역할, 통치 등 국내 이슈	인터넷을 통한 시민제안 사회자 최종 선정
2차	일자리 유출, 에너지 정책, 외교안보 현안, 건강개혁, 이민정책, 여성 불평등, 감세정책 등의 국내외 이슈	청중으로부터 받은 질문을 사회자가 사전에 선정
3차	외교-안보 현안에 관한 이슈	인터넷을 통한 시민제안 사회자 최종 선정

<표 1> 2012년 미국 대통령후보 TV토론 주제

토론 진행방식은 토론도입부분의 후보자별 기조연설을 생략하여 바로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하도록 하는 묘미를 살리고 있다. 또한 2012년 토론에서는 2008년 토론보다 자유토론시간을 더 확대하여 주요 대주제 6가지에 대해 각각 15분 정도 시간을 배정하여, 이 15분 내에서 후보자의 답변을 2분씩

듣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2016년 토론 역시 2012년과 그 방식이 유사하며, 1차 토론회는 국내이슈를 주제로 9월 26일, 2차 토론회는 타운홀 미팅방식 토론으로 10월 9일, 3차 토론회는 국제이슈를 주제로 10월 19일에 진행된다. 한편, 부통령 후보 토론회는 10월 4일 진행된다.

	개최일시	개최장소	사회자	토론형식
1차	2016.09.26	호프스트라 대학교 (Hofstra University)	레스터 홀트 (Lester Holt, NBC)	90분간 양자토론, 사회자가 미리 공지한 6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 (각 15분), 각 후보자간 답변(2분)
2차	2016.10.09	워싱턴 대학교 세인트 루이스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마사 래다츠 (Martha Raddatz, ABC), 앤더슨 쿠퍼 (Anderson Cooper, CNN)	90분간 타운홀 미팅형 토론, 질문 절반은 시민 참석자들이 직접 제시, 나머지 절반은 인터넷에 반영된 대중의 관심사를 사회자가 선정-제시, 각 후보자간 답변(2분)
3차	2016.10.19	네바다 주립대학교 (University of Nevada)	크리스 월러스 (Chris Wallace, FOX)	90분간 양자토론, 사회자가 미리 공지한 6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 (각 15분), 각 후보자간 답변(2분)

<표 2> 2016년 미국 대통령후보자 TV토론 일정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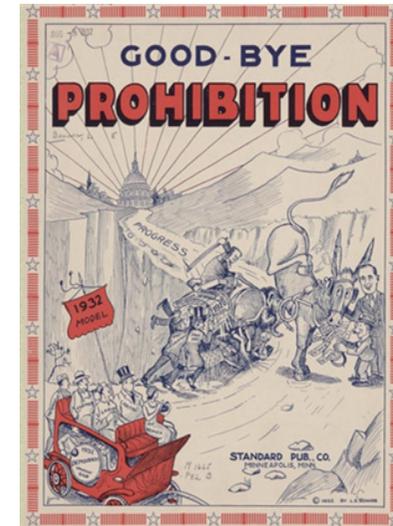
박기태 (1999), 『현대정치와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북스
 범기수 (2013), 『최근 미국, 영국의 선거방송토론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한국 대선방송토론 발전방안』, 한국언론학회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공동주관 특별세미나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심포지엄』 발제문, pp.29-88
 범기수 (2014), 『2012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의뢰 연구 결과물

이상철 (2011), 『2008 미국 텔레비전 선거방송토론분석』, 『외국의 선거방송토론 사례 연구』 (201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연구용역 보고서, pp.1-4
 이종희 (2014), 『정치와 TV 토론: 한국, 독일, 미국, 프랑스』,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치하라』 (2014) 이호은·주상하·윤성욱·이종희 외, 시간의 물레, pp.64-97
 이현숙 (2004), 『미국의 선거방송토론』, 『해외의 선거방송과 TV토론』 (2004), 중앙선거방송토론 위원회, pp.41-90

03

포스터로 보는 미국 선거사: 프랭클린 루스벨트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1065393407>



1932년 프랭클린 루스벨트(민주당) vs 허버트 후버(공화당)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백악관의 또 다른 루스벨트다.”

– 공화당 조지 노리스 George Norris 상원 의원

1929년 10월, 갑작스러운 주가 폭락으로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미국은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었다. 1932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화두 역시 단연 대공황이었다. 경제 낙관론이 대세를 이루던 1928년에 당선된 공화당의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경제 불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그는 국민적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루스벨트 선거 포스터, 출처: campaignrhetoric

16년간 대통령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던 민주당은 이 시기를 백악관을 탈환할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민주당의 선두주자는 1920년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뉴욕주 주지사 프랭클린 루스벨트였으나, 당내 경쟁자였던 앨 스미스 민주당 대표와 존 가너 하원 의장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3차에 걸친 전당대회 투표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자 루스벨트는 가너 의장과 협상에 돌입하여 가너 의장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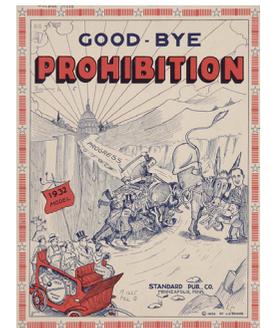
가너는 민주당의 승리를 예견하였는지 별다른 선거운동을 펼치지 않았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중 단 1회의 연설을 하였는데, 그마저도 라디오 연설에 그쳤다. 루스벨트 역시 지병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증상으로 선거운동에 전력을 다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루스벨트는 활발한 선거운동을 전개하여 1만 3000여 마일을 순회하고, 16번의 대규모 연설을 소화했다.



하이드 파크에서 선거운동을 펼치는 루스벨트, 출처: Wikimedia

당시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금주령 폐지를 공통적인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공약의 정당성은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다. 한편, 경제 정책에서는 양 정당의 정책이 극명하게 갈렸다. 루스벨트는 '뉴딜 정책'을 제시하며 경제적 균등 강화를 위해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버는 개인의 자주성 확립만이 미국의 경제를 재건하는 일이라고 맞섰다.

두 후보의 지지층은 극명하게 나뉘었으나 승리는 루스벨트에게 돌아갔다. 루스벨트는 총 48개 주 중 42개 주에서 승리하며 47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반면 후버는 5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



〈잘 가라 금주령〉, 출처: Library of Congress



프랭클린 루스벨트

허버트 후버

선거인단	472	59
전체유권자	22,829,501	15,760,684

하는 데 그쳤다. 유권자 전체 투표에서는 루스벨트가 22,829,501표, 후버는 15,760,684표를 얻었다. 마찬가지로 루스벨트의 승리였다.

<참고문헌>

미국의회도서관 지음·이상훈 옮김 (2013), 『미국 대통령 선거 포스터, 1828-2008』, 커뮤니케이션 북스, pp.100-101

04

독일의 비례대표제도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1041137178>



1. 들어가며

2017년은 전 세계적으로 '선거의 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 총선, 프랑스 대선 및 총선 그리고 우리나라 제19대 대선과 영국 총선에 이어 9월 24일 독일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 독일에서 총선은 연방하원선거, 즉 '분데스탁스발'(Bundestagswahl)이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4년마다 실시된다.

독일의 입법기관은 연방상원(Bundesrat)과 연방하원(Bundestag)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방상원은 16개의 연방 주(州) 대표들로 구성된다. 모든 주는 인구 비례에 따라 3명에서 6명의 대표를 파견할 수 있는데, 대개 주지사

이 글은 입법국정전문지 "The Leader" 2017년 7월호 p.148~p.151에도 게재되었다.

와 각료들로 구성된다. 연방상원의 정수는 69명이며, 주요 임무는 각 연방 주(州)의 이해관계가 달린 법률을 심의하는 일이다. 그러나 연방상원은 법률 제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반면 연방하원은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연방총리를 선출하며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독일의 연방내각은 연방총리와 연방장관들로 구성된다. 연방총리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연방총리는 연방하원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선출되는데, 통상 하원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서 선출된다. 연방총리는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내각을 이끌 뿐만 아니라 장관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지고 있어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독일의 대통령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반으로 연방회의(Bundesversammlung)에서 선출된다. 연방회의는 연방 하원의원 전원과 각 주(州) 의회에서 선출

된 동수의 주(州) 대표자로 구성되며, 연방회의는 대통령을 선출할 목적으로 소집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대통령은 독일연방공화국을 대표하여 외국과의 조약 체결 등 대외적이고 상징적인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법률 검토 및 공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역대 독일 연방 총리	
 콘라드 아데나우어 Konrad Adenauer(CDU) 1949~1963	 루드비히 에어하르트 Ludwig Erhard(CDU) 1963~1966
 쿠르트 게오르크 키징거 Kurt Georg Kiesinger(CDU) 1966~1969	 빌리 브란트 Willy Brandt(CDU) 1969~1974
 헬무트 슈미트 Helmut Schmidt(CDU) 1974~1982	 헬무트 콜 Helmut Kohl(CDU) 1982~1998
 게하르트 슈뢰더 Gerhard Schröder(SPD) 1998~2005	 앙겔라 메르켈 Angela Merkel(CDU) 2005~

역대 독일 연방 대통령		
 테오도르 호이스 Theodor Heuss(FDP) 1949~1959	 하인리히 뢰베 Heinrich Lübke(CDU) 1959~1969	 구스타프 하이네만 Gustav Heinemann(CDU) 1969~1974
 발터 쉘 Walter Scheel(FDP) 1974~1979	 카스텐스 Karl Carstens(CDU) 1979~1984	 리하르트 폰 바이제커 Richard von Weizsäcker(CDU) 1984~1994
 로만 헤어초크 Roman Herzog(CDU) 1994~1999	 요하네스 라우 Johannes Rau(SPD) 1999~2004	 호르스트 쾰러 Horst Köhler(CDU) 2004~2010
 크리스티안 볼프 Christian Wulff(CDU) 2010~2012	 요아힘 가우크 Joachim Gauck(무소속) 2012~2017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Frank-Walter Steinmeier(SPD) 2017~

2. 독일 연방하원 선거의 특징

오는 9월 24일에 치러지는 독일 총선은 혼합형 비례대표제 기초의 연방 선거법 적용 60주년을 맞는 해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독일 연방선거법의 시작은 19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9년과 1953년 총선에서는 한시적인 성격을 띤 선거법이 적용되었고, 1956년에는 상시선거법을 채택하여 1957년 총선부터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기초로 한 선거법이 적용되었다. 독일 연방하원 선거법은 9장 55개 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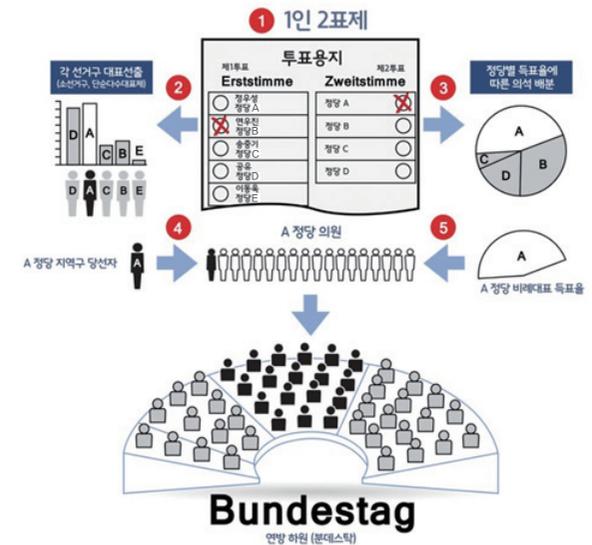
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거 제도, 기구,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 준비, 선거 행위, 결과 확정, 재선거 및 보궐 선거, 당선과 의원직 상실, 선거 비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의 선거법과 우리나라 선거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거 운동과 관련된 규정이다. 독일 선거법은 선거 운동과 관련된 규정이 거의 없는 반면 제18조부터 제29조까지에 지역 선거구 입후보와 정당 후보자 명부 작성 등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부여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총선의 선거권자는 약 6,15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 중 여성은 약 3,170만 명, 남성은 약 2,980만 명이다. 2013년 총 선거권자가 6,190만 명이었던데 비하여 2017년에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의 수가 줄어들었다. 지역별로 선거권자가 많은 주(州)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 (1,310만 명), 바이에른(Bayern) 주 (950만 명), 바덴-뷔템베

르크(Baden-Württemberg) 주 (780만 명) 순으로 나타났고, 선거권자가 적은 주는 브레멘(Bremen) 주 (50만 명), 잘란트(Saaland) 주 (80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1) 혼합식 선거제도, 인물화 된 비례대표제

독일의 연방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와 주(州) 명부에 의한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병행한 제도이다. 독일의 연방하원 정원은 598명인데, 경우에 따라 의원 정수는 늘어날 수 있다. 전체 의석 가운데 299석은 단순다수대표제 방식으로 선출되고, 299석은 주(州) 단위로 작성된 정당 명부에 따라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독일의 선거제도를 ‘혼합형 비례대표제도’, ‘인물화 된 비례대표제’라고 칭한다.



독일 하원의원 선거제도의 이해 (그래픽 원출처 : 위키미디어 / 2차 가공 : 김미소)

2) 당선자 결정 방식

선거권자는 투표용지의 두 곳에 기표한다.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하는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은 제1투표(Erststimme)라고 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을 제2투표(Zweitstimme)라고 한다. 제1투표에 따라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다. 또한 제2투표의 득표율에 따라 수학적 방식을 통해 각 정당의 총 의석수가 정해진다.

3) 초과의석

제2투표 결과에 따라 각 주에 배정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잔여 의석은 정당 명부 순서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에게 할당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에 배정된 의석수를 초과하여 당선자가 발생하더라도 모두 당선자로 결정된다. 경우에 따라서 598석으로 규정되어 있는 연방하원 의석수보다 당선자 수가 많아질 수 있다. 이 때 규정된 정원을 넘어선 의석을 초과의석(Überhangsmandate)이라고 한다.

4) 보정의석

보정의석은 2013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보정의석은 초과의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제2투표의 정당득표율과 정당별 최종의석 배분 비율이 유사하도록 의석을 부여하는 것이다. 보정의석은 높은 비례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의원정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다.

5) 진입장벽 (Sperrklausel)

진입장벽은 연방차원에서 제2투표에서 5% 이상을 획득하거나, 제1투표에서 지역구 후보가 3명 이상 당선되어야 정당별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는 정당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진입장벽이 기본법 제38조에 근거한 평등선거 원칙과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독일 연방하원 (Bundestag) 건물 내부

3. 최근의 변화

최근 몇 년간 독일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독일의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초과의석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독일 선거제도에 있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초과의석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독일은 2009년 의석배분 방식으로 헤어-니마이어 방식 대신 생라그/쉐퍼스 방식을 도입했다. 생라그/쉐퍼스 방식의 도입을 통해 초과의석의 발생가능성이 줄어들고, 득표수의 증가가 의석수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득표의 영향' 또한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근래 독일 선거제도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다. 2008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법의 초과의석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고, 2011년 연방하원은 해당 조문을 개정하였으나, 개정조문도 2012년에 위헌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연방하원은 2013년 연방선거법을 개정

하여 기존의 주(州)별 의석할당 방식을 정당별 투표수 기준이 아니라 유권자 수 기준으로 개정하였고, 각 주(州)간의 의석배분 연계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즉 의석배분의 순서를 정당-주(州) 순서에서 주(州)-정당 순으로 바꾼 것이다. 또한 초과의석으로 인한 득표율과 의석율의 불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해 보정의석 제도를 도입하였다.

4. 2013년 독일 하원의원 선거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 2013년 9월 22일에 독일연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결과에 따르면 기민당(CDU)이 255석, 기민당의 바이에른 지역 파트너 정당인 기사당(CSU)이 56석을 얻어 기사-기민 연합이 총 311석을 차지했다. 사민당은 193석을 얻었으며 좌파당은 64석, 녹색당은 63석을 확보했다. 자민당(FDP)은 제2투표인 정당투표에서 4.76%의 득표율을 보였으나, 5% 진입장벽을 넘지 못하여 창당 이래 처음으로 원내진출에 실패했다.

2013년 연방하원선거의 특징은 주(州) 유권자 수를 중심으로 한 의석 배

정당	지역구		정당명부		전체(보정의석)
	투표 (단위:%)	의석	투표 (단위:%)	의석	
기민련(CDU)	37.2	191	34.1	64	255(13)
사민당(SPD)	29.4	58	25.7	135	193(10)
좌파당(Die Linke)	8.2	4	8.6	60	64(9)
녹색당(Grüne)	7.3	1	8.4	62	63(4)
기사련(CSU)	8.1	45	7.4	11	56(0)
자민당(FDP)	2.4	0	4.8	0	0
독일대안(AfD)	1.9	0	4.7	0	0
기타	5.5	0	6.3	0	0
전체	100	299	100	332	631

〈도표 1〉 2013년 독일 총선 결과: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수

정과 보정의석의 채택이다. 이에 따라 초과의석이 상당수 줄어들 결과 나타났다. 생라그/쉐퍼스 방식에 따른 의석배분에 초과의석을 추가한 결과 정당 명부득표율과 배분의석 비중 사이에 약간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다시 정당 명부 득표율과 유사하도록 보정의석을 부여한 것이다.

	기민련 (CDU)	사민당 (SPD)	좌파 (Die Linke)	녹색당 (Grüne)	기사련 (CSU)	Total
정당득표 (비율:%)	14,921,877 (40.47)	11,252,215 (30.52)	3,755,699 (10.19)	3,694,057 (10.02)	3,243,569 (8.80)	36,867,417 (100)
1차 산출 (비율:%)	242 (40.20)	183 (30.40)	60 (9.97)	61 (10.13)	56 (9.30)	602 (100)
최종의석 (비율:%)	255 (40.41)	193 (30.58)	64 (10.14)	63 (9.98)	56 (8.87)	631 (100)
보정의석	13	10	9	4	0	+29

〈도표 2〉 2013년 총선 결과: 정당별 득표비율, 최종의석 비율 등
출처: 홍재우, 2013, "독일 선거제도의 연대가: 제도적 진화의 정치", 『유라시아 연구』, 제10권 제4호 (통권 제31호), p.108

구분	제 15대 총선 2002. 9. 22			제 16대 총선 2015. 9. 18 (10.2 드레스덴 추가선거)			제 17대 총선 2009. 9. 27			제 18대 총선 2013. 9. 22		
	득표율 (단위:%)	의석수		득표율 (단위:%)	의석수		득표율 (단위:%)	의석수		득표율 (단위:%)	의석수	
		전체	지역		전체	지역		전체	지역		전체	지역
기민, 기사련 (CDU, CSU)	38.5	248	125	35.2	226	150	33.8	239	212	49.28	311	236
사민당 (SPD)	38.5	251	171	34.3	222	145	23.0	146	63	30.59	193	58
자유민주당 (FDP)	7.4	47	0	9.8	61	0	14.6	93	0			
녹색연립 (Grüne)	8.6	55	1	8.1	51	1	10.7	68	1	9.98	63	1
좌파 (Die Linke)	4.0	2	2	8.7	54	3	11.9	76	16	10.14	64	4
기타	3.0			3.9			6.7					
계	100	603			614			622			631	

〈도표 3〉 2013년 독일 총선 결과: 정당별 득표율, 보정의석, 최종 의석수 등

5. 나가며

우리나라와 일본은 병립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1인 2표제를 통해 1표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1표는 정당에 투표함으로써 25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47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의 표를 제외한 다른 후보자들의 표는 사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자에게 전략적으로 투표를 기피하는 등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소수정당이 국회에 진출하기 어렵고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하원의원 선거제도는 혼합형 비례대표제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을 배분하고, 단순다수대표제를 통해 결정된 지역구 당선자로 먼저 의석을 채운 다음 잔여의석을 정당명부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이는 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정확히 배분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아울러 소선거구제가 가지는 사표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1982년부터 1998년까지 16년간 최장기간 독일연방총리로 재임하며 1990년 독일통일에 지대한 공을 세운 헬무트 콜이 지난 6월 16일 8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오는 9월 24일 치러지는 독일 총선에서 독일 국민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 현재 독일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

켈이 헬무트 콜 전 총리에 이어 최장기간 독일의 총리로 재임할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 다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 독일 총선에 세계의 눈이 집중되고 있다.

<참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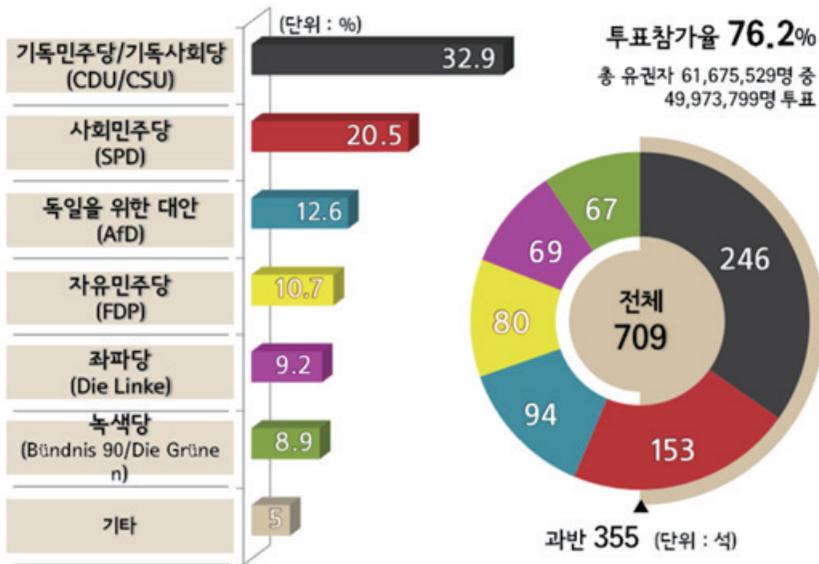
- 김종갑 (2017), "독일의 선거제도 개혁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283호, 국회입법조사처
- 이두하·장지연 (2013), "독일의 연동형 혼합선거제 도입 검토", 『법과 정책』, 제19집 제2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pp.307-328
- 이상명 (2015),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선방안", 『법학논총』, 제32집 제4호, pp.1-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15. 『각 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16. 『2016 해외연구관 보고서』
- 홍재우 (2013), "독일 선거제도의 연대기: 제도적 진화의 정치", 『유라시아 연구』, 제10권 제4호 (통권 제31호). pp.87-113
- <http://www.bundestag.de> (검색일, 2017년 6월 23일)

2017 독일 총선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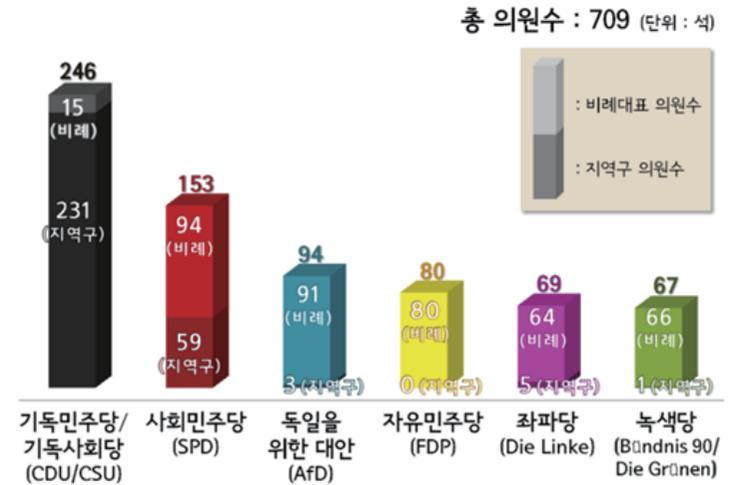
<http://blog.naver.com/jongheosalon/221105748802>

2017년 9월 24일 독일 총선이 실시되었다. 총 유권자 6,167만 5,529명 중 4,997만 3,799명이 투표하여, 76.2%의 투표 참가율을 보였다. 연방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독일 총선은 1인 2표제로서, 제1투표는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단순다수대표제 직접선거방식으로 각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어 299개 지역구에서 총 299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제2투표는 선호정당을 투표하는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실시되어 제2투표의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총 의석수가 정해지는 방식이다. 제2투표 결과에 따라 각 주에 배정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잔여 의석을 정당 명부 순으로 비례대표후보에게 배정하였다. 이번 독일 총선에서는 군소 정당들의 정당득표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초과의석이 많이 발생해 독일 연방하원은 정원 598명을 훨씬 초과한 709명으로 최종의석수가 확정되었다.

독일 총선 정당득표율(제2투표) 및 정당별 최종의석수



19대 독일 연방하원 의원 최종의석수



2017년 독일 연방하원 의원 선거 결과

정당	득표율 (%)	지역구 (석)	비례대표 (석)	총의석수 (석)	2013년 총선 대비
기독교민주당/기독교사회당 (CDU/CSU)	32.9	231	15	246	-65
사회민주당 (SPD)	20.5	59	94	153	-40
독일을 위한 대안 (AfD)	12.6	3	91	94	94
자유민주당 (FDP)	10.7	0	80	80	80
좌파당 (Die Linke)	9.2	5	64	69	5
녹색당 (Bündnis 90/Die Grünen)	8.9	1	66	67	4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의 기독교민주당·기독교사회당(CDU·CSU) 연합이 32.9%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이로써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4연임이 확실시되었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 비해 득표율이 약 8% 가량 하락하여 역대 최악의 정당득표율을 보였다. 2위를 기록한 마틴 슈츠(Martin Schulz)의 사회민주당 또한 20.5%의 득표율로 최악의 선거 결과를 보였다. 한편 극우성향의 반(反)난민·반(反)이슬람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12.6%의 득표율로 제3당의 위치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독일 연방의회에 진출하게 되었다. 자유민주당(FDP)은 10.7%로 연방의회 복귀를 확정지었고, 좌파당(Die Linke)은 9.2%,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은 8.9%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총선 결과, 19대 연방하원 의원은 709명으로 결정되어, 연방하원 정원 598석보다 111석이 초과하게 되었다. 초과 된 111석 중 초과의원석이 46석, 보정의석이 65석이다. 즉, 46석의 초과의원석 발생에 따라 정당득표율이 최종 의석수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정당별 의석을 보정한 것이다.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지역구 당선자가 3명이고, 자유민주당(FDP)의 경우에는 지역구 당선자가 한 명도 없는데도 정당득표율에서 좋은 득표율을 보여 비례대표로 각각 91명, 80명이 당선되었다. 현지 언론은 초과의원석이 111석 발생한 것에 대한 추가 비용이 연간 7500만 유로(약 1000억 원)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독일 총선은 끝났지만 연정 협상에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기민당·기사당(CDU·CSU) 연합은 총선 결과가 발표된 이후, 연정 논의를 시작했다. 메르켈 총리는 25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모든 당은 연정에 참여하여 안정적인 연정 형태를 만들어낼 책임이 있다"면서도, "AfD는 연정에 어떤 영향도 못 준다"고 밝혀 AfD와의 연정가능성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사회민주당(SPD)이 야당의 길을 선언하였기 때문에, 기민당·기사당(CDU·CSU) 연합과의 연정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메르켈 총리로선 자유민주당(FDP),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과의 '자매이카 연정'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독일을 위한 대안'(AfD) 프라우케 페트리 공동대표가 26일(현지시각) 탈당을 선언해, 이 정당은 적지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그래픽: 신인수
 <참고자료> <https://www.bundeswahlleiter.de/>

2017 독일 총선과 독일 청소년 모의선거 결과 비교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1107086151>

독일 '청소년 모의선거'(Juniorwahl, 유니어 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독일 최대 규모의 모의선거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선거에 참여하듯 후보자와 정당에 투표할 기회를 갖는다. 청소년 모의선거는 연방총선, 주의회선거, 유럽의회선거가 있을때 실시되며, 통상 실제 선거일 전 주에 실시된다. 청소년들이 투표한 모의선거의 결과 발표는 실제 선거가 이루어지는 당일 정식 투표가 종료된 직후 이루어진다. 즉, 독일 국민들은 청소년 모의선거 결과를 실제 선거 결과보다 먼저 알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 모의선거에 참여하는 학교는 후보자들의 공약집과 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한달 가량 관련 수업을 갖는다. 이는 청소년들이 후보자와 정당의 공약을 비교·평가하여 투표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투표는 오프라인 투표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고, 모의선거의 선거 관리 또한 학생들이 직접 맡는

이 글은 이종희 (2017), "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 및 활성화 방안 - 토론문" 내용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다. 즉, 독일 청소년들은 모의선거를 통해 투표참여 뿐만 아니라, 전체 선거 과정과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청소년 모의선거는 원하는 학생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를 결정할 수 있고 참가비용은 무료이다.

독일은 1999년부터 청소년 모의선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2002년 연방총선에서는 독일의 모든 주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17년 9월에 실시된 연방총선 청소년 모의선거에는 전국에서 총 3,490개 학교가 참가했으며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청소년 선거 주간'으로 정해 모의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모의선거에는 7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며, 총 95만 8462명의 학생들이 등록하고, 79만 6332명이 투표하여 83.1%의 투표 참가율을 나타내었다.

청소년 모의선거 결과는 실제 연방총선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정당득표율에서 기독교민주당-기독교사회당(CDU·CSU) 연합이 1위, 이어서 사회민주당(SPD)이 2위를 기록한 것은 동일하지만, 3위에서 큰 차이를

2017 독일 총선 - 청소년 모의선거(Juniorwahl) 비교



보였다.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실제 선거에서 12.6%의 지지율로 3위를 기록한 반면, 청소년 모의선거에서는 6%의 득표율을 얻어 주요 정당 중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청소년 모의선거에서는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이 17.9%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는데, 실제 총선에서는 8.9%의 득표율을 얻으며, 청소년 모의선거와 약 8%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참고자료>

이종희 (2017), "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 및 활성화 방안 - 토론편", 『청소년정치참여확대 및 활성화 방안』, 진선미의원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최, 선거연수원 후원 세미나 자료집, pp.55-56

<http://www.juniorwahl.de/> (검색일 2017. 9. 28.)

<https://www.bundeswahlleiter.de/> (검색일 2017. 9. 26.)

쉽게 풀어쓴 <영국의 선거제도>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0847836102>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

영국의 민주주의는 “웨스트민스터 모델(Westminster Model)”로 알려진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y)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양원제와 단순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하원의원만 단순다수제로 선출되며 상원의원은 임명직이다.

영국에서는 통상 한 정당이 단독으로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여 집권하는 단일정당 내각(single party cabinet)을 만들어왔다. 현재 영국은 비례대표 없이 총 650개의 선거구에서 각 1명씩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영국은 소선거구 1위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이 글은 이종희·서인덕·김동하(2016), “우리나라 New 선거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영국의 선거제도와 브렉시트 국민투표 사례 중심”의 일부를 인용하고 보완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는 거대 정당에 유리하며 정당체계를 양당체제로 고착화하고, 신생 정당이나 군소 정당의 원내진출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1930년대 중반 이후 영국의 정당체제는 보수-노동 양당제적 정당체계가 유지되어 왔다. 1950년 이후 모든 하원의원 선거구에 단순다수 1위대표제가 적용되었다. 그 이후 북아일랜드를 제외하고 양당제적 정당체계가 더욱 더 정착되었다.

영국의 다수대표제 선거제도는 정국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소수정당의 득표가 사표가 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는 선거에서 이긴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는 승자독식원칙의 특징으로 인한 것이다.

1945년 이후 보수-노동 거대 양당은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득표율로도 과반 의석을 차지해 원내 다수당이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고, 1974년부터 제3당인 자유당(현 자민당)의 득표율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1970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약 20% 정도의 득표율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자유당은 실제 의석수에 있어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아왔다 (장선화, 2013).

1983년 자유사민연합은 25.4%를 득표하였으나 총의석수의 3.5%를 확보하는데 그쳤으며, 1997년 선거에서는 43.3%의 득표율을 획득한 노동당이 63.4%의 의석을 차지한 반면에, 30.7%의 득표율을 얻은 보수당이 25%의 의석을 차지하고, 16.8%의 득표율을 얻은 제3당인 자민당은 겨우 7%의 의석만을 획득하였다. 2010년 선거에서 자민당은 유효투표수의 23%를 얻었으나, 전체 의석 중 9%의 의석만 확보하였다 (기현석, 2010).

	거대정당		소수정당	
	득표율	의석점유율	득표율	의석점유율
2001	72.4	87.8	27.6	12.2
2005	67.6	85.7	32.4	14.3
2010	65.1	86.8	34.9	13.2
2015	67.2	86.5	32.8	13.5

〈표 1〉 영국 총선결과 거대정당과 소수정당의 득표율 및 의석점유율.
출처: 고상두·장선화·한예슬, 2016, 91. (재구성)

〈표 1〉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총선에서 거대정당(노동당, 보수당)과 소수정당(자민당,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영국독립당, 녹색당 등)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을 비교한 것이다.

거대 정당의 총 득표율은 70% 내외이지만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의석점유율은 약 87% 내외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소수정당의 총 득표율은 약 30%에 이르렀지만 의석점유율은 약 13%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영국에서 선거제도 개혁 요구의 배경이 되고 있다. 영국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로는 소선거구 1위대표제의 지속으로 인한 양당제 지속과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강한 불비례성, 소수정당의 대표성 약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영국 총리 선출

영국의 총리제도는 점진적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초대 총리를 정확히 정의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1721년 취임한 로버트 월폴(Robert

Walpole)이 영국의 첫 총리라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며, 영국 정부 역시 그를 초대 총리로 명시하고 있다. 월폴은 20년간 제1재무대신직을 수행하면서 남해포탈사건으로 혼란에 빠진 영국을 안정시켰다. 또한, 그를 지도자로 하는 휘그당내각이 장기간 집권하면서 정당내각의 관례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총리(Prime Minister)'라는 명칭 자체는 상당 기간 동안 직무를 명시하기 보다는 왕실의 권위를 훼손시킨다는 인상을 주어, 초대 총리인 월폴마저도 1741년 하원에서 '나는 내가 총리임을 명백히 부정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총리에 대한 필요성이 영국 정부 내에서 점차 인식되었고, 1885년에 이르러 의회의 공식 회의록에도 '총리'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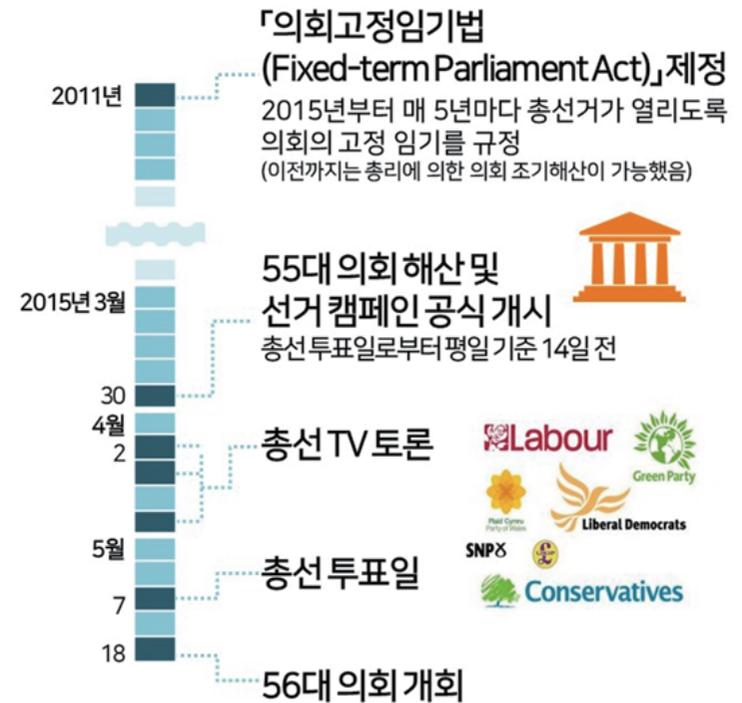
영국의 총리선출 방식은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영국의 하원의원선거(general election)는 법률상 5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있다. 하원의원선거 결과, 총 650석의 과반수인 326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이 집권 내각을 구성하며, 승리한 당의 당수가 총리가 된다. 현직 총리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경



〈그림 1〉 영국 총리 선출 과정

우 현직 총리는 총리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야당이 승리하는 경우에는 현직 총리가 자리를 사임한다.

신임 총리는 자신의 소속 정당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행정부 역시 통상 자당 의원들로 구성한다. 총리를 임명하는 형식적인 권한은 영국 국왕이 가진다. 영국의 관습 헌법은 국왕이 '영국 하원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자'를 총리로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 영국 국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수당의 당수를 지명한다. 그러나 여야 모두 새로운 의회에서



〈그림 2〉 2015년 영국 총선 일정

다수를 이루지 못할 경우(hung parliament), 다수당이 연정이나 암묵적 지지를 통해 정부구성을 주도할 권리가 있다. 영국에서는 집권당의 당수가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선거 없이 총리가 바뀔 수도 있다.

영국 국왕은 총리 예정자를 버킹엄 궁으로 초청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총리 예정자가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히면, 영국 국왕은 그를 총리로 임명한다. 이 때 '궁정 행사 일보(Court Circular)' 에 '총리가 국왕의 손등에 키스했다(The Prime Minister Kissed Hands on Appointment)'라고 기록하는데, 실제로 추후 의회에서 이러한 의식이 행해진다. 현재 영국의 국왕으로 63년째 재임 중인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지금까지 13명의 총리를 임명했다.

이름	재임기간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1951-55
앤서니 이든(Sir Anthony Eden)	1955-57
해럴드 맥밀런(Harold Macmillan)	1957-63
알렉 더글러스-홈(Sir Alec Douglas-Home)	1963-64
해럴드 윌슨(Harold Wilson)	1964-70 & 1974-76
에드워드 히스(Edward Heath)	1970-74
제임스 캘러헌(James Callaghan)	1976-79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	1979-90
존 메이저(John Major)	1990-97
토니 블레어(Tony Blair)	1997-2007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2007-2010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2010-2016
테레사 메이(Theresa May)	2016-

〈표 2〉 1951년 이후 역대 영국 총리

<참고문헌>

고상두·장선화·한예슬 (2016), "영국독립당(UKIP)의 정치적 성장과 한계", 『비교민주주의 연구』 12:1, pp.67-100

기현석 (2010), "영국의 선거제도 개혁논의와 다수제 민주주의", 『세계헌법연구』 16:3, pp.91-108

김용민·홍재우 (2015), "유럽회의주의의 심화와 내부 민족주의의 발호: 2015년 영국 총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영국연구』 33:0, pp.197-231

이영우 (2013), "영국의 의원내각제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62집, pp.421-438

이종희·서인덕·김동하 (2016), "우리나라 New 선거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영국의 선거제도와 브렉시트 국민투표 사례 중심", 2016년 10월 7일 개최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Referendum(국민투표)연구회 주관 심포지엄 발제문

장선화 (2013),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조건과 과제: 뉴질랜드 및 영국 사례와 비교적 관점에서", 『비교민주주의 연구』 9:2, pp.33-7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15),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明載眞 (1999), "議員內閣制(Parliamentary Government)에 관한 研究", 『법학연구』, 10(1), pp.193-210

http://royal.uk/queen_and_government (2016.10.28. 검색)

쉽게 풀어쓴 〈이탈리아 선거제도〉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0893099270>



이탈리아 국회의사당, 사진출처: Wikimedia Commons

이탈리아의 개헌 국민투표 부결은 마테오 렌치 총리의 사퇴를 낳으며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상원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이번 개헌 투표는 이탈리아의 독특한 선거제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탈리아는 '완전 비례대표제'라는 독특한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다.

양원제와 상·하원의 권한 배분

이탈리아의 의회는 상원과 하원, 두 개의 합의회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택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상·하원의원은 모두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며, 소선거구에서 단순다수 득표제가 부분적으로 실시되는 형태이다. 상원은 2016년 현재 총321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선출의원은 315명이며, 종신직 상

원의원이 있다. 선출직 315명 중 309명은 20개 주에 인구수 비례로 상원의원 정수가 할당되어 단위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며, 나머지 6명은 해외지역 대표들이다. 2016년 12월 말 현재 종신직 상원의원은 6명이다. 하원은 6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선거구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소선거구 단순다수득표제로 선출하며, 해외선거구에서 12명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상원과 하원의 임기는 5년으로 동일하다.

하원은 전국적으로 득표율이 가장 높은 정당이나 정당연합에게 55%인 340석을 할당한다. 상원에서도 각 주별로 최다득표 정당이나 정당연합에 최소 55%이상의 의석을 배정한다. 하원에서는 전국 득표율 제1당이나 정당연합이 55%의 의석을 차지하기 때문에 과반수 의석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지역별 제1당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나오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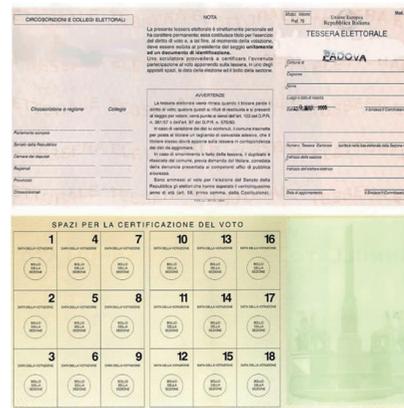
이탈리아의 양원제	
<의석구성>	
상원	하원
321석	630석
*2016년 현재 • 선출직(315석) - 20개 주 비례대표 (309석) - 해외 지역 대표 (6석) • 종신직(6석)	• 선거구 비례대표제 - 해외 선거구 비례대표(12석) • 일부 소선거구 단순다수득표제
공통점 ✓대등한 입법권한 ✓5년의 임기	

이탈리아 양원제의 특징은 상원과 하원이 대등하게 입법 거부권과 정부 불신임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동등한 입법 권한을 부여받는 것은 권력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양원의 승인을 다 받아야 하므로 입법 절차가 길어지고, 내각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탈리아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탈리아 양원제의 특징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마테오 렌치 전 이탈리아 총리는 헌법 개정안을 통해 상원의 규모와 권한을 축소하여 정치적 효율성을 높이려 하였으나, 국민투표 부결로 이탈리아의 양원제는 현재의 형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선거절차와 선거관리

이탈리아에서 선거를 관리하고 관계 부처 간 업무를 조정·감독하는 상설 조직은 '선거서비스중앙부서(Direzione centrale dei Servizi elettorali)'로 내무부 내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시에는 전국중앙선거사무국과 지역별 중앙선거사무국 등이 설치되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선거일은 내각의 결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며, 이번 개헌 국민투표일(12월 4일)은 각각 1월과 4월, 상하원의 승인을 거쳐 9월에 결정되었다. 각 선거인에게는 개인별 지정 투표소 등의 정보가 담긴 카드인 '선거인 등록증(Tessera Elettorale)'이 주어지며, 선거



선거인 등록증, 사진출처: Wikimedia_www.padovanet.it

당일 선거권 행사를 위해 신분증과 함께 해당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선거인 등록증'은 200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18세 연령에 도달하는 선거인에게 주어지는 개인별 카드로서 이전의 '선거인증서'를 대체한 것이다. 개표는 투표가 종료되자마자 각 투표소에서 개시하며, 다음날 22시까지 종료하여야 한다.

상·하원 선거에 입후보를 하기 위해서는 출마하는 선거구의 인구 수에 따라 1,500명에서 5,000명의 선거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때 입후보자는 소속 정당이 제출하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어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의 개인적인 입후보 등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탈리아는 선거 참여에 있어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성별에 따른 균등한 선거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정당이 제출하는 후보 명부에 어느 한 성별의 후보자가 2/3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선거운동 보조금이 감액 지급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탈리아는 1912년 읽고 쓸 수 있는 21세 이상의 남성에게 보통 선거권을 부여하기 시작하였으며, 여성에게는 1946년 보통 선거권을 부여했다. 현재 이탈리아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이탈리아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단, 상원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의 이탈리아 국민에게 부여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 조약에 의해 이탈리아 시민권자가 아닌 EU시민권자가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회의의원선거·양원의회선거·유럽연합의회선거에서 선거권 행사가 가능하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
 만 18세 이상의 이탈리아 국민
 * 상원의원 선거는 만 25세 이상
 * EU시민권자의 경우 이탈리아 내 거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의회의원선거·양원의회선거·유럽연합의회선거 참여 가능

피선거권
 만 25세(하원의원), 만 40세(상원의원) 이상의 자격 있는 선거권자
 * 인구 2만 명 이상의 자치시의 시장, 각 부처의 장관 등은 입후보 제한 신분에 해당

확정된 형사판결을 받은 자, 법률이 정한 도덕적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에 따른 선거권 제한은 없으며, 오

히려 이탈리아 국민정신건강법, 장애인권리법 등에 따라 모든 장애인의 선거 참여가 권장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피선거권은 하원의원선거의 경우 25세, 상원의원선거의 경우 40세의 자격 있는 선거권자에게 부여된다. 인구 2만 명 이상의 자치시의 시장, 각 부처의 장관 등은 입후보 제한 신분에 해당하여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투표 참여와 투표율

이탈리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대의민주주의,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 등의 선거제도를 제정하면서 의무투표제를 도입했었다. 그러나 1993년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투표를 시민의 권리로 표현하면서 의무투표제를 폐지하였다. 투표에 불참할 경우 육아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이익을 받는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지만, 오늘날의 이탈리아는 강력한 제제보다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어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법적으로 투표를 하기 위한 3시간의 업무 휴식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이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다. 하원 총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인이 투표소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국영철도 요금을 70%까지 할인해주는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

다. 해외근로자로서 투표를 위해 귀국하는 선거인에게는 국경 내의 출발역으로부터 투표 지역까지의 왕복 철도 교통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제도와 문화 덕택에 이탈리아의 투표율은 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13년 이탈리아 총선거의 투표율은 75.19%를 기록했다.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직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으나 (2001년 34.0%, 2006년 53.8%), 2016년 개헌 국민투표에서는 68.4%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는 이번 개헌 투표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참고문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15),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 연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6&aid=0002080010> (검색일: 2016.12.1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230910001&code=970100#csidxf12c6049b74bec88fa38cf36f9e919c (검색일: 2016.12.19)

투표 참여와 투표율

- ✓1993년 선거법 개정으로 의무투표제 폐지
- ✓불참 시 사회적 제재는 남아 있음
 - 육아시설 이용시 불이익 부과 등
-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 투표를 하기 위한 3시간의 업무 휴식
 - 해외근로자 교통비 일부 지원

투표율	
2013년 총선거	2016년 국민투표
75.19%	68.4%

쉽게 풀어쓴 〈네덜란드 선거제도〉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0908196732>



네덜란드 의회, 사진출처: Wikimedia_Markus Bernet

입헌군주국인 네덜란드는 내각책임제를 택하고 있다. 의회는 상원과 하원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네덜란드는 1848년 입헌군주국이 되고 정당 형태의 정치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신조주의, 이상주의, 가톨릭, 신교 칼뱅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등

종교적, 이념적 다양성이 네덜란드에서 많은 정당이 출현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네덜란드에서는 1917년에 평민에 대한 참정권이 부여되었으며 여성들은 1919년부터 투표권을 갖게 되었다.

이 글은 이종희(2017), "2017 네덜란드 총선과 선거제도", 선거연수원(비공개 논문)의 일부이다.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네덜란드 선거제도는 1917년 그 바탕이 마련되었다. 많은 정당들이 설립되고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다수당이 등장하지 못하자 네덜란드에서는 정당별로 득표에 따라 의석을 정하는 비례대표제를 선호하게 된 것이다.

I. 네덜란드 선거제도

행정부는 국왕과 내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부는 상원(The First Chamber, Eerste Kamer der Staten Generaal) 및 하원(The Second Chamber, Tweede Kamer der Staten Generaal)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덜란드 하원의회 선거는 4년마다 실시되며 만 18세 이상의 네덜란드 국적 거주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하원은 직접선거로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되며 150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네덜란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어, 전체 유권자로부터 획득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선출 의원수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상원은 지방의회의 간접선거로 75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임기는 4년이다. 즉, 상원은 국민이 뽑은 지방의원(Provincial Council)에 의해서 의원이 뽑히게 된다.

네덜란드의 정치 제도	
내각책임제를 택하는 입헌군주국 내각의 총리는 집권당의 당수가 맡으나 대부분 2개 이상의 정당이 연합하여 집권연정을 이룸	
양원제	
상원 75명	하원 150명
간접선거 (지방의회에서 선출)	비례대표제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 ✓주요 입법권은 하원만이 가짐

1. 입후보 방식

네덜란드에서는 일정 기준만 통과하면 단체 또는 개인으로도 선거에 입후

보가 가능하다. 2010년 개정된 네덜란드 선거법에 따르면 한 정당은 정당명부에 50명까지 후보를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직전 총선에서 15석 이상 의석을 얻는 정당은 80명까지 후보를 명부에 올릴 수 있다. 직전 선거에서 1석도 못 받은 정당이 입후보하려면 11,250유로와 선거구당 30명의 지지서명을 받아야 등록할 수 있다. 이 공탁금은 해당 정당이 전국적으로 0.5% 이상 득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단체나 개인도 입후보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같은 방식으로 입후보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선거 운동

2017년 총선 선거 운동의 경우,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일로 예정된 3월 15일 당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선거 운동을 하게 된다. 공식적인 선거 결과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다. 3월 23일에 현 네덜란드의 하원의 임기가 종료되며, 그 후 선거를 통해 당선된 새로운 하원이 취임한다.

3. 투표

정당명부의 결정 방식에는 고정명부식(closed list)과 개방명부식(open list)이 있는데, 네덜란드의 정당명부 결정 방식은 개방명부식이다. 개방명부식은 유권자가 정당이 아닌 후보에 대해 투표하면(선호투표) 투표결과에 따라 당내 순위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역대 총선에서 선호투표가 실질적 당선순위 변동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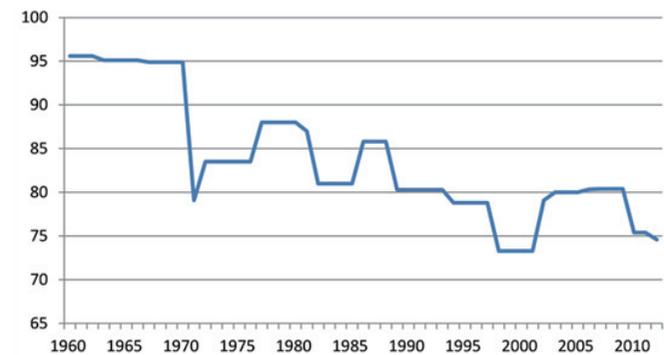
투표 후, 모든 후보의 득표를 합산하여 그 비율에 따라 의석이 배정된다. 따라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정당에 대한 선호도의 의미도 갖는다. 네

덜란드는 선거구명부와 전국명부를 혼용한다. 정당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선거구별로 명부를 따로 작성할 수도 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명부를 작성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정당들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투표용지에 정당 내 모든 후보가 기재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유권자는 선호하는 후보 한 명에게 투표하도록 되어 있다. 투표 후 전체 유권자로부터 획득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선출 의원수가 결정된다.

이러한 네덜란드 선거제도는 득표수에 따라 의석수가 배정되고 비례성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도 용이해 다당제를 촉진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에는 봉쇄조항, 즉, 의석배분에 요구되는 득표율 하한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네덜란드 투표지, 출처: basisinkomenpartij.nl(<http://0727jih.tistory.com/2171>)



네덜란드 총선 투표율 (1960-2012), 출처: CPDS+선관위 (<http://www.politics.kr/?p=248>)

네덜란드는 약 75-80%대의 높은 투표율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총선에서는 총 1,268만9,810명 유권자 중 946만2,223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74.3%의 투표율을 보였다.

네덜란드 선거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위임투표제와 사전투표제이다. 위임투표란 대리투표가 가능한 제도로서 유권자 서명 후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에게 투표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전투표란 유권자가 미리 신청하면 지정되지 않은 투표소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4. 의석 배정

네덜란드 입후보 방식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다른 정당과의 정당명부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선, 네덜란드의 정당 의석 배정은 정당명부에 등록된 후보들의 득표율에 따라 배정된다. 먼저, 전국 득표수를 전체 의석 수(150)로 나눈 할당 수를 구한다. 그 후 각 정당별 득표수를 할당 수로 나누며, 나머지 수는 버리고 자연수에 따라 정당별 의석을 배분한다. 잔여 의석은 득표수에 비례하여 추가 배정하며 이때, 정당명부연합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당명부연합을 결성하면, 개별정당명부로 배정 받을 때보다 의석을 1석 정도 더 배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즉, 의석 1석을 얻기 위해 필요한 득표는 총 투표수에서 150을 나눈 수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 1500만 명이 투표를 했다고 가정하면 150을 나눈 10만 표를 획득해야 1석을 얻게 되는 것이다.

II. 내각 구성과 주요 정당

1. 내각 구성

네덜란드 내각의 평균 재임기간은 2년 4개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의 임시내각을 제외하면, 1945년 이후 네덜란드 내각 평균 재임기간은 3년이 넘는다. 이는 네덜란드가 다당제의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며 협치가 강조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난 2012년 네덜란드 총선에서는 총 150석의 의석 중 중도우파인 자유민주당(VVD)이 41석을 차지하며 제1당이 되었고, 중도좌파인 노동당(PvdA)이 38석을 차지하며 제2당이 되었다. 반(反)이슬람 성향의 자유당(PVV)과 사회주의 노선을 택하고 있는 사회당은 각각 15석을 차지했다. 지난 연립정부에서 제1당을 차지했던 기독교민주당은 13석을 차지하며 제5당으로 밀려났다. 잔여 의석은 6석이 발생하였는데, 국민당과 기민당이 각각 2석과 1석을 추가로 배정받았다. 남은 3석에 정당명부연합이 적용되었는데 노동당과 사회당, 녹색좌파당이 결성한 정당명부연합이 2석을, 기독교연합과 개혁당이 결성한 정당명부연합이 1석을 배정받았다. 이러한 구성에 따라 총 11개 정당이 네덜란드 현 하원을 이루게 되었다. 자유민주당과 노동당이 현재 연정을 구성하고 있으며, 자유민주당 대표인 마르크 뤼터(Mark Rutte)가 현직 네덜란드 총리를 맡고 있다.

2. 주요 정당

1) 자유민주당(VVD: The People's Party for Freedom and Democracy)

자유민주당은 중산층과 전문직 종사자들을 지지층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자유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정책적으로 민간의 자율을 중시하며, 정부의 통제를 지양하는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 축소를 통한 정부 재정적자 감축, NATO 및 미국과의 유대 협력 및 유대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지식, 안보, 치안 분야의 투자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민정책에 있어서는 이민자가 네덜란드 사회에 통합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거주등록증을 취소하거나, 네덜란드 국적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2) 자유당(PVV/Party for Freedom)

자유당은 2004년 9월 당시 자민당 의원이었던 Geert Wilders가 터키의 EU 가입에 대한 자민당의 입장에 반발해 탈당하고 창당한 'Wilders Group'이라는 1인 정당으로 출발하였다. 반(反)이슬람 · 반(反)이민 · 반(反) EU를 표방하고 있으며, 일부 네덜란드 극우파, 보수 서민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 자유당은 네덜란드의 비이슬람화와 네덜란드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에 대해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기독교민주당(CDA: Christian Democratic Appeal)

기독교민주당은 1977년에 로만 가톨릭과 신교주의자들의 연합으로 결성된 정당으로 기독교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온건중도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NATO 지지, 핵군축, EU 강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 추방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4) 민주66당 (D66: Democraten 66)

민주66당은 경제 사회문제에 있어 노동당과 자유민주당 노선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으며, 진보적 좌파 청년 계층이 주요 지지층이다. 총리의 국민 직선제 등 정치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며, 교육예산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5) 사회당(SP: the Socialist Party)

사회당은 1972년 소수 급진좌파 정당으로 창당되어 2002년까지 네덜란드 4대 정당 규모로 성장했다. 사회당은 노동자 및 사회주의 성향 계층을 지지층으로 확보하고 있다. 복지투자 확대를 표방하고 있으며,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6) 노동당(PvdA: Labour Party)

노동당은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의 정당으로 중도 실용주의적인 경향을 띤다. 피고용 계층과 농민 및 진보적 청년계층이 주요 지지층이다.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소득 재분배,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군비축소,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좋은 환경과 기후를 만드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난민들에게 더 좋은 수용시설을 제공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p>자유민주당(The People's Party for Freedom and Democracy)</p> <p>당대표: 현 총리 마르크 뤼터(Mark Rutte) 주요 지지층: 고소득자본가 계층·보수 성향 중산층 정책 방향: 사회보장제도 축소·정부 재정적자 감축, 친서방 성향 (NATO 및 미국과의 유대 중시)</p>
	<p>자유당(Party for Freedom)</p> <p>당대표: 헤르트 빌더스(Geert Wilders) 주요 지지층: 극우파, 보수 서민층 정책 방향: 반(反)이민, 반(反)유럽, 포퓰리즘 성향</p>
	<p>기독교민주당(Christian Democratic Appeal)</p> <p>당대표: 지브란트 반 헤르스마 부마 (Sybrand van Haersma Buma) 주요 지지층: 중도우파 성향 중산층 정책 방향: 온건중도적 정책 노선, NATO 지지, 핵군축 추구, EU 강화 지향</p>
	<p>민주66당(Democrats66)</p> <p>당대표: 알렉산더 페치톨트(Alexander Pechtold) 주요 지지층: 진보적 좌파 청년계층 정책 방향: 교육예산 확대, 노동당과 자민당 노선의 중간에 위치, 총리 직선제 표방</p>
	<p>사회당(The Socialist Party)</p> <p>당대표: 에밀레 로에머(Emile Roemer) 주요 지지층: 노동자 및 사회주의 성향 계층 정책 방향: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입장, 복지투자 확대 표방</p>
	<p>노동당(Labour Party)</p> <p>당대표: 루드윅 아셔(Lodewijk Asscher) 주요 지지층: 피고용계층과 농민 및 진보적 청년계층 정책 방향: 중도 실용주의적인 전통 유지, 소득 재분배,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 확대, 군비축소, 개발도상국 지원 확대</p>

주요 정당

<참고 자료>

- 김면희 (2007), “전자투표 도입 현황과 전망: 네덜란드와 독일”, 『유럽연구』, 제25권 호 (2007년 여름), pp.39-65
- 김영태 (2010), “벨기에-네덜란드-스웨덴 2010년 총선 동향”, 『선거연구』, 제1권1호(2011년 봄호), pp.159-174
- 네덜란드 선거법 (1989), 『Act of 28 September 1989 containing new provisions governing the franchise and elections (Elections Act)1』
- 외교부 유럽국 서유럽과 (2014), 『2014 네덜란드 개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15),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 KOTRA (2013), “네덜란드”, 작성처: 암스테르담 무역관
<http://0727jjh.tistory.com/2171>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2041450765787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8/2017030800228.html
<http://www.politics.kr/?p=248>
<http://www.electograph.com/>

10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히카 우루과이 전 대통령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0895250176>

선거연수원 교수 강대우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신도 아니다.
나는 대통령도 국민들 다수가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사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 호세 무히카

대통령궁을 노숙인들에게 내준 대통령

우리 사회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다. 저출산, 고령화, 실업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대통령궁을 노숙인들을 위한 쉼터로 내 준 대통령이 있었다. 바로, 남미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전 대통령이다. 그는 2010년 대통령으로 당선 되어 2015년 퇴임 후까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2010년 재산 공개 당시 무히카 전 대통령의 재산목록에는 중고 자동차 한 대가 전부였으며, 재임 시절에도 그 소박함은 잃지 않았다. 그는 몬테비데오 외곽에 있는 농가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지냈다. 시리아 내전이 발



사진출처: Wikimedia_PhotoPlasmakid

발하자 무히카 전 대통령은 100여 명의 난민 어린이들을 대통령 별장에서 지내게 하기도 했다.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무히카 페페

무히카 전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이기보다 먼저 ‘훌륭한 시민’이 되고자 했다. 모든 정책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한 태도로 정치에 임했다. 우루과이 국민들이 그를 불렀던 애칭은 ‘무히카 페페’ 즉, ‘무히카 할아버지’였다. 52%의 지지율로 당선된 그는 퇴임 시에는 6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마음을 비우면 행복이 보인다는 말을 실천한 대통령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무히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월급의 대부분을 기부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우루과이의 정치평론가 마우리시오 라부페티는 저서 <호세 무히카 조용한 혁명>에서 지난 5년의 임기 동안 무히카 대통령이 사회에 환원한 금액은 월급의 87%에 달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임기가 끝나 퇴임한 무히카 전 대통령은 현재 부인과 함께 허름한 농가에서 농사를 짓고 다리가 3개밖에 없는 개 ‘마누엘라’를 키우면서 소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삶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다”

- 호세 무히카

그림으로 보는 역사 속의 선거이야기: 고대 그리스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0952762414>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폴리스'는 기원전 8-9세기경 지중해와 에게해를 중심으로 생겨나 전성기에는 그 숫자가 150개에 이르렀다. 각 폴리스에는 아크로폴리스 신전의 밑에 아고라라는 광장이 세워져 시민 간의 자유로운 토론이 벌어졌다. 기원전 7세기까지 폴리스들은 왕정과 귀족정의 형태로 통치되었으나 재산과 권력이 평민들로 확대되고 다양한 개혁 조치가 취해지며 기원전 5~6세기경에는 대부분의 폴리스에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형태가 정착되며 민주주의의 기원이 되었다.

고대 그리스의 '조약돌 선거'

기원전 490년경 와인 보관용 토기에 그려진 이 그림은 고대의 투표 장면을 묘사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그림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은 트로이 전쟁 당시 그리스의 전쟁 영웅이었던 오디세우스와 아이아스를 두고 장군들이 투표하는 모습이다. 그리스의 사령관이었던 아가멤논은 전리품인 아킬레스의 무구를 최고의 전쟁 영웅에게 수여하기로 하고 목



사진 출처: J. Paul Getty Museum



아이아스가 자결하는 모습, 사진출처: Flickr_Egisto San



법을 제정하는 솔론의 모습, 사진출처: Merry's Museum

마를 통해 트로이의 멸망을 이끌었던 오디세우스와 뛰어난 무공을 세운 아이아스 중 누가 무구를 받아야 할지 투표에 부쳤다. 투표는 작은 점으로 표시된 조약돌로 이루어졌다. 투표의 승리자는 뛰어난 말솜씨로 장군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오디세우스였고, 아이아스는 그림의 오른쪽에 이마를 짚으며 슬퍼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한편, 이 토기의 안쪽에는 상심한 아이아스가 수치심으로 자결한 모습이 그려져 이야기를 완성하고 있다.

실제로 고대 그리스에서 조약돌은 투표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 사용되었다. 적어도 기원전 5세기경부터 고대 그리스에는 조약돌과 단지를 이용한 원시적인 형태의 비밀투표가 시행되었다. 조약돌은 당시의 언어로 '프세포스(psepos)'라고 불리었는데, 여기서 선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 '선



투표에 사용되었던 도편의 모습, 사진출처: Wikimedia_Marcus Cyron

거학(psepology)'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다. 이와 비슷한 예로는 중세 프랑스어에서 작은 공을 뜻하던 단어 'Ballote'에서 투표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Ballot'이 유래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의 수많은 폴리스 중 민주주의의 발상지로 불리며 가장 높은 명성을 자랑하고 있다. 위치적 이점을 살려 해상 무역이 발달했던 아테네에서는 일반 시민도 상당한 양의 재산을 쌓을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영향력도 증대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난한 이들과 부유한 이들 간의 갈등이 촉발되기도 하였다.

기원전 6세기 초 아테네의 집정관이었던 솔론은 가난한 시민과 부유한 시민 간의 권력의 균형을 형성하는 차원에서 재산에 따라 전체 시민을 4단계

로 분류했다. 가장 많은 재산을 가졌던 상위 단계의 시민은 공직에 종사할 수 있었으며, 최하위 단계의 가난한 시민에게는 민회와 재판에 출석하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그의 개혁은 출신 배경과 관계없이 일정한 재산 규모만 충족하면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관직에 진출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귀족 위주의 정치를 타파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오늘날 일컫는 평등의 원칙을 완벽하게 실현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기원전 6세기 말의 집정관이었던 클레이스테네스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진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평민들의 권력을 향상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편 추방제이다. 도편 추방제는 도자기 조각(도편)에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인물의 이름을 적어 6,000표 이상의 득표를 한 인물을 국외로 추방하는 제도로 기원전 487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도편 추방제는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로 오늘날 민주주의의 시작이 되었다.

<참고문헌>

정주환 (2016), "그리스 민주 정치와 선거제도 - 아테네 민주주의의 형성과 추천제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40:1, pp.159-182

<http://blogs.getty.edu/iris/voting-with-the-ancient-greeks/>(검색일 2017-03-07)

그림으로 보는 역사 속의 선거 이야기: 로마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1040061017>

로마는 기원전 753년 건국자 로물루스에 의해 현재 이탈리아 지방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시국가로 시작한 로마는 본래 왕의 지배를 받는 군주정의 형태를 띠었다. 그러나 기원전 6세기 무렵, 일인 독재 체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주변국으로부터의 위협이 증대되면서 토착 귀족층(원로)과 평민들이 힘을 합쳐 마지막 왕 타르퀴니우스를 추방하고 공화정을 수립하였다.

로마의 공화정은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던 민회, 최고 통치권자인 집정관과 집정관의 자문기관인 원로원, 이 세 가지 권력 주체에 의해 운영되었다. 민회에서는 정무관의 주재로 일반 시민들이 투표해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다. 법률 제정, 전쟁과 화해 여부, 사형 재판, 정무관 선출 등의 안건이 민회에서 결정되었다. 공화정 체제 속에서 민회는 궁극적인 주권을 가졌다. 마찬가지로 민회에서 선출되는 2인의 집정관은 1년의 임기 동안 행정 및 군사 부문을 통솔했다. 공화정 수립 이후 수 세기 동안 집정관은 귀족 출신으

로 제한되었으며, 이로 인해 귀족과 평민 간의 신분 갈등이 격화되었다.

신분 제한을 없애기 위한 투쟁 끝에 기원전 367년에 이르러 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 법이 제정되었고 해당 법에 따라 집정관 2인 중 1인은 평민으로 선출하게 되었다.

헌법상 집정관의 자문 역할을 담당했던 로마 원로원은 실제로는 단순한 자문 기구를 넘어서는 권위를 행사하는 실질적인 통치 기구로 기능하였다. 원로원 의원은 과거 요직에 있었던 정무관 혹은 재판관 출신으로 구성되었다. 로마 초기, 원로원 의원의 선출은 일반 시민, 왕, 집정관 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후 정무관의 일종인 감찰관(censor, 켄소르)이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아래 그림은 이탈리아 출신의 화가이자 조각가 체사레 마카리(Cesare



Maccari)가 그린 '카틸리나를 탄핵하는 키케로'이다. 카틸리나는 로마 공화정 말기의 정치인으로 기원전 63년 집정관 선거에서 낙선하자 지지자들과 함께 무장봉기를 꾀하였다. 당시 집정관이던 키케로는 카틸리나의 계락을 눈치채고 원로원 회의에서 카틸리나를 고발하는 연설을 하였다. 뛰어난 웅변가였던 키케로는 총 네 번에 걸친 연설로 카틸리나를 탄핵하고 추방하였다. 마카리의 대표작인 이 그림은 원로원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고 있는 키케로와 다른 원로원 의원들에게 의면받고 있는 카틸리나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한편, 이 그림이 유명해지면서 마카리는 오히려 역사적 사실 불충분으로 몇 가지 지적을 받기도 했다. 키케로의 연설이 있었던 원로원 회의는 그림에서 묘사된 것처럼 일반적으로 회의가 개최되던 원로원 의사당에서 개최된 것이 아닌 유피테르 신전에서 개최되었다는 점, 사십 대 중반으로 비슷한 나이 대였던 키케로와 카틸리나를 노인과 청년의 모습으로 잘못 묘사한 점 등이다.

아우구스투스가 기원전 27년 초대 황제로 군림하면서 로마의 공화정은 막을 내렸다. 제정 이후에도 집정관, 원로원, 민회로 구성되었던 체제는 지속되었지만 그 실질적 권한은 황제에 비해 크게 약화되었다. 로마의 황제 역시 원로원과 로마 시민들의 권력을 위임받는 형식으로 권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여러 권력 주체가 서로를 견제하는 체제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로마는 2천 년의 역사를 누리며 화려하게 번성할 수 있었다. 로마를 가리키는 별칭으로 쓰이던 '원로원과 로마 시민(SPQR, Senatus Populusque Romanus)'이라는 단어 역시 이러한 로마의 독특한 정치체제를 보여준다.

<참고 자료>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386323&cid=43020&categoryId=43020>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386323&cid=43020&categoryId=43020>

<https://www.thoughtco.com/qualifications-member-of-the-roman-senate-116649>

<https://www.thoughtco.com/what-does-spqr-stand-for-120786>

13

그림으로 보는 역사 속의 선거 이야기: 스칸디나비아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1024890659>

민주 정치는 오랜 역사를 지닌다.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지도자를 배출하고, 대표자들의 협의체를 통해 법을 바꾸는 등 민주정과 유사한 통치체계를 가졌던 시기가 존재한다. 기원전부터 중세시대 까지 북게르만 문화권에서 지속되던 의회 ‘싱(Thing, þing)’은 수십 세기 전의 문화권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민주적 통치 체계를 갖출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싱’은 기원전 스칸디나비아의 부족사회에서 분쟁을 중재하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 생겨났다. 이후 ‘싱’은 해당하는 지역의 자유민 남성과 여성의 입회하에 법을 제정하고 족장과 왕을 선출하는 등 주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의회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비록 실질적인 의사결정에는 재력과 부족의 수장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나, ‘싱’의 모든 절차는 원칙적으로 ‘법률암송가(law speaker)’가 암송하는 법조문에 따라 진행되었다. 남녀 모두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점, 그리고 1인 1표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싱’에서 나타난 민주주의는 상당히 진보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

아래 그림은 아이슬란드 학자 스노리 스투를루손(Snorri Sturluson)이 13세기에 편찬한 노르웨이 왕조사 '헤임스크링글라(Heimskringla)'의 19세기 판에 수록된 작품으로, 노르웨이의 화가 크리스티안 크로그가 그렸다. 자연주의 화가 크로그는 에드바르트 뭉크의 스승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림에



'모든 스웨덴인의 상'과 토그니의 연설 사진 출처: Wikimedia

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은 1018년 '모든 스웨덴인의 상(Thing of all Swedes, allra Svía þing)'을 주재하던 법률암송가 토그니(Torgny)가 노르웨이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려던 스웨덴 국왕 올로프 쉐트코닝(Olof Skötkonung)을 설득하는 장면이다. 당시 전쟁 중이던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 많은 시민들은 하루빨리 종전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평화를 기원하고 있었다. 노르웨이 국왕은 '모든 스웨덴인의 상'이 열리던 스웨덴 읍살라에 찾아와 스웨덴 국왕의 딸과의 정략결혼을 조건으로 평화협정을 제안하였다. 스웨덴 국왕 올로프는 크게 노하여 평화협정을 거부하였지만, '힘은 왕이 아닌 시민들에게 존재한다'는 법률암송가 토그니의 연설을 듣고 결국 노르웨이와 평화협정을 체결하였다.

영국의 화가 윌리엄 콜링우드는 아이슬란드의 사가(Saga, 중세 아이슬란드 문학에서 쓰인 산문 문학의 한 형식)에 매료되어 사가에 등장하는 장소들을 여행하며 여러 작품을 남겼다. 아래 작품 역시 콜링우드의 아이슬란드 연작 중 하나로, 아이슬란드에서 열렸던 '알싱(Althing, Alþingi)'에서 법률암송가가 법조문을 암송하는 모습이 묘사되어있다. '알싱'은 930년 '싱이 열리는 곳'이라는 의미의 '싱벨리어(bingvellir)'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 의회라는 별칭을 얻었다. '알싱'은 아이슬란드가 노르웨이의 지배를 받게 된 1262년 이전까지는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13세기 이후에도 '알싱'은 노르웨이 왕실과 상호적으로 동의권을 행사하는 자주적인 기관으로 명맥을 이어갔다. '알싱'은 900년 가까이 싱벨리어에서 개최되다가 19세기 말 수도 레이캬비크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 아이슬란드의 의회로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림으로 보는 역사 속의 선거이야기: 미국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0827405460>



아이슬란드의 '일상' 사진출처: Wikimedia

선거연수원 제도연구부장 강순후



조지 칼렙 빙엄(George Caleb Bingham)의 군(郡)선거, 미국 세인트루이스 미술관 소장

최근 미국은 대통령 선거 열기로 뜨겁다.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의 치열한 선거운동 과정에 대해 미국 시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이목이 쏠려 있다. 오늘날 미국은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보통 시민 누구나 선거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 시민이 자유롭게 누리는 보통선거권은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먼저 조지 칼렙 빙엄이 그린 1850년의 주의원 선거의 모습을 표현한 위 그림을 보자. 그림에서 보면 여성이나 흑인, 서민의 모습은 볼 수 없다. 오직 투표소 건물 앞에서 모자를 쓴 부유층 중년 남성들의 모습만 보인다. 투표장 앞에는 술판이 떨어져 있고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즐기고 있는 남성,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자와 남성들이 보인다. 1850년대는 남성중에서도 21세의 백인 남성과 재산 소유자만 투표권이 부여되었던 시기이다. 당시에 선거는 보통 시민과는 관련이 없는 귀족의 행사에 불과했으며 향응 제공이 흔하였다.

조지 칼렙 빙엄(George Caleb Bingham)은 미국 개척 초기의 생활상을 잘 표현해낸 작가이다. 빛과 색에 대한 탁월한 감성으로 수채화 기법을 스스로 개발했다. 빙엄은 민주당원으로 1848년 미주리주에서 주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19세기 미국, 노예 경매장의 모습, 출처: Library of Congress Collection

미국에서 보통선거제도는 그냥 실현된 것이 아니다. 시민들 특히 여성, 흑인들이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소중한 결과이다.

1776년 미국 독립선언 시 미국 선거법은 21세 이상 백인 남성, 재산 소유자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하였다. 그 후 노예제도가 폐지되

면서 1870년 미국 수정헌법에서는 백인, 흑인 구분 없이 남성 전체에게 참정권이 주어졌으나 실질적으로는 보장되지는 않았다. 남부지역 주에서는 여전히 흑인이 투표할 수 없도록 투표세를 부과하거나, 문맹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격시험을 보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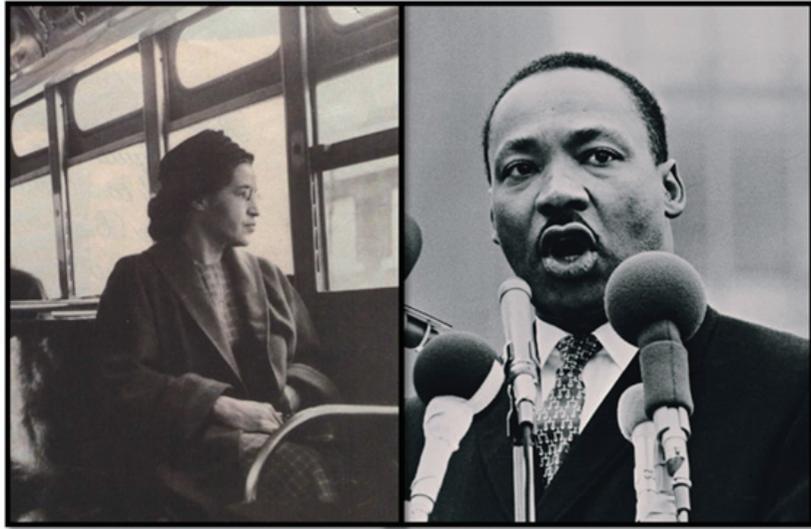


수잔 B. 안소니 기념주화, 출처: Heritage Auctions

여성 투표권은 192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보장되었다. 미국의 1920년 여성 투표권 획득에 기여한 '수잔 브라운넬 앤소니(Susan B. Anthony)'이라는 여성이 있었다. 그는 미국의 여성참정권 획득, 노예제 폐지, 금주 운동가였다. 수잔은 1872년 11월 1일 뉴욕주 로체스터 선거사무실에 세 명의 여자들과 밧줄로 몸을 묶고 유권자 등록을 요구했다.

그녀는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시민이 된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의 시민이고, 이들의 시민권과 자유는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수정헌법 제14조를 근거로 미국 시민으로서 자신 역시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요구했다. 제14조에는 성에 대한 명시가 없었고, 이에 대한 격렬한 논쟁 끝에 투표를 하였다.

그런데, 여성의 투표에 격분한 남성이 불법 선거를 이유로 수잔 앤소니를 고발했다. 그녀에 대한 재판 결과, 판사는 수정헌법 제14조가 “여성의 선거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수잔에게 벌금형 100달러를 선고하였다. 이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항의했고, 수잔 역시 벌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1906년 사망하는 날까지 끊임 없이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 투쟁했다.



로자 파크와 마틴 루터 킹, 출처:Picasaweb | Wikime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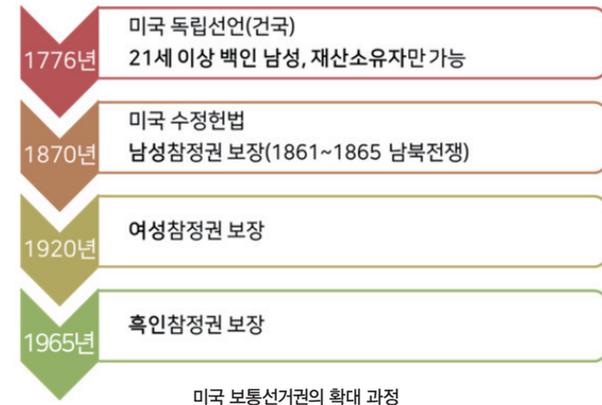
흑인의 투표권은 이보다도 더 늦은 1965년이 되어야 보장되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계 혈통을 가진 후보자로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은 미국 선거사에 의미하는 바가 컸다.

건국 초기 미국은 노예제도에 의해서 경제가 지탱되었다. 남북전쟁에서 링컨의 승리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지만 흑인은 문맹이라는 이유로, 혹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미국 흑인 참정권 투쟁의 역사에서 '로자 파크(Rosa Parks)'의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다.

로자 파크는 알라바마 몽고메리에 살던 여성으로, 1955년 12월 백인만 앉도록 되어있는 버스 좌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흑인들과 인권운동가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들은 '버스 안타기 운동'이라는 평화적인 방

법을 통해 그들의 의지를 표현했다. 그리고 이 운동은 미국 흑인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목사에 의하여 더 확산되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3년 8월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에서 그 유명한 "I Have a dream"이라는 명연설을 하였다. 1965년, 알라바마 흑인 선거권 보장 시위를 경찰이 무력으로 진압한 것에 대해 항의하여 흑인들의 선거권 보장 운동이 전개되었다. 드디어 1965년 8월, 흑인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법인 'Voting Rights Act'가 제정되면서 이러한 투쟁은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우리는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처음으로 도입하면서부터 성별, 재산에 관계없이 21세 이상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선거권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예를 보면서 선거권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을 통한 투쟁의 결과임을 상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선거권의 소중함"을 다시 느낀다.

재미있는 선거이야기 〈한표의 가치〉



출처: Pixabay.com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0790293958>

선거연수원 교수 강대우

민주시민의식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와 깊은 연관관계를 갖는다.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바탕으로 논쟁적인 일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정치 참여의 한 방법이다. 특히 가장 보편적이며 가장 중요한 참여는 바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다. 선거는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아주 기본적인 수단이고, 국가의 구성원 개개인이 모두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주권 실현의 행동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민들의 선거를 통한 정치 참여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다.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은 58%이며, 19대 총선의 투표율인 54.2% 보다는 조금 상승한 수치이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의 평균 투표율은 71.4%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정치적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이러한 무관심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의식조사에 따르면 투표참여의향이 없는 이유 1위가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라고 한다. 총 유권

자 4000만 명 중에서, 내가 던진 이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바로 그 한 표에 예상치 못했던 큰 잠재력이 있을 수도 있다. '한 표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는 사례들을 소개한다.

사례1. 법원 소송까지 가게 만든 한 표

2015년 3월 11일 실시한 ○○지역 수산업협동조합선거에 후보자 2명이 출마하였다. 투표가 끝나고 개표 결과, 두 후보의 득표수가 동표가 되어 연장자인 A후보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낙선한 B후보는 무효표 중 1매가 본인의 표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 무효표는 B후보 기표란에는 선명하게 기표되어 있었고, A후보 기표란에는 눈썹모양으로 일부만 기표되어 있었다. 해당 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표는 2군데 기표된 것이므로, 무효처리는 정당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B후보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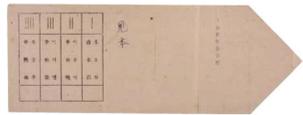
사례2. 자신의 한표 때문에 낙선한 미국 주지사 에버렛

1839년 미국 메사추세츠 주지사 선거에서 현직 주지사였던 에드워드 에버렛은 한 표 차이로 연임에 실패하는 기막힌 선거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그것도 본인의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한 탓이었다. 투표 당일 지지자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다가 자신도 투표해야 한다는 생각에 투표소로 달려갔지만 5분이나 지각을 해 투표를 못했다.

위에 소개한 사례들 외에도 1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2008년 강원 고성군수 선거, 미국 제3대와 제6대 대통령 선거 등 1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사례는 생각보다 많다. 소중한 나의 한 표가 선거에서의 당선이나 낙선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귀중한 참정권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투표용지”로 보는 대한민국 선거사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1059371285>



제3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Ballot Paper for the 3rd Presidential Election
1956 | 28.0×10.4



제4-5대 정·부통령선거 투표용지
Ballot Paper of the 4th and 5th Vice Presidential Elections
1960 | 24×10.5, 28.7×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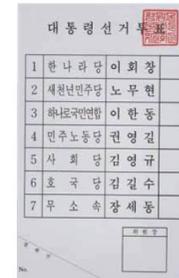


제13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Ballot Paper of the 13th Presidential Election
1987 | 35.4×15.0



제14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Ballot Paper of the 14th Presidential Election
1992 | 38.0×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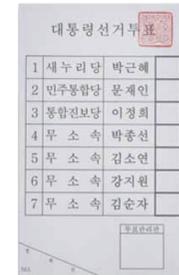
이 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동 주최한 특별전 『선거, 민주주의를 키우다』(2016.3.14.- 6.26.)의 전시 자료와 내용을 수록한 도록 『선거, 민주주의를 키우다』(20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인용한 것이다.



제16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Ballot Paper of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2002 | 15.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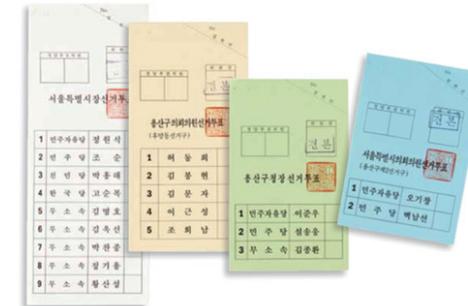
제17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Ballot Paper of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2007 | 10.0×22.2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Ballot Paper of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2012 | 10.0×15.5



투표용지 5th
제5차 국민투표 투표용지
Ballot Paper of the 5th Referendum
1980 | 31.0×11.1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Ballot Paper of the 1st Nationwide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1995 | 10.0×25.0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로 선거별로 용지 색깔이 구분되어 있으며 1인 다표를 행사했다.

“투표함”으로 보는 대한민국 선거사

<http://blog.naver.com/jongheosalon/220835244667>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계룡시의회의원선거 투표용지

The 2nd Nationwide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Ballot Paper
Gyeong-si
1998 | 10.0×57.3

계룡시의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로
최다 후보가 출마한 지역이다.
지금까지 가장 긴 투표 용지로
기록되어 있다.

1	백순기
2	이희승
3	김길호
4	윤진하
5	이덕재
6	김홍규
7	이우재
8	박노수
9	이정기
10	박찬근
11	박병규
12	이지용
13	류보선
14	정연근
15	윤석태
16	강도재
17	방규호
18	라상현
19	최호훈
20	전영구
21	이용기
22	이근복
23	최태철
24	조광국
25	김상득
26	이태상
27	김용석
28	김정순
29	송현경
30	이재운
31	천우중
32	안주현

투표함

1998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 투표용지 발급 모습 | 뉴스스



이 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동 주최한 특별전 『선거, 민주주의를 키우다』(2016.3.14. - 6.26.)의 전시 자료와 내용을 수록한 도록 『선거, 민주주의를 키우다』(20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한민국역사박물관, p.160~161을 인용한 것이다.

투표함의 변천

1948-1962

목재 투표함

우리나라 초기 선거에 사용한 목재 투표함이다.



1971-1997

철재 투표함



1991-현재

알루미늄 투표함



1995

골판지 투표함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용한 골판지 투표함이다. 조립식이며 네 가지 색으로 되어있다.



2006-현재

종이 투표함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용한 종이 투표함이다.



2012-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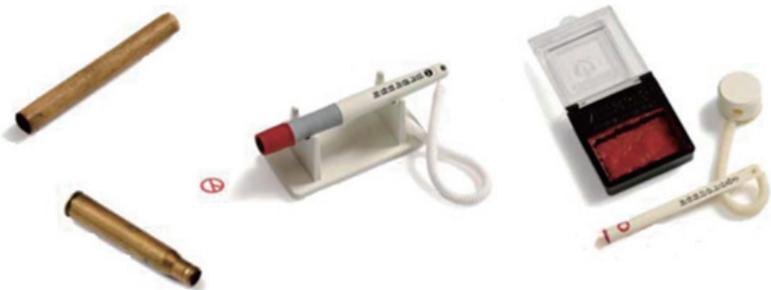
강화플라스틱 투표함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사용한 강화플라스틱 투표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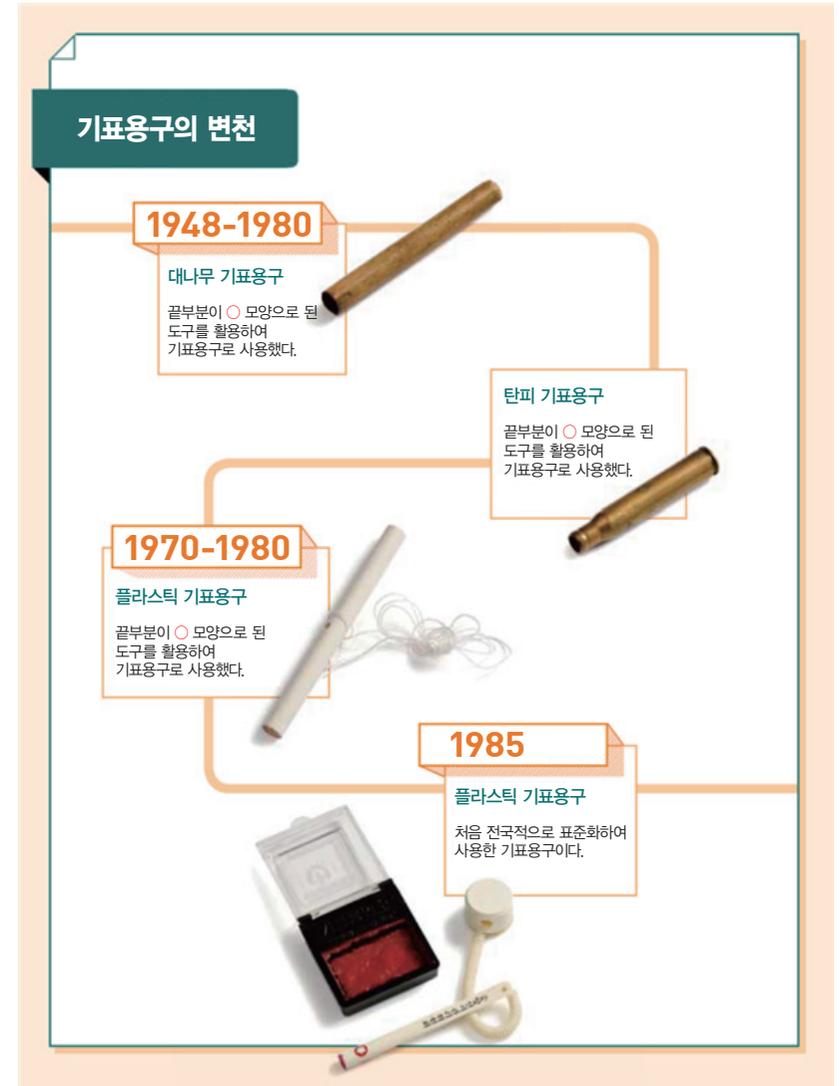


“기표용구”로 보는
대한민국 선거사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1068396917>



이 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동 주최한 특별전 『선거, 민주주의를 키우다』(2016.3.14. - 6.26.)의 전시 자료와 내용을 수록한 도록 『선거, 민주주의를 키우다』(20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한민국역사박물관, p.76~77을 인용한 것이다.



특별기획
 〈사진으로 보는 대한민국 선거사〉
 1963년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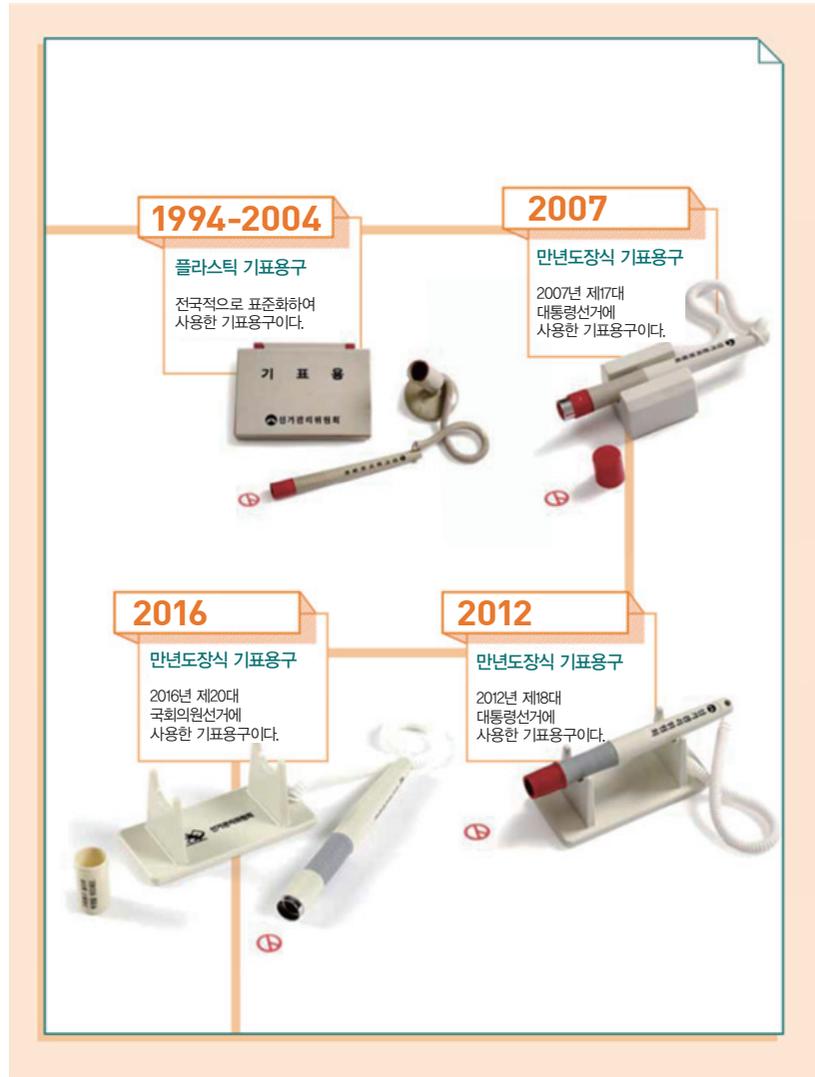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0964126941>

5·16 군사정변 이후 대통령 직선제가 재도입되고,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됐다. 그러나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5·16 군사정변과 대통령 직선제 복구

5·16 군사정변 이후 집권한 군부는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추진했다. 1962년 최초로 시행된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단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헌법이 채택됐다. 또한 1963년 최초로 국회의원 비례대표제가 시행됐다. 직선제로 치러진 1963년 제5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의 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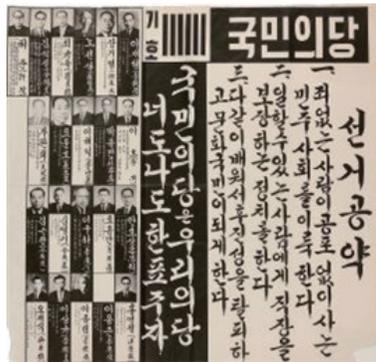
이 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동 주최한 특별전 『선거, 민주주의를 키우다』(2016.3.14. - 6.26.)의 전시 자료와 내용을 수록한 도록 『선거, 민주주의를 키우다』(20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한민국역사박물관, p.94~p.103을 인용한 것이다.



희가 민정당의 윤보선을 15만여 표의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당선됐다. 군사 정변을 일으킨 박정희는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취임했다.



제6대 국회의원선거 홍보 포스터
The Promotional Poster of the 6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1963 | 54.8×78.7



제6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당 선거벽보
A Campaign Poster of the 6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People's Party)
1963 | 84.5×77.8
국민의당(1963-1964)에서 제작한 제6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거벽보이다.



제6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을 보도한 호외
An Extra of Dong-A Daily
News regarding the Situation after the Opening Ballots on November 27th, 1963 | 26.0×39.4
개표상황을 전하고 있는 1963년 11월 27일자 '동아일보' 호외 기사이다. 제6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무소속 출마 금지로 인한 야당 난립으로 공화당이 무난히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설과 선거관리 제도화

4·19 혁명 이후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종래 선거 사무를 관리하던 선거위원회는 내무부의 부속기관이어서 관권선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은 공명선거의 필요성을 확산시켰다. 이를 위해 196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구로 창설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제
The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Publically Announced on Feb 18th 1963)
1963 | 21.0×29.5
196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설 당시의 직제. 창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 정원 42명으로 구성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록
The First Proceeding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1963 | 21.0×29.5
1963년 1월 21일 사광옥 위원장 선출 등 위원회 창설 후 첫 위원회의 회의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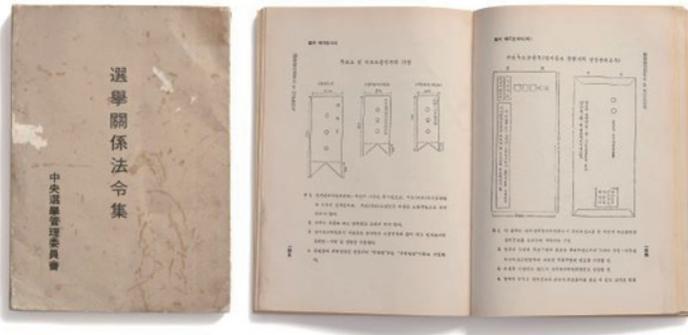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초 담화문
The 1st Statement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1963 | 21.0×29.5
1963년 2월 4일 제2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담화문. 이 담화문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중립과 공정관리를 천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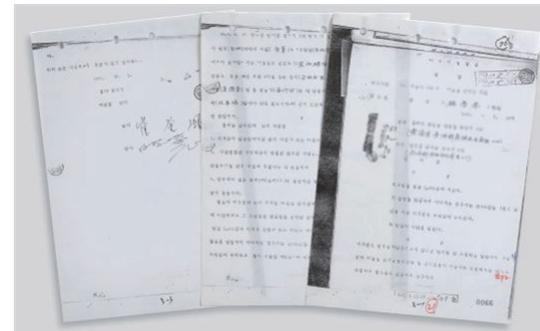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판
1967 | 56.0×13.5



제5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화문
The Statement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n the 5th Presidential Election
1963 | 21.0×29.5
1963년 2월 4일 제2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설 후 처음 치러진 제5대 대통령선거 담화문. 군사정부 상황 속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공무원과 경찰의 선거 불개입을 당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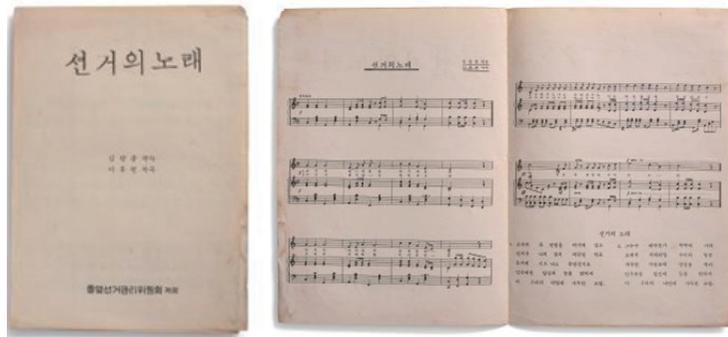
선거관계법령집
Laws related to Election
1963 | 15.0×20.5
196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법령집.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선거 관계 법령이 정리되어 있다.



대통령선거법 위반 관련 판례
Precedents of some violations of Presidential Election Law
1963 | 21.0×29.5
불법선전물을 부착하여 대통령선거법을 위반한 피고에게 벌금 3천원을 판결한 대구지방법원의 판례이다.

대선 특선
〈사진으로 보는 역대 대통령 선거사〉

<http://blog.naver.com/jongheesaon/220995969440>



'선거의 노래' 악보
The Score of 'The Song of Election'
1967 | 19.5×26.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김량봉 작사, 이흥렬 작곡의 '선거의 노래' 악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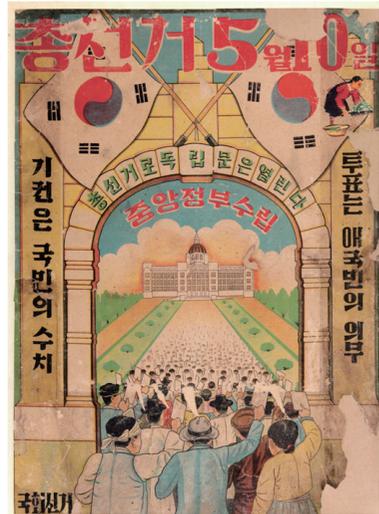
선거, 대한민국을 만든다 전시회 포스터

이 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동 주최한 특별전 「선거, 민주주의를 키우다」(2016.3.14. - 6.26.)의 전시자료와 내용을 수록한 도록 「선거, 민주주의를 키우다」(20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한민국역사박물관 내용과 2017년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하고 있는 「대통령선거의 역사 특별전, “선거, 대한민국을 만든다” 전시회 안내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은 입법국정전문지 “The Leader” 2017년 5월호 p.174~p.177에도 게재되었다.

제19대 대통령선거가 5월 9일에 실시되며 그 다음 날인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이다. 1430년 세종대왕은 경작하는 토지의 새로운 세법 제정에 대해 신분에 관계없이 노비와 여성, 어린이를 제외한 모든 백성에게 직접 찬반 의견을 조사하기로 했다. 5개월에 걸쳐 총인구의 25%가 찬반을 밝힌, 백성과 직접 소통하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민본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 역사적 사례이다. 우리는 그로부터 500여 년이 지난 1948년 5·10 총선거를 통해 근대적인 선거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기념해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로 지정되었다.

1950년대 대통령선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에서 민주공화제와 선거권 등을 공포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냉전의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나라 통일 정부수립은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유엔 총회에서



5·10 총선거 포스터 A Poster of the General Election of May 10th 1948 | 37.5×51.7 국립민속박물관



5·10 총선거 투표소 모습 | 유엔기록보존소

는 유엔 감시 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련의 거부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방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남한에서만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를 통해 국회가 구성되고 헌법을 제정한 뒤 대통령·부통령을 선출하였다. 1948년 7월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투표용지에 대통령 적임자의 이름을 적어 내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6·25 전쟁이 발발하였고, 전쟁이라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야당은 내각책임제 개헌을 추진하였고, 정부·여당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주장했다. 양측의 갈등이 심해지자, 1952년 이승만 대통령 측이 내각책임제 개헌안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각각 부분 발췌한 발췌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립표결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이 그 유명한 발췌개헌이다. 이후 직선제를 통해 제2·3대 정·부통령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이때까지 헌법에는 대통령을 2번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중임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사오입 개헌’이 발생하게 된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정족수 2/3에서 1표가 모자란 135표의 찬성으로 안건이 부결되었다. 그런데 개헌 정족수 2/3는 135.33...이니 0.33은 1인이 아니므로 사사오입으로 135명이면 가결된다는 ‘사사오입’이라는 억지 논리를 내세워 표결을 반복하고 개헌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이승만 대통령은 중임제한 없이 1956년 제3·4대 정·부통령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선거구호를 내세웠고, 집권여당인 자유당은 “구관이 명관이다 갈아

봤자 별 수 없다”라는 선거구호로 맞섰다. 민주당의 신익희 대통령 후보가 유세 도중 서거하면서 이승만은 3선에 성공하지만, 부통령에는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되었다.

1960년대 대통령선거

1960년 3월 15일 선거에서 자유당은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은 물론 그의 유고시 권력을 이양 받을 부통령 이기붕의 당선을 위해 투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투표함에 미리 40%의 투표지를 넣어놓는 '4할 사전 투표', 3인조, 9인조의 집단투표, 대리투표 및 민주당 참관인 퇴출, 투표함 바꿔치기 등 극도의 선거부정을 저질렀다. 선거결과 부통령 이기붕 후보가 장면 후보보다 4배 이상 득표하면서 자유당 이승만, 이기붕 후보가 정·부통령에 당선되었다.

부정선거는 민심을 자극하였고, 개표가 채 끝나기도 전인 3월 15일 마산을



1960년대 대통령선거 (소장처/국가기록원)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행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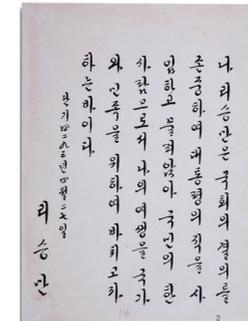


4·19 혁명 당시 학생 시위대 모습 | 정범태

시작으로 전국에서 3·15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4·19 혁명으로 이어지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에 하야하게 된다. 4·19 혁명으로

제1공화국은 막을 내린다. 그 후 의원내각제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참의원, 민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새로 구성된 국회는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고, 장면이 국회의 인준을 받아 국무총리직을 맡아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제2공화국은 10개월여 만에 막을 내린다. 5·16 군사정변으로



이승만 대통령 사임서



5·16 군사정변 당시 거리로 나온 군인들 | 정범태

정권을 잡은 군부는 1962년 헌법을 개정해 다시 대통령 직선제로 복귀하였다. 3·15에 대한 반성은 공명선거의 필요성을 확산시켰고 그 결과 196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구로 창설되었다.

1963년 제5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과 소득증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출마했고, 야당에서는 제2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윤보선 후보가 민정 수립을 내걸며 출마했다. '혁명과업 완수 대 민정'이라는 선거구도는 박정희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두 후보의 득표수는 15만여 표 차이였는데, 이는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최소 득표차이로 알려졌다.

1967년 제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에 힘입어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곧 이어진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은 관권, 금권선거를 자행하였다. 1969년 공화당은 헌법을 개정해 중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대통령의 3선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3선 개헌으로 1971년 대통령선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게 되었고, 신민당의 원내총무였던 김영삼 의원이 40대 기수론을 제창하며 대권 도전을 선언하였으며, 같은 40대인 김대중 의원도 대권 도전의사를 표명하였다. 당내 경선 결과 김대중 의원이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나는 이번이 마지막 선거로, 다음에는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 후계자를 육성하겠다”고 공약하였고,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94만 표 차로 승리하였다.

1970~80년대 대통령 간선제 실시

1972년 유신체제를 선포한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선출방식을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로 바꿨다.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로 실시된 제8대 대통령선거에 박정희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해 99.9%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무효표가 2표 나왔고 나머지는 전부 찬성표였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유신헌법의 비민주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은 1973년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 표출되어 공화당이 38.7%를 득표하고 두 야당은 42.7%의 표를 얻었다. 또한,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와 유신헌법개정 100만인 서명운동도 일어났다.

1979년 부마항쟁이 있었고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자 헌



1970년대 간선제 실시 (소장처/국가기록원)



최규하 대통령 하야 보도기사 한국일보

정사상 최초로 권위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어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 대통령직무대행이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로 제10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하지만 12.12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의 등장으로 최규하 대통령은 곧 사임하게 되었다. 전두환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에 선출되었고, 취임 후 곧 헌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헌법은 유신체제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대통령 선출 형식을 약간 바꾼 정도였다. 대통령선거인단의 간접선거를 통해 제12대 대통령에 전두환 후보가 당선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선거

1987년의 거리는 군정 종식과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함성으로 가득 차게 된다. 1987년 5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 조작한 것이 드러나고, 시위에 참가했던 이한열 학생의 사망 사건 등이 발생하며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진다. 민주화 시위가 견잡을 수 없게 되자 집권당 대표이자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가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는 6·29 선언을 하게 되고, 여·야 합의로 마련한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여 대통령 직선제가 회복되었다.

이에 따라 실시된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군정 종식'을 외치던 김영삼,



서울시청 앞 광장에 이한열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



6·29 선언을 보도한 호의

김대중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안정'을 내세운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 이후의 대통령선거는 법적,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뤄냈으며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정착되었다.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국민참여경선제도가 도입되어 정당의 대통

령 후보 선출에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하여 공정성을 높였고, 민주주의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였다.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2007년 실시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러한 대통령 선거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대통령선거 역사 특별전』이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전시회를 주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은식 기록보존소장은 “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와 다음날인 제6회 유권자의 날을 맞이해서 역대 대통령선거 과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선거, 대한민국을 만들다>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많은 국민이 선거의 중요성과 참여의 필요성에 인식을 함께하고 대통령선거를 희망이 있는 정책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화합하는 아름다운 선거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밝혔다. 전시회의 ‘제1부 대통령선거, 희망을 담다’에서는 희망의 경연이 펼쳐지는 정정당당한 경쟁을, ‘제2부 대통령선거, 화합을 이루다’에서는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화합의 발걸음을, ‘제3부 대통령선거, 함께 만들다’에서는 참여와 공정으로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선거의 모습을 담고 있다.

<참고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6),『선거, 민주주의를 키우다』, 전시회 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 “대통령선거의 역사 특별전: 선거, 대한민국을 만들다”특별전 안내 자료.



"선거, 대한민국을 만들다" 특별전 개막식



"선거, 대한민국을 만들다" 특별전에 참석한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진세연, 장나라, 정애리, 중앙선관위 문상부 상임위원, 중앙선관위 박영수 사무차장

사진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동일

우리나라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0970176529>

5월 9일 개최되는 대통령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은 매우 특별하다. 우리는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파면, 이 과정에서 또다시 접화된 이념 갈등을 넘어 하나 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하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후보자 검증’은 이번 대선을 특징짓는 핵심어 중 하나로 떠올랐다. 본격화된 주요 정당들의 경선 레이스에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대선 주자들의 TV토론은 ‘후보자 검증’에 있어서 토론의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는 듯하다.

늦어도 4월 초까지 주요 정당의 경선투표에서 대선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4월 15일~16일 이틀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

이 글의 일부는 이종희·강무형·이용용 (2015), “선거방송토론의 발전방안 연구: 독일, 미국, 프랑스 사례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15년 정기학술대회 발제문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14), 『선거방송토론위원회 10년사』 내용이다.

이 글은 입법국정전문지 “The Leader” 2017년 4월호 p.132~p.135에도 게재되었다.

되면, 대선은 17일부터 22일간의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으로 접어든다. 이 기간에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자들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S와 MBC가 생방송 하는 후보자 TV토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놓고 맞대결을 벌인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초청대상’ 후보자 3회, 그 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총 4회 개최한다.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1차는 4월 23일(일) 정치분야, 2차는 4월 28일(금) 경제분야, 3차는 5월 2일(화) 사회분야로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초청대상’은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언론기관이 3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가 해당된다. 그 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는 4월 24일(월) 오후 11시부터 2시간 동안 개최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4월 17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초청대상’ 후보자를 확정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영방송사인

구 분	개최일시	개최장소	중계방송사	토론분야
1차	2017. 4. 23.(일) 20:00 ~ 22:00	KBS 스튜디오	KBS, MBC	정 치
2차	2017. 4. 28.(금) 20:00 ~ 22:00	MBC 스튜디오	KBS, MBC	경 제
3차	2017. 5. 2.(화) 20:00 ~ 22:00	MBC 스튜디오	KBS, MBC	사 회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토론회(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개최일시	개최장소	중계방송사	토론분야
2017. 4. 24.(월) 23:00 ~ 4. 25.(화) 01:00	KBS 스튜디오	KBS, MBC	국정전반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5항에 따른 토론회(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토론회)

-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자 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 다. 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 100분의 5 이상 후보자

후보자토론회 초청대상

KBS와 MBC를 통해 전국에 동시 생중계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회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국민질문을 공모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에 근거하는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개최되는 법정 선거방송토론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며, 정견·정책토론에 의한 정책선거의 구현을 통하여 「공직선거법」 제1조에 명시된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을 지향한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방송토론이 선거운동 방법 중의 하나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부터이다. 이 시기에 컬러텔레비전이 대중화되면서 미국과 프랑스 등 외국 후보자 TV토론의 효율성이 우리나라에도 알려졌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 속에서 1987년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됨에 따라

새로 제정된 「대통령선거법」에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정당 또는 후보자와 협의·결정하여 대담 또는 토론을 주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TV 대담·토론이라는 새로운 선거운동 방법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1987년 12월 16일 실시된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참석범위, 토론방식 등에 관해 후보자 간 합의가 어려워 토론이 개최되지 못하였고, 관훈클럽에서 자율적으로 주요 대선 후보들을 1명씩 초청하여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대담을 개최하였다. 이 대담이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의 주요 뉴스로 집중 보도되자 토론회 보도에 대한 편파성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KBS와 MBC는 1987년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에 걸쳐 이 대담 녹화를 편집 없이 그대로 방송하였다. 이 방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아주 높아 전국 1천만 대의 TV 수상기 중 600만대가 이 TV토론을 보기 위해 작동되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최초로 TV광고가 허용되는 등의 진전은 있었으나, 법으로 규정된 후보자 TV토론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 후, 1994년 3월에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언론기관이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이 법은 과거 「대통령선거법」의 후보자토론회 규정보다 개최 절차와 방법을 언론기관에 일임하는 등 이전보다 토론회를 훨씬 쉽게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선거법에 따라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후보자 TV토론이 이루어졌다.

1996년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TV토론이 개최되기는 하였지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TV토론이 본격화된 것은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부터이다. 1997년 11월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공영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이 공동으로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여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3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한시적으로 구성된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토론회를 주관하여, 일정한 초청요건을 충족시킨 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총 3회, 나머지 후보들을 대상으로 1회의 TV토론을 개최하였고,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총 4회의 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공영방송사가 주관한 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의 중립성 문제, 기계적 진행방식 등이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의견을 제출하였다. 국회의 논의과정을 거쳐 2004년 3월 12일 법개정을 통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16개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181개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참석 요건을 충족시킨 대상자는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6명이었으며, 2012년에는 제1차와 제2차 토론회에서는 총 3명, 제3차 토론회에서는 후보 1명이 사퇴하여 2명이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자 대상 후보자토론회도 한 차례씩 개최되고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기간에 개최하는 후보자 TV토론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며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선출을



제18대 대통령선거 초청대상 제1차 후보자토론회(2012. 12. 4. MBC 스튜디오)



제18대 대통령선거 초청요건 미충족대상 후보자토론회(2012. 12. 5. MBC 스튜디오)



제18대 대통령선거 초청대상 제2차 후보자토론회 (2012. 12. 10. KBS 스튜디오)



18대 대통령선거 초청대상 제3차 후보자토론회(2012. 12. 16. KBS 스튜디오)

역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년도	회차	개최일시	후보자	토론분야	사회자	중계주관 방송사
1997년 대선	초청 1차	12.1.(월) 20:00-22:00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경제	정범구 (시사평론가)	KBS
	초청 2차	12.7.(일) 20:00-22:00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정치	정범구 (시사평론가)	MBC
	초청요건 미 충족 대상	12.14.(일) 10:00-12:00	권영길, 신정일, 허경영	국정전반	김학수 (서강대 교수) 오미영 (경원대 교수)	KBS
	초청 3차	12.14.(일) 20:00-22:00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사회/문화	정범구 (시사평론가)	SBS
2002년 대선	초청 1차	12.3.(화) 20:00-22:00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정치/외교/통일	염재호 (고려대 교수)	KBS
	초청 2차	12.10.(화) 20:00-22:00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경제/과학	염재호 (고려대 교수)	MBC
	초청요건 미 충족 대상	12.12(목) 23:10-24:40	이한동, 김영규, 김길수, 장세동	정치/통일/안보/경제/사회/문화	염재호 (고려대 교수)	MBC
	초청 3차	12.16.(월) 20:00-22:00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사회/교육/문화/여성	염재호 (고려대 교수)	SBS
2007년 대선	초청 1차	12.6.(목) 20:00-22:00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이회창	정치/외교/통일/안보	송지현 (방송인)	KBS
	초청 2차	12.11.(화) 20:00-22:00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이회창	사회/교육/문화/여성	송지현 (방송인)	MBC
	초청 3차	12.16.(일) 20:00-22:00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이회창	경제/노동/복지/과학	송지현 (방송인)	MBC
	초청요건 미 충족 대상	12.13.(목) 23:00-(금)01:00	정근모, 허경영, 전관, 금민	국정전반	송지현 (방송인)	KBS
2012년 대선	초청 1차	12.4.(화) 20:00-22:00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정치/외교/안보/통일	신동호 (MBC아나운서)	MBC
	초청 2차	12.10.(월) 20:00-22:00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경제/노동/복지/환경	황상무 (KBS기자)	KBS
	초청 3차	12.16.(일) 20:00-22:00	박근혜, 문재인	사회/교육/과학/문화/여성	황상무 (KBS기자)	KBS
	초청요건 미 충족 대상	12.5.(수) 23:00-(목)01:00	박종선, 김소연, 김순자	국정전반	신동호 (MBC아나운서)	MBC

위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는 합리적 선택을 위한 중요한 정보원천인 동시에 후보자들에게는 중요한 선거운동의 방법이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정견·정책 및 자질·비전 등을 한자리에서 직접 비교·판단하여 스스로의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후보자 검증의 중요한 기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후보자 TV토론은 정책선거를 촉진하고 정치와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의지를 고취·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후보자의 입장에서 선거방송토론은 텔레비전이라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전국의 광범위한 유권자들에게 동시에 접근하여 정견·정책 및 비전 등을 분명하고 신뢰감 있게 제시하여 상대 후보자들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후보자 TV토론은 기존 지지자들의 표심을 강화하고, 잠재적 득표 대상인 부동층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선거운동의 방식이다.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은 공정성, 유용성과 역동성, 흥미성, 내실성을 모두 살릴 수 있는 토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후보자 TV토론의 질문은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독일, 프랑스, 미국의 후보자 TV토론에서는 주제에 대한 질문이 구체적이며 동시에 쟁점 위주로 던져지는 경향이 관찰되었고, 답변 또한 구체적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대선 TV토론의 질문 범위가 넓어 원론적이거나 추상적인 답변으로 흐르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토론시간이 제

한되어 있으므로 정해진 주제 내에서 쟁점 위주의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다.

둘째, 더욱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는 사회자 수나 재량권 범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는 2명의 사회자가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사회자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다. 미국은 총 3차에 걸친 토론회 사회를 각각 다른 사회자 1명 또는 2명이 맡아 진행하였다. 미국은 사회자가 보충질문도 하는 등 사회자의 재량권이 인정된 방식으로 토론이 운영된다. 독일의 경우, 각 방송사를 대표하는 뉴스앵커, 시사토론방송이나 토크쇼진행자 등 4명의 사회자가 함께 토론을 진행하며 각각 2명씩 팀을 이루어 번갈아가며 주제별로 후보자들에게 질문하고 보충질문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사회자의 수나 재량권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사전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 미국, 독일의 경우 후보자 TV토론에 대한 언론의 높은 관심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토론회가 개최되기 오래 전부터 언론은 이전 대통령선거 TV토론 장면들을 보여주며 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흥미를 유도하기도 하고, 양쪽 진영의 TV토론 준비 상황과 결과 예측 등을 보도하여 국민들의 토론회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또한, 독일의 경우도 다양한 사전프로그램들을 제공하였고, 특히 정당, 시민단체 등에서 사전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한 후 토론회를 공동시청하는 행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시민들이 맥

주집이나 바에 모여 함께 후보자 TV토론을 시청하면서 선거를 축제처럼 즐기는 분위기도 관찰된다. 또한, 독일은 후보자 TV토론을 방송스튜디오 단지 내에서 진행하고, 프레스센터에 정당관계자, 지지자, 각 분야 인사, 국내외 언론기자 800여 명을 초청하여 대형 스크린을 통해 TV토론을 함께 시청하고 방송토론 전후에는 각 방송사가 현장 분위기를 보도하기도 한다(최영돈·이종희, 2014, 459). 이와 같이 토론회 이전과 이후에 토론회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동시청 행사 등을 통해 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외국의 사례들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넷째, 후보자의 발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한다. 독일, 미국 등에서는 후보자 TV토론의 팩트 체크를 위해 언론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 언론은 토론회 직전까지 기자들이 팩트 체크 항목을 미리 작성하여 예상되는 수치를 준비해 두었다가 실시간으로 발언의 진위를 검증하기도 한다. 또한, 독일의 경우도 토론 후에 언론인, 정치인, 전문가 등을 초청해 토론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와 동시에 방송 직후, 토론에 관한 여론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우리도 언론사들이 중심이 되어 토론내용에 대한 팩트 체크 등을 통해 후보자들 발언의 진위를 유권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에 일조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영상기술 등에서 역동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미국과 독일의 화면전환 빈도수에 비해 우리나라 후보자토론회의 화면전환 빈도수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샷의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이 부족한 편이다(이종희, 2014). 따라서 화면구성의 단조로움과 단순함을 개선하는 영상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또한, 토론도입부에 기초연설을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독일 등의 사례처럼 기초연설을 생략하고 토론 시작 부분에서 토론자에게 바로 질문을 던져 토론도입부에서 역동성을 높이고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3차례의 토론 중 제 1차 토론에서만 모두발언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후보자 TV토론회가 더욱 내실화되고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방송토론이 공정성과 흥미성, 역동성, 유용성 등을 모두 갖출 때 그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을 직접 주관하고 있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최영돈 방송토론팀장은 “후보자 TV토론이 후보자의 정견·정책 및 자질·비전 등을 비교, 판단할 수 있는 후보자 검증의 기재로서 정책선거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공

<참고문헌>

이종희 (2014)a, 6. 4.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의 현황과 과제, 『선거논단』, 선거연수원, pp.33-40
 이종희 (2014)b, “정치와 TV토론: 한국, 독일, 미국, 프랑스”,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치하라』, 시간의 물레, pp.64-97
 이종희·강무형·이응용 (2015), “선거방송토론의 발전방안 연구: 독일, 미국, 프랑스 사례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15년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14), 『선거방송토론위원회 10년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최영돈·이종희 (2014), “2013 독일 총리후보자 TV토론 진행방식 및 내용연구”, 『한국언론학보』, 58(2), pp.447-477

봄 길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 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종희 정치살롱 매니페스톡(Talk) 10, “매니페스토 10년을 말하다”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09437409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2017년 2월 9일 <이종희 정치살롱 매니페스톡 (Talk) 10>, “매니페스토 10년을 말하다” 토크쇼를 개최했다. 선거연수원 이종희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패널로는 한국 매니페스토 도입 원년 멤버인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현출 단국대 교수, 유문중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마을르네상스센터장, 서인덕 선거연수원장이 참석했다. 토크쇼는 한국 매니페스토 도입 10주년 소회로 시작하여 한국 매니페스토 실태 진단, 매니페스토 발전을 위한 주체별 역할 및 제도 개선 방안, 제19대 대선에서의 정책선거 실천과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종희 선거연수원 교수

이종희 교수는 “어원적으로 ‘매니페스토’는 ‘증거’ 또는 ‘증거물’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마니페스투스’(manifestus)에서 파생된 이탈리아어 ‘마니페스토’(manifesto)에서 유래하며,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



좌측부터 김영래, 전영기, 이종희, 유문중, 이현출, 서인덕 <https://www.youtube.com/watch?v=ehmeFel-i7s>

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매니페스토’(Manifesto)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이행방법 및 기간, 재원 조달 방안, 추진 우선순위 등을 명시하여 구체적이고 책임 있게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정당·후보자들의 공약을 서로 비교하여 현명하게 투표하고, 선거 후에는 공약실천과정을 지켜보고 평가하여 다음 선거에서 지지여부를 결정하는 순환구조를 의미한다.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

매니페스토 도입 만10년을 소회하면서 김영래 교수는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지방선거부터 매니페스토 운동을 시작하였다. 2006년 2월 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매니페스토에 대한 설명, 작성법 등을 설명하고,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주요 정당과 협약식을 했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 감회가 깊다. 개인적으로는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 신청 서류에 〈의정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의미 있게 기억된다.”라고 말했다.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전영기 논설위원은 “매니페스토는 하나의 약속이자 검증, 평가, 계약이다”, “자동차로 따졌을 때, 과거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선택사양이었다면, 지금은 기본 사양이 되었다”고 매니페스토의 변화를 회고하며 매니페스토 확산을 위해서는 여전히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및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출 교수는 “매니페스토 운동은 백지 위임식의 한국선거를 주권자와의 계약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민주주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책임성(accountability)을 확보할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유권자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반응(responsiveness)하는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인덕 원장은 “한국 매니페스토가 10년간의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 선거 구현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일상생활에까지 접목되고 약속과 실천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감회가 남다르다. 다만, 매니페스토 이해수준, 후보자 선택기준, 당선자 공약이행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이현출 단국대 교수



서인덕 선거연구위원장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어 약간의 아쉬움과 회한도 남아 있다. 그럼에도 모 언론 관계자가 제가 추진했던 ‘그 당시 매니페스토 방향성과 강도가 좀 무리하지 않나 여겼는데, 현 정치적 상황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방향성이 옳았다’고 말했을 때 개인적으로 다소 위안이 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진 한국 매니페스토 실태진단 토론에서 이현출 교수는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은 현행 공직선거법 66조에 의해 각 공약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간·재원조달방안을 선거공약서에 게재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대한 매니페스토 적용확장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아울러 실제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짧고, 선거일이 임박하여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기 때문에 제시된 공약을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직 후보자 등록 기간을 선거일 30~50일 전으로 앞당겨 후보자들이 매니페스토를 제대로 제시하고 이를 검증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제도 개선 과제”라고 하였다.

한국 매니페스토 발전을 위한 주체별 역할 및 발전방안에 대해 유문종 센터장은 18세기 영국 철학자 루소의 “시민은 선거기간에만 자유롭고 선거가 끝나면 노예로 돌아간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역전된 역할을 바로잡기 위한 시민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가올 제19대 대선을 위한 과제로 “조기 대선이 이루어



유문종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마을 르네상스센터장

어질 경우, 짧은 시기에 선택을 해야 하므로 모든 후보자와 정당은 당선 후 100일 긴급 정책과제, 180일 주요정책과제 등을 반드시 결정하여 유권자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기 논설위원은 매니페스토의 생명은 목표, 우선순위, 기한, 절차, 방법, 이 다섯 가지라고 밝히며, 모바일 매체를 바탕으로 한 공약은행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약은행은 각 지역 특색에 맞는 희망 정책을 유권자가 직접 제안하고 정당·후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현출 교수는 포폴리스트를 주의해야 하며, 후보자 간 토론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후보자 공약 검증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또한, “유권자들이 제대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바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김영래 교수는 “유권자는 단순하지 않다. 유권자는 소비와 생산을 동시에 하는 복잡한 존재이기에 이를 고려하는 후보자들의 매니페스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제19대 대선 매니페스토 실천 과제로는 “네거티브 캠페인이 아닌 포지티브 캠페인이 핵심이다. 유권자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매니페스토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이고 자원 조달 계획도 담보된 참 공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인덕 원장은 제19대 대선에서의 정책선거 실현과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먼저, 후보자의 정책공약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언론과 시민단체, 학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공약개발단계부터 검증, 평가까지 유권자가 직접 참여하는 유권자 중심의 매니페스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두



번째, 정당과 후보자의 참여를 견인하기 위해서 정당과 후보자가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정책경쟁과 공약이행을 실천하겠다는 온라인상 협약의 장도 필요하다면 마련할 예정이며, 세 번째, ‘정책공약알리미사이트’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의 대표 공약을 게시하는 것은 물론, 각종 SNS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알리고, 사전 투표개시일 전 7일부터 개시일 전일까지를 정책공약 바로 알기 주간으로 설정하여, 공약을 살펴보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크쇼를 마무리하며 유문종 센터장은 현재 직접민주주의 참여가 늘고 있고 또한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라며 선거 혁명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전영기 논설위원은 매니페스토는 창조품이자 생산품이며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공약 앱’이 실현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서인덕 원장은 “변화와 희망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매니페스토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국민적 참여와 화합을 통해 잘 녹여진다면 정책이 중심이 되는 아름다운 선거가 실현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행복한 세상,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번 선거의 특징상 세계에서 집중적인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니페스토를 세계 속으로 전파·확산하는 계기를

‘투표소 가는 길’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그림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1001685257>



좌측부터 전영기, 유문중, 김영래, 이종희, 서인덕, 이현출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권자인 유권자들이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크쇼를 기획한 선거연수원 장재영 교수기획부장은 “매니페스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당과 후보자는 제대로 된 정책과 공약을 책임감 있게 제시하고, 유권자는 정책과 공약을 비교, 평가하여 현명하게 투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병철 정당과장은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하며, 매니페스토는 성숙한 선거문화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토착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사진 제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동일



〈투표소 가는 길〉,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이 글은 2017년 5월 9일 서울신문에 실린 “19대 대선 오늘 선택의 날! 투표소 가는 길…웃으며 가는 길…밝은 미래 꿈꾸며 가는 길” 기사를 그대로 공유한 것이다.

[출처: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509003005&lbKS=f1ce2d79e9c6fd6bd215ed32ad9027a&wlog_tag3=kakao_story_share#csidxa1f9c1a9018e87b82321c407916b12d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사상 유례 없는 5·9 조기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는 의미에서 직접 그린 그림을 서울신문에 보내왔다. ‘투표소 가는 길’이란 제목의 이 그림에는 다양한 유권자들과 캐릭터들이 밝은 표정으로 투표소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 어르신,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물론 선관위의 캐릭터인 ‘자두’와 ‘클레오파트라 복면가왕’으로 유명한 선

관위 홍보대사 가수 김연우씨, 추억의 만화 주인공 ‘로보트태권V’도 등장해 따뜻함과 함께 유쾌함을 더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8일 “희망을 바라는 유권자들이 밝게 웃으며 투표소로 향하는 모습을 담고 싶었다”며 “이번 대선이 국민 화합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오래전부터 만화를 독학으로 배웠다가 사무관 시절 경민대 만화예술과를 야간으로 다니며 정식 만화가가 되었고, 한국만화가협회 정회원으로 다양한 작품활동을 해왔다.

〈서울신문 기사인용〉

한편, 김대년 사무총장은 2016년에는 직접 그린 만화를 통해 <실종아동 찾기 FIND project>에 참여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가족만큼 많은 뜻을 가진 단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을 구성하는 ‘우리’, ‘함께’, ‘사랑’이란 가치는
인간 삶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지요.

가족을 상실하는 아픔은 곧 삶의 일부 또는 모든 것이
허물어 짐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FIND’프로젝트가 단순히 실종가족찾기 캠페인을 넘어
실종예방, 실종가족 아픔 나누기, 더 나아가 ‘가족사랑 회복’이라는
승고한 가치를 실현하는 아름다운 운동으로 승화되길 소망해봅니다.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하지만 이 캠페인에
따스한 시선과 마음으로 많은 사람이 동참하고,
그 횃수를 거듭할 수록 우리의 희망은 현실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저 또한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 캠페인에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팝페라 테너 임형주 교수,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홍보대사· 중앙선거관위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1048784537>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5일 선거연수원 수원청사에서 세계적인 팝페라 테너 임형주 교수를 'A-WEB 홍보대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로마시립예술대학 성악과 임형주 석좌교수는 2003년 고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서 헌정사상 최연소의 나이로 애국가를 독창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카네기홀에서 독창회를 열고 미국 CNN iReport가 선정한 '세계 3대 팝페라 테너'로 꼽히는 등 세계적인 팝페라 가수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그간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온 임형주 교수는 A-WEB의 첫 홍보대사로서 앞으로 세계 민주주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우수한 선거제도 전파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자문위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와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자문 역할도 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회는 학계, 법



팝페라 테너 임형주 교수

조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임형주 교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연소 선거자문위원이 되었다.

A-WEB은 2013년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도로 창설된 세계 최대 규모의 선거기관협의체이다. A-WEB에는 현재 102개 국가 106개 선거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환기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문화를 전파하고 지원함으로써 세계민주주의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15년 A-WEB에서 지원한 키르기스 공화국 총선거 선거자동화 지원 산업은 잦은 선거 부정으로 정치적 혼란을 겪던 키르기스 공화국의 정국과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김용희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는 임형주 교수의 음악은 함께 성장하는 세계 민주주의와 뜻을 같이한다”



면서 “음악의 힘에 민주주의가 더해지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의 기대를 드러냈다.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민주주의에 있어 30여년 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를 가장 잘하는 북유럽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도개혁과 더불어 선거와 정치문화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면서 “성공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는 선거와 정치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 예술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계적인 팝페라 테너인 임형주 교수와 함께 선거와 정치문화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 현시대의 사람들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하면서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임형주 교수는 ‘행복한 대한

민국을 만들어가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취지가 너무 잘 맞는다”며 이번 위촉에 대한 의미를 전했다. 이에 임형주 교수는 “A-WEB 홍보대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유와 공정, 그리고 화합이라는 선거의 소중한 가치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저의 목소리로 열심히 응원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위촉식을 총괄한 A-WEB 광규성 기획부장은 “세계적 팝페라 테너인 임형주 교수를 우리 협의회와 홍보대사로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협의회와 임형주 교수가 세계를 대상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활동하면서 함께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사진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동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작은 음악회 ‘복면가왕: 레전드의 귀환’〉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0851654040>

늦가을,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가족이 함께 만든 〈작은 음악회〉가 개최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락기타(樂 guitar) 동호회는 2013년부터 매년 직원들의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그 4번째였다. 관객들은 이날 동호회 회원들의 공연 외에도, 가수 4명이 대결하여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복면가왕’, 가요금 연주 등의 특별공연 등을 즐길 수 있었다.



사회자 김진화(좌)와 남상덕(우)

행사의 MC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의 남상덕씨와 미디어과의 김진화씨가 맡았다. 김주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락기타(樂 guitar) 동호회 회장은 ‘이 자리가 가족과 동료와 함께 스트레스를 풀며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



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작은 음악회의 첫 순서로는 클라리넷, 첼로, 피아노로 구성된 실내악 공연이 있었다. 실내악 동호회의 공기현, 문은영, 윤지희 씨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와 ‘My Way’를 연주하며 산뜻한 선율로 음악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진 순서는 강민영 외 이화여대 국악과 2명의 가야금 연주였다. 국악인 황병기의 가야금 창작곡이자 신라시대의 예술을 표현한 곡인 ‘침향무’가 연주되며, 우아하고 고즈넉한 선율이 무대를 가득 채웠다.

복면가왕 1라운드

다음으로 작은 음악회의 하이라이트, ‘복면가왕’공연이 시작되었다. 공연은 동명의 TV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복면을 쓴 가수 4명이 대결을 펼쳐 최종 우승자를 선정하는 방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우)

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라운드가 끝나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로 구성된 100명의 평가단이 실시간 투표를 통해 승자를 가렸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걸맞은 공정한 투표였다. 첫 번째 라운드는 반짝이는 투표함 모양의 복면을 쓴 '투표하세요'와 럭셔리한 복면을 쓴 '청담동 덕혜 공주'의 대결이었다.

'투표하세요'는 부활의 '사랑할수록'을 부르며 파워풀한 음색을 뽐냈고, '청담동 덕혜 공주'는 정경화의 '지상에서 영원으로'를 부르며 막상막하의 대결을 펼쳤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열정적인 무대였지만 청중평가단은 '청담동 덕혜 공주'를 결선 진출자로 선택했다. '투표하세요'가 복면을 벗자 청중석에서 큰 함성이 터져 나왔다. 가수 못지 않은 훌륭한 실력을 선보인 복면의 주인공은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행사 당시 사무차장)이었기 때문이었다. 김대년 사무총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레슨까지 받으며 새로운 도전을 해보았다'면서 '이러한 도전이 여러분에게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투표하세요'라는 이름에서도 철저한 직업관을 느낄 수 있었다.

복면가왕 2라운드

2라운드에서는 '클레오파트라'와 '경국지색 불여우'의 대결이 이어졌다. 뛰어난 미성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클레오파트라'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인 '경국지색 불여우'는 막상막하의 대결을 펼치며 관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결과는 '클레오파트라'의 승리였다. 복면을 벗은 '경국지색 불여우'는 개그우먼 이세영씨로 드러났는데, 정말 훌륭한 가창력으로 관중들을 놀라게 했다.

결승전인 3라운드에서는 '청담동 덕혜 공주'와 '클레오파트라'가 대결을 펼

쳤다. 결승전인 만큼 두 가수는 막상막하의 실력을 펼쳤지만 청중평가단의 선택은 '클레오파트라'였다. 정체를 공개한 '청담동 덕혜 공주'는 실종아동 찾기 'FIND'프로젝트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수 솔비였다.



가수 솔비(중간)

한편, 최종 우승자 '클레오파트라'는 슈퍼스타 K 시즌 3에서 우승한 울랄라세션의 김명훈씨로 밝혀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포터즈이기도 한 김명훈씨는 '선거 서포터즈로서 이렇게 뜻있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아름다운 선거 문화를 만드는데 힘써주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흥미진진했던 '복면가왕'공연이 끝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진우씨와 그의 자녀들(기타 이진우, 드럼 이수빈, 보컬 & 키보드 이진형)로 이루어진 가족 밴드가 임재범의 '비상'과 싸이의 '나팔바지'를 연주하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한 가족이 꾸민 무대에서는 훈훈한 가족애와 조화로우미 그대로 묻어나 관객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다. 동호회 회원들의 레슨을 담당했던 선생님들로 이루어진 일명, '선생님 밴드'는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과 브루노 마스(Bruno Mars)의 'Treasure'라는 곡을 연주하며 완벽한 실력을 보였다.

이어서 기타 동아리 김수민, 김주호, 이미숙, 정미나, 하상욱씨의 연주에 이어 강민경, 백승준, 신광호 이지우, 장성훈씨의 통기타 공연이 있었다. 연



락기타 동아리 연주(좌측부터 정미나, 김수민, 이마숙, 하상욱, 김주호)

주한 곡은 아이유의 '너의 의미', 그리고 김광석의 '일어나'와 홍삼트리오의 '기도'였는데, 이번 공연을 위해 연습한 실력을 유감없이 선보여 청중들의 환호를 받았다. 통기타 공연 중간에는 정훈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로맨틱한 색소폰 연주가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회자의 요청으로 잠깐 무대에 올라온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능 있는 사람이 많아 놀랐다'면서 '내년 대선 때도 모든 일이 노래 부르듯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 있는 소감을 남겼다.

다음으로 신나는 록 밴드 공연이 있었다. 김형직, 박효진, 서완주, 신우석, 이해민, 임원희, 임주현, 조준기, 하승균씨는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와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부르며 프로 같은 실력으로 관중들을 놀라게 했다. 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포터즈인 댄스팀 제로백이 노래와 연주로 가득했던 이번 음악회에서 유일한 춤 공연을 펼치며 무대에 활력을 더했다.

공연의 대미는 락기타 동호회 회원 40명이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로 장식했는데, 아름다운 하모니가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아직 비밀리에 준비된 깜짝 공연이 남아있었다. 바로 가수 울랄라 세션의 특별 공연이었다. 울랄라 세션은 '서쪽 하늘'과 '미인'을 부르며 관객들을 열광의 도



가니 속으로 끌어들었고, 늦가을 밤, 멋진 춤과 음악으로 아름다운 추억과 깊은 울림을 선사하며 작은 음악회는 막을 내렸다.

선거관리위원회 서포터즈와 직원, 가족의 협업을 통해 따뜻한 한마당을 마련하여, 보는 즐거움과 듣는 행복함을 선사한 <작은 음악회>는 "소통과 화합"의 가치를 조화롭게 잘 녹여낸 포근하고 소박한 창의적인 무대였다.

사진 제공 : 김동일 & 김원재

중앙선거관위, 은희경작가와 '다다락樂방' 북콘서트 개최 선거와 인문학을 접목시켜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0832344846>



(좌측부터) 이명행 독서클럽 회장, 은희경 작가, 주성철 평론가, 가수 솔비

9월 28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자금후원 활성화를 위한 '다다락樂방' 북콘서트가 개최되었다. 이번 북콘서트는 <중국식 롤렛>과 <새의 선물>의 저자인 은희경 작가와 이명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독서클럽 회장이 함께했고, 가수 겸 아티테이너 솔비와 문화평론가 주성철의 사회로 진행되었

다. 이번 행사에는 200여 명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참석하여 토크쇼, 라이브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즐겼다. 특히, 이번 북콘서트는 "선거와 인문학"을 품위있게 접목시킨 의미있는 행사였다.

북콘서트는 테이블에 놓여진 세 가지 종류의 칵테일을 맛보고 주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특별한 주문방식은 바로 은희경 작가의 신작, <중국식 롤렛>에 나오는 'K의 술집'과 동일한 주문방식이다.

<중국식 롤렛>은 술, 옷, 신발, 사진, 책, 음악, 우리와 가깝게 있는 사물들에 대한 6개의 소설을 한 권으로 묶은 책이다. 'K의 술집'은 격이 다른 3가지의 술을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손님은 각 선택의 진짜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메뉴를 고르고, 그 선택에 따라 행운과 불행이 교차된다.



3가지 종류의 칵테일이 전달되는 모습

모두에게 축제를 의미하는 페스티벌 칵테일이 전달되고 주성철 평론가는 (칵테일을 보며) 소설 속 '천사들은 술은 가리지 않아요. 모든 술에서 공평하게 2%를 마시죠. 사람의 인생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증발되는 것이 있다면, 천사가 가져가는 2% 정도의 행운이 아닐까요?'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증발되는 행운에 대해 질문하자, 은희경 작가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행운에서 증발되는 것은 천사가 가져간 2%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그 행운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증발된다'며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자, 이명행 독서클럽 회장은 ‘유권자들이 선거 때마다 각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아쉽다고 말했다. 은희경 작가도 이에 공감하며 ‘편견과 선입견으로 결정하는 것은 인생의 조종간을 무책임한 사람에게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가 당선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솔비의 질문에, 은희경 작가는 ‘마음에 들지 않는 당선자일수록 관심을 가지고 감시해야 하며, 그것도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답했다.



공연하는 솔비

이어서 진행된 라이브 콘서트에서, 솔비의 실종아동찾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된 ‘파인드’와 솔비와 중앙신문위 써포터즈인 바이올리니스트 유에스터, 싱어송라이터 리얼스펠이 콜라보한 ‘만추’, 그리고 유에스터양의 솔로 연주가 있었다.

바텐더가 북콘서트를 들으며 즉석으로 준비한 화합의 칵테일 ‘하모니’를 음미하며 다음 순서가 이어졌다. 네 사람은 은희경 작가의 <새의 선물>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새의 선물>은 12살 소녀 진희의 시선으로 196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범하면서 다양한 삶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이 책은 은희경 작가의 대표작으로 꼽히며, 그에게 제1회 문학동네소설상을 안겨준 작품이기도 하다. ‘새의 선물’이라는 제목은 어떻게 짓게 되었느냐는 솔비의 질문에, 은희경 작가는 ‘자크 프레베르의 시에서 제목을 따왔다고 답했다. 그는 이 제목이 ‘소녀가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 정면돌파를 하지

는 못하지만,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대결하려 한다는 비유’라고 부연 설명했다. 은희경 작가는 작품을 통해 ‘부조리한 구조 속에서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려 했다’고 말하며, 작품 중에 나오는 학급선거 이야기를 언급했다.

진희네 반에 신화영이라는 병원장 딸이 회장 선거에 출마해서 상대한 향응을 제공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공정하게 선거를 한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병원장으로부터 상당액의 장학지원 약속을 받고 신화영을 부회장으로 임명한다.

아이들은 그제야 자기들이 아무리 민주선거의 원칙을 배워 실천해봤자 ‘하늘이 볼까 무서워’ 고무신 한 켤레 준 후보에게 투표한 할머니가 받아들인 바로 그 현실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주성철 평론가는 ‘바꾸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진희가 자신만의 또 다른 길을 찾은 건지, 아니면 부조리한 세상에 물든 건지 궁금하다’면서 은희경 작가에게 질문을 던졌다. 은희경 작가는 ‘소설의 목적은 권선징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재현하고, 그 선택을 독자들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진희와 같은 아이들이 자라나서 사회가 조금은 나은 쪽으로 바뀌었



북콘서트 진행 모습



청중들의 모습

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명행 독서클럽 회장은 이에 대해 '민주주의 후진국이었던 한국이 현재는 66개국 대상으로 한 선거공정성 지수 조사에서 6위에 오를 정도로 발전했으며, 그 배경에는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유권자들의 더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네 사람은 정치자금 후원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은희경 작가는 '정치자금 후원은 사회적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정치자금 후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행 독서클럽 회장은 '정치자금은 사람으로 이야기하자면 혈액이나 마찬가지로'라면서, '부자들이 아닌, 다수의 서민이 소액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한다면 더 다양한 계층을 위한 정책이 개발되고, 정치자금 운용 역시 투명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낭독을 하고 있는 은희경 작가



기념사진

바텐더는 '정치자금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는 투명함이라고 생각한다'며 소액자금 정치자금 후원 활성화를 위해 투명함과 맑음이 특징인 희망의 카테일을 출연자들에게 건넸다. 은희경 작가는 '작가의 말'에 있는 짧은 구절을 낭독하며 북콘서트를 마무리했다. '세상이 조금 변했으면 좋겠다. 나도 조금 변한 것 같다. 좋게 변했을까? 좋다는

게 뭘지는 잘 모르겠지만 변하는 건 좋다고 생각한다'

Q&A

질문1. 선택의 순간, 작가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때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자신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스스로를 틀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책임기 등을 통해 타인의 삶을 알고, 틀에서 벗어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질문2.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사실, 책을 읽지 않아도 사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책 속에는 나와 다른 선택과 다른 관점의 인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독서를 통해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삶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3. 작가님이 생각하는 '선거란 무엇입니까?'

부자가 후원하면 부자의 뜻대로, 내가 후원하면 내 뜻대로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거란 대신 실천할 사람을 뽑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제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동일

가수 솔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대사로 위촉돼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105339888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7일 과천시민회관에서 '20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가수, 화가, 인기 예능인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솔비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총선 등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 적은 있지만 기관 자체를 대표하는 홍보대사를 위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솔비는 미술과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아트테이너'로, 실종아동찾기 프로젝트 '파인드'를 기획하고, 자선 전시회를 여는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는 축제다' 그라폴리오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고, 한국선거방송 홍보 뮤직비디오 '뷰티풀데이'에 참여하는 등 다재다능함을 바탕으로 선거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해왔다. 다양한 영역에서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선사하고 있는 솔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호 홍보대사로서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알리는 데에도 그 영향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은 박석원 아나운서와 이윤지 아나운서의 사회 하에 '복면가왕 이벤트', '토크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축제처럼 진행되었다. 특히 '복면가왕 이벤트'의 경우 지난 겨울, 선관위 직원들과 가족들이 꾸민 <작은 음악회>에서 복면가왕 대결을 펼쳤던 김대년 사무총장과 솔비의 특별한 인연을 바탕으로 준비되었다.

작년 겨울 복면가왕 대결에서 반짝이는 투표함 가면을 썼던 김대년 사무총장의 '투표하세요'와 럭셔리한 가면을 쓴 솔비의 '청담동 덕혜 공주가 벌인 대결 영상이 재생되고, 이후 무대로 '투표하세요'와 '청담동 덕혜공주가 나와 그간 갖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2차 대결을 펼쳤다. 그러나 대결을 마치고 복면을 벗은 두 도전자는 모두의 예상과 달리 솔비의 소속사 엠에이피크루 대표 이정권씨와 가수 '타린'이었다. 반전이 있는 깜짝 대결로 장내 분위기가 흥겹게 달아오르며 본격적인 위촉식이 시작되었다.



복면가왕 도전자 인터뷰



박석원 아나운서(좌), 가수 '타린' (가운데), 솔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대사(우)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솔비씨는 아주 특별한 연예인이다. 많이 공부하고 세상을 진정성 있게 바라볼 줄 안다. 순수하고 따뜻하지만 단호하고 엄정한 측면도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솔비씨의 모습은 온 국민을 대상으로 소통해야 하는 선관위의 정책성, 방향성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솔비씨를 홍보대사로 선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늘 꿈꾸고 희망하는 솔비씨와 아름다운 선거를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꿈꾸는 선관위가 함께 발전해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선거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라며 앞으로의 각오를 전했다.

이에 답하여 솔비는 “감동 받아 가슴이 뛰다”면서 “각자 다른 생각으로 한 표를 행사하는 국민들의 뜻을 화합시킬 수 있는 매개가 선거다. 참여와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국민들의 뒤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선관위 분들의 말씀이 저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국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아름답고 성숙한 선거문화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솔비의 홍보대사 위촉을 기념하는 짙막한 토크쇼가 열렸다. 무대는 솔비와 두 사회자, 그리고 이명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국장이 함께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의 인연을 묻는 질문에 솔비는 “그라폴리오 전시회 ‘선거는 축제다’에 그림을 출품하며 인연이 시작되었고, 실종아동찾기 ‘파인드’ 프로젝트, 은희경 작가님의 북콘서트 등에도 선관위 가족분들과 함께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대선과 앞으로의 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 대선은 참 어려운 선거였는데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화합의 선거로 만드는데 선관위 역



솔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대사(좌),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우)



깜찍선물로 복면가왕 기념품을 받는 솔비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솔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대사

할이 컸다”면서 “저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생각은 달라도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선거를 알리는 의미가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선거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명행 홍보국장은 이 자리를 통해 “한국선거방송은 지난 4월 26일 송출을 시작으로 현재 아이피 채널과 케이블 채널로 24시간 방송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선거기간 중에는 후보자 정보, 정책과 공약, TV 토론 등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투표를 포함해서 투·개표의 전 과정을 생중계하여 국민이 궁금해하거나 의혹이 제기된 분야에 대해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선거가 없는 평상시에는 인문학과 선거, 예술, 음악 등과 함께 선거의 가치를 콘텐츠에 담아 방송하며, 향후 케이블, 유선 방송에서도 선거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솔비씨처럼 재능있

는 분들과 함께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민이 주신 믿음과 사랑에 소홀함이 없도록 든든한 친구 같은 선거방송으로 성장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가수 ‘타린’과 밴드 ‘리얼스멜’의 축하공연과 함께 막을 내렸다. 이번 위촉식을 총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종진 미디어과장은 “솔비씨는 내년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한국선거방송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자유, 공정, 화합이라는 참된 가치를 제대로 담은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박석원 아나운서, 이명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국장, 솔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대사, 이윤지 아나운서

토크콘서트 <전설의 토론이 온다! 케네디는 닉슨을 어떻게 이겼나? 현장스케치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0885589797>

2016년 12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 《전설의 토론이 온다! 케네디는 닉슨을 어떻게 이겼나?》라는 제목의 '선거방송토론 토크콘서트'가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선거 및 선거방송토론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것이다. 오동진 영화평론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강제규 감독, JTBC '비정상회담' 이탈리아 패널 알베르토 몬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이종희 교수가 초대 손님으로 나왔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방송토론팀장 최영돈 박사의 행사 안내에 이은 특별공연에서 팝 바이올리니스트 유에스터양은 멋진 무대 매너와 열정적인 연주로 관객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토크콘서트의 서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다음 순서로는, 현대 정치에서 '빅 이벤트(Big Event)'의 하나로 꼽히는 닉슨과 케네디 간 1960년 미국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의 영상이 상영됐다.



56년 전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잠재력을 간파한 케네디의 제안으로 성사된 대선 TV토론은 총 4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미국 전역에 생중계됐었다. 이번 토크콘서트 행사에서는 1960년 9월 26일 시카고의 CBS스튜디오에서 있었던 제1차 TV토론이 상영됐다. 토론주제는 국내 현안이었다. 특히 이 TV토론은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으로 제35대 미국 대선의 판도를 뒤엎고 케네디에게 승리를 안겨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유명하다.

오늘날과 달리 1960년의 TV토론에서는 각 후보의 기초연설이 8분씩 진행되었는데, 민주당 후보 케네디 상원의원은 당시 미국 국내 상황과 관련하여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I'm not satisfied)”라는 수사적 기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개개인, 각 주(州) 그리고 연방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연대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



는 “미국이 자유를 수호하는 길은 효율적인 정부에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당시 아이젠하워 정부의 부통령으로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닉슨은 케네디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의 뜻을 표했으나, “미국의 발전이 현재 담보 상태에 있다”는 케네디의 논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케네디의 공약은 과거 “트루먼 정부 정책의 수정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케네디의 공약과 관련하여 “우리의 차이점은 미국이 나아갈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있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이은 4명의 기자단 질문에서 케네디와 닉슨은 각자의 정치적 철학과 공약에 따라 열변을 토했고, 케네디의 정치경력, 아이젠하워 정부의 부통령으로서 닉슨의 정책, 농산물 정책, 교육지원법안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닉슨의 창백하고 피곤이 역력한 얼굴과 건강미 넘치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케네디의 모습은 TV화면을 통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또한 스튜디오 배경색상과 비슷한 회색양복을 입은 닉슨에 비해 검정양복을 입은 케네디의 모습이 화면에 부각되는 측면도 있었다.

닉슨과 케네디 간 제1차 TV토론은 1960년대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 당시는 텔레비전이 대중화되어 각 가정의 TV수상기 보급률이 90%에 육박하던 시기였다. TV토론 개최 전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닉슨이 케네디를 앞서고 있었고, 당시 미국 사회는 닉슨이 당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제1차 TV토론 이후 케네디는 닉슨을 역전하기 시작했고, 근소한 차이로 닉슨을 제치고 제3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한 시간 가량의 영상 상영이 끝나고 본격적인 토크콘서트가 시작됐다. 오동진 평론가는 “이 TV토론은 격변기였던 1960년대의 도입부에 있었던 것으로, 이 TV토론에서 승리한 케네디는 ‘뉴프런티어(New Frontier, 새로운 개척자)’정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유의미한 토론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는 “시청자에게 호감이 있어 보이던 케네디는 구체적이기 보다는 이상적인 말을 많이 했지만 모두



맞는 말처럼 들렸고, 닉슨은 통계상의 수치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했으나 호감도가 낮아 토론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말하면서 “TV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두 명의 배우가 토론을 벌인다는 가정 하에 연출가의 입장에서 닉슨-케네디 TV토론을 어떻게 느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강제규 감독은 “두 배우가 상당한 수준에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좋은 배우는 스피치, 리액션 등의 면에서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한데, 케네디는 간단명료했다. 그러나 닉슨을 자주 눈을 깜빡거리고 죄를 지은 사람처럼 불안한 표정을 짓는 등 여러 가지가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1960년 당시 미국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질문에 선거연수원 이종희 교수는 “대외적으로는 냉전체제에 있었고, 대내적으로는 인종분리정책, 시민권 운동 등으로 미국 사회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던 시기였으며, 경제적으로는 거대 기업들이 몸집을 불리면서 농업 분야까지 진출하여 농민들이 농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선거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이 절대적인가라는 질문에 “TV토론의 영향은, 지지하는 후보를 바꾸는 ‘설득효과’와 기존에 선호하던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고히 하는 ‘강화효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박빙 선거의 경우에는 TV토론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관객과의 소통 시간이 있었다. 한 대학생은 이종희 교수에게 박빙 선거의 경우 TV토론이 큰 변수가 된다면 과연 토론문화가 잘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냐고 물었다. 이종희 교수는 “박빙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도 TV토론이 큰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론문화에 익숙해 있지 않은 후보자들이 많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입후보 예정자 및 일반 시민을 위한 ‘TV토론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스튜디오 환경에서 직접 토론방식을 익히고 토론을 실습하며, 방송 출연 시의 코디방법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젊은 세대들에게서는 점차 토론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한 대학원생은 “현재 TV가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TV가 보급되기 시작한 1960년대 보다 낮아졌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은 어떻게 변할지, 다른 제3의 미디어의 확산이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강제규 감독은 “TV가 등장한 이후 영화 산업도 큰 타격을 받았고, 인터넷의 등장으로 또 다시 타격을 받았다. 이는 미디어가 계속 이동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뉴미디어의 파생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종희 교수는 “선거방송토

론위원회도 이러한 뉴미디어의 파급에 대응하는 방법적인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알베르토 몬디는 이탈리아의 사례를 들면서 “이탈리아 최대의 미디어그룹 회장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는 미디어를 잘 활용한 총리였다”면서 “그의 재임기간 동안 이탈리아 사람들은 정치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해 많이 느끼게 되었고, 그에 대한 규제도 많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그 밖에 관객석에서는 다양한 질문이 줄을 이었다. ‘달변가도 아니고 외모도 부족하지만 유능한 후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알베르토 몬디는 “베를루스코니는 예능인 출신이었지만, TV토론에서는 방송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이웃집 아저씨 느낌의 로마노 프로디아에게 졌다. 달변가는 아니었지만 프로디아의 정확하고 진정성 있는 말에 이탈리아 국민은 그가 진실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하면서 “정치 토론은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성이 중요하고, 대중들도 그 진정성을 알아볼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열띤 토론에 이어 패널들은 영화 속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동진 영화평론가는 제37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으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닉슨이 인터뷰를 갖는다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 영화 ‘프로스트 vs 닉슨’(2008)을 추천했다. 알베르토 몬디는 “이탈리아에는 정치적 활동을 하는 영화감독이 많다”며 베를루스코니 정권을 비판한 영



화 난니 모레티 감독의 ‘악어’(2006)를 소개했다. 강재규 감독은 코미디언 출신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지만 결국에는 다시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영화 ‘맨 오브 더 이어’(2006), 유권자 한 사람의 재투표에 따라 미국 대통령이 결정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영화 ‘스윙 보트’(2008) 등을 추천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최은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추형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등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관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이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초대 손님으로 참석한 패널들 또한 각자의 전문 분야와 경험을 살려 많은 통찰을 풀어냈다. 이종희 교수는 “토론문화가 점점 확산되어 발전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다”면서 “역동성, 유용성, 흥미성과 유권자들의 시청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들이 계속해서 마련돼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동진 평론가는 “이런 토크콘서트가 전국 대학교를 순회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정책토론의 내용들은 흥미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식이 확산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방송 NEC-TV와 국회방송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이주현 사무국장은 “내년은 1987년 민주화 30주년이자,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해라며 선거방송토론이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방송토론 토크콘서트는 서울 한복판 명동에 위치한 대중친화적 복합문화공간에서 전례가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시도했다는 점, 그리고 선거, 선거방송토론, 민주적 토론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행사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다음 행사가 기대되는 이유이다.

우리 어머니



S. B. KIM

일어설 때 아이고
앉을 때 어구구구
어머니 무릎관절이 주름만큼 서걱댄다
그래도 먼동이 어둠을 쫓을 무렵
술내음 마중 나온 소나무숲길 지나
웃터골 밤나무 사이사이
아침이슬 머금은 풀 샅에서
청설모와 알밤 줍기 내기에서는
어머니의 날렵한 손놀림이 가까스로 앞선다

찌릿함이 머물던 무릎도 허리도
시집오던 한창때로 되돌아가고
침침하던 눈에는 불을 밝힌다
늘 눈에 밝히는 내새끼들 오면
봉지봉지 싸줄 알밤을 줍고 있다
한낮 명석위에 녹녹함을 털던 알밤
밤이면 딱딱한 껍질 속 움트는 쑥덕거림
사그락 사그락 속살 갉아먹는 소리
자식들 대신 토실토실 살오른
보유스름한 밤벌레 꿈틀덜 때마다
이번 추석 애들이 안 오면 어떡하나
어머니의 애간장이 타 들어간다
세월의 비바람에 부대낀 가지처럼
어머니 손등은 꺼칠꺼칠 헤어져도
가슴에 자식품은 당신의 마음은
반드럽고 길래 기울지 않는 탱탱한 보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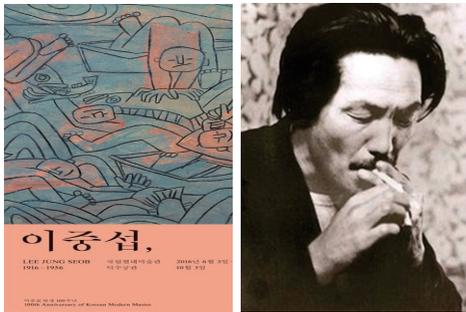
05

문화산책



식민지·해방·전쟁·분단의 근대사를 관통하는 삶과 예술혼 《이중섭, 백년의 신화》전

blog.naver.com/jongheesalon/220771233114



이중섭(1916-1956)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회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이중섭의 유화, 수채, 드로잉, 은지화, 엽서 등 50여개 소장처에서 모은 작품 20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귀한 자료를 같은 장소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것만

으로도 대중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중섭은 1916년 태어나 1956년까지 짧은 생을 살며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는 평안남도 평원의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 평양, 정주, 도쿄에서 학업하고 일본에서 화가활동을 하다가, 함경남도 원산으로 돌아온 후 해방을 맞았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제주도, 부산 등지에서 피난생활을 하였고, 전쟁 후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통영, 서울, 대구 등지에서 작품활동을 하다가



출처: 이중섭 백년의 신화전/ 흰소

41세로 생을 마감했다.

이중섭이 사랑하는 여인 마사코에게 보낸 많은 “엽서화”, 담뱃갑 은지에 새기거나 굽어 그 위에 물감을 바른 후 닦

아내는 그가 창안한 새로운 기법의 “은지화”는 삼강기법과 벽화를 연상하게 하며 미술사의 축복이라는 찬사까지도 듣는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흰소”, “황소”등 많은 “소” 연작들을 공간에 모아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이번 전시는 수많은 역작들을 많이 남긴 예술가이기 이전에 가족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조국을 걱정했던 인간 이중섭인 삶을 따라가 볼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 될 것이다.

찬란한 시절, 제주

이중섭은 웬만하면 붓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작품을 시기별로 늘어놓으면 한편의 일대기가 된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가족과 함께 제주도에 1년 정도 머물렀던 때가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시기에 탄생한 '서귀포의 환상', '봄의 아동', '바닷가의 아이들' 등의 작품에서는 밝고 행복한 빛을 느낄 수 있다.



출처: 이중섭 백년의 신화전/ 은지화(신문을 보는 사람들)



출처 : 이중섭 백년의 신화전/ 세사람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중섭의 가족은 제주시절 전후로 부산에 살았는데,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며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는다. 이중섭은 1930년대 일본에서 가장 자유로운 학풍으로 유명했던 도쿄 문화학원에서 미술세계에 본격적으로 입문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일본 여인 '야마모토 마사코(山本方子)'를 사랑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작품의 원동력이었던 마사코에게 '남쪽에서 온 덕이 많은 여인'이라는 의미가 담긴 '남덕(南德)'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1943년 가족들이 있는 원산으로 귀국하였으며, 1945년 원산에서 마사코와 결혼했지만 행복했던 신혼생활은 한국 전쟁으로 얼마 가지 못했다. 한국 전쟁 때 월남하여 부산을 거쳐 제주도에서 약 1년 동안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생활을 한 후,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 피란민촌을 전전하며 가난한 생활을 이어간다.



출처 : 이중섭 백년의 신화전/ 바닷가의 아이들

1952년 부산항에서 폐결핵에 걸린 아내와 아이들을 일본으로 보내고 희망과 그리움을 반반씩 품고 생활한다. 그가 가족에게 보낸 편지글, 난간 너머로 보이는 바다, 그리고 오버랩 되는 편지 글귀에는 그의 외로움과 그리움, 가족에 대한 절실한 사랑이 묻어난다.



출처 : 이중섭 백년의 신화전/ 물고기와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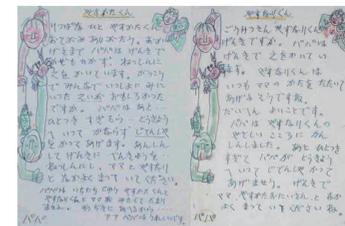


출처 : 이중섭 백년의 신화전/ 욕지도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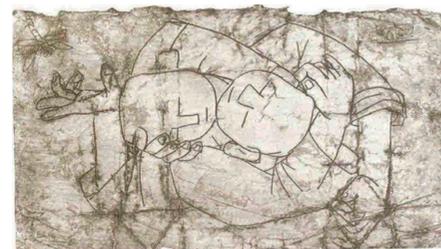
최고의 절정기 통영시절

그는 가족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으로 일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일본에 갔지만 장모에게 문전박대를 당했고 일본에서 가족을 부양할 자신이 없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 처절한 좌절과 실패를 맞본 그에게 희망을 준 것은 바로 친구들이었다. 전쟁 직후 공예가 유강렬(1920-1976)의 주선으로 통영 '나전칠기전습소에 강사로 취직하여 비교적 안

정적으로 창작활동에 몰두했다. 이 시기에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소'시리즈 등 수많은 역작들이 탄생했다. 이중섭 작품의 르네상스 시기가 찾아온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도 우리민족을 상징하는 작품을 그렸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민족정신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다.



출처 : 이중섭 백년의 신화전/ 이중섭이 두 아들에게 쓴 편지



출처 : 이중섭 백년의 신화전/은지화(두아이)

이중섭 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서울이었다. 1956년 9월6일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무연고자로 생을 마쳤고, 3일이 지나서야 동료들이 알고 장례를 치렀다고 하니 위대한 천재의 말년이 참으로 애잔하고 쓸쓸하다. 하지만 그의 작품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다.

시대의 변화와 갈등을 노래한 노트르담 드 파리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0771193831>



출처 : 이중섭 백년의 신화전/ 황소



출처 : 이중섭 백년의 신화전/길 떠나는 가족

그의 삶과 작품들은 식민지, 해방, 전쟁, 분단의 아픈 근대사를 관통하는 서사시이다. 전시회를 다녀온 후에도 그의 작품이 전해준 많은 감동은 가슴 찡한 오랜 여운을 남긴다.



‘노트르담 드 파리’(Notre Dame de Paris)는 세계적인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초대형 뮤지컬이다. 프랑스의 국민 뮤지컬로 불리는 ‘노트르담 드 파리’는 1998년 초연 이후 프랑스에서만 200만 명의 관객을 매료시켰으며, 지금까지 전 세계 12개국에서 1,000만 명 이상이 관람한 대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트르담의 꿈추’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노트르담 드 파리’는 2005년 오리지널 초연 이후 현재까지 누적 관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내에서는 드문 프랑스 뮤지컬의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아름다운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를 둘러싼 주교 프롤로, 근위대장 페뷔스, 종지기 콰지모도, 세 남자의 사랑과 내면적 갈등을 노래하면서도 15세기 말 시대적 격동기에 휘말린 유럽의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담아내 더욱 더 깊은 울림을 준다.

빅토르 위고는 어느 날 노트르담 대성당을 둘러보다가 성당 돌벽에 새겨진 채로 새카매진 ‘아나키아(ANARKH)’라는 글자를 발견하고 깊은 생각에 잠긴다. ‘아나키아’는 그리스어로 ‘숙명’을 뜻한다. 과연 성당 돌벽에 새겨진 ‘아나키아’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운명적인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소설 ‘노트르담 드 파리’는 이러한 일화에서 탄생한다.

1482년 중세 말기의 파리를 뒤흔드는 욕망과 사랑과 이야기 ‘노트르담 드 파리’는 파리의 음유시인 그랑구와르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서곡 “대성당들의 시대”로 시작된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주교 프롤로는 꼽추 종지기



콰지모도를 충직한 종으로 삼고 있다. 성당 앞 광장에는 이방인 부랑자들을 이끄는 클로팽과 아름다운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가 산다.

우연히 에스메랄다의 춤추는 모습을 본 후 프롤로 주교는 그녀를 향한 욕망에 휩싸이고, 근위대장 페뷔스는 약혼녀인가 있지만 에스메랄다와 사랑에 빠진다. 그 후 에스메랄다를 향한 안타까운 사랑을 노래하는 콰지모도, 집착의 화신 프롤로, 욕망의 인물 페뷔스, 한 여인에 대한 이들의 엇갈린 감정은 숙명적인 비극으로 치달게 된다.

뮤지컬 1막의 문을 여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서곡 ‘대성당들의 시대(Le Temps des Cathedrales)’에서는 종교가 지배하는 대성당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상징하는 동시에 이 시대가 언젠가는 붕괴될 것이라는 변화를 암시한다. 2막을 시작하는 ‘피렌체(Florence)’에서는 인쇄술의 발전으로 인해 작은 존재와도 같은 책이 거대하고 웅장한 성당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시대상을 이야기해 준다. 성벽에 새겨진 숙명은 ‘시대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시대적 변화 속에서 희생된 인물들을 그려나가는 것이 작가가 관객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 일종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의 등장인물 중, 주교 프롤로와 근위대장 페뷔스가 절대적인 종교의 권위를 상징한다면, 에스메랄다를 비롯한 집시들은 자유와 사랑, 인간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다. 집시들은 신의 영역이기도 한 성당을 개방하라고 하지만 프롤로는 공권력을 이용해 이들의 침입을 차단한다.

그런데 신의 말씀, 종교적 교리에 충실했던 프롤로 주교에게 에스메랄다에



대한 사랑의 욕망이 꿈틀거리면서 사건은 시작된다. 프롤로의 '파멸의 길로 나를(Tu Vas Me Detruire)'에서는 에스메랄다를 향한 정열과 종교적 신념 사이에서 갈등하는 고뇌를 느낄 수 있다. 결국 프롤로는 신이 절대적인 사회에서 신의 사회를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다. 작품의 안내자이자 해설자인 거리의 음유시인 그랭구아르는 '대성당의 시대'를 부르며 숙명적인 시대의 변화를 노래하고, 신 중심의 세계에 서 있는 프롤로와 '아나키아'에 대해 노래한다.

흔히 뮤지컬에서는 노래나 대사를 통해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노트르담 드 파리'에서는 노래와 노래 사이에 여백을 두고 원작의 줄거리에 기대어 관객들의 상상력에 맡긴다는 것도 특이하다. '노트르담 드 파리'의 이러한 구조는 이미지 중심의 무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데, 열정적인 춤 그리고 상황을 압축적으로 간결하게 담아내는 시적인 가사와 음악이 어우러져 멋진 장



면들을 연출해 낸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시는 언어를 뛰어넘어 소통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노트르담 드 파리'를 통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작품 속에 담겨 있는 집시들의 애환은 이 시대의 이주민들의 상황과 교차되면서 더불어 함께 가꾸어가는 세상을 위해 모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법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된 공연이었다.

사진제공 : 마스트 엔터테인먼트

20세기 현대미술의 세 거장을 한자리에서 만나다: 샤갈·달리·뷔페 전(展)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0771206772>

샤갈, 달리, 뷔페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화가들로서, 각자의 이름으로 하나의 독자적 스타일을 만들어낸 정도로 20세기 미술사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는 거장들이다. 20세기는 하나의 사조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미술 장르가 화려하게 꽃피었던 미술의 황금기이다. 그 중에서도 자신만의 개성을 자랑했던 3인의 거장 작품 128점을 한 장소에 모아 각자의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20세기 미술의 다양성을 3인의 작가들을 통해 만나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태어난 나라도, 살아온 모습도, 화풍도 다른 세 화가의 작품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대중들에게는 가슴 벅차게 만드는 전시회가 아닐 수 없다.

전쟁과 혁명 그리고 이방인 - 거친 삶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희망 -

“삶이 언젠가 끝나는 것이라면, 삶을 사랑과 희망의 색으로 칠해야 한다.”
고 말한 마르크 샤갈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러시아혁명 등 폭풍과도 같은 역사를 온몸으로 경험하며 희망과 좌절을 동시에 겪은 인물이다. 고난 속에



출처 : <롯데카드 무브컬처 '거장vs거장:샤갈,달리,뷔페 특별전'> 제공

살면서도 자신의 예술세계만을 꽃과 동물, 자유로운 연인들의 모습 등으로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낸 그의 회화 40여 점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러시아 변방 벨로루시의 가난한 유대인 마을에서 태어났다. 허가증이 없으면 마음대로 거주지를 이동할 수도 없었던 곳에서 어렵게 미술 공부를 시작했다. 파리에 잠시 머물던 시절을 거치고 난 후 1차 세계대전, 러시아 혁명, 2차 세계대전 등 혼란스러운 시대의 변화 속에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망명 과정에서 소중한 작품을 잃어버리는 아픔과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 벨라의 죽음을 겪기도 했다.

화가로는 성공했지만 러시아 출신, 그것도 변방의 가난한 유대인이었던 그는 뉴욕으로 망명하여 활동했으나 그 곳에서도 여전히 주변인이었다.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던 정체성은 어쩌면 샤갈로 하여금 표현주의, 초현실주의

등 어느 화풍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이를 뛰어넘어 독자적 화풍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프랑스에서 보냈던 샤갈은 평생 고국을 그리워했다고 한다. 샤갈은, "러시아 제국도 소련도 모두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나는 낯선 이방인일 뿐이다. 아마도 유럽이 나와 나의 조국 러시아를 사랑해줄 것이다." 이와 같이 샤갈이 자신의 이중 국적에 대해 지녔던 생각과 감정은 그의 삶과 작품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샤갈의 작품들은 주로 고향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 마을의 풍경과 샤갈 개인의 어린 시절의 여러 가지 소중한 추억을 담고 있다.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는 이방인의 삶을 살았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 추억이 샤갈이라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만들어 우리에게도 그 여운과 깊은 감동을 전해준다.

두 번의 세계대전, 스페인 내전의 상처, 하지만 준비된 천재와의 만남

작품 하나 하나가 예사롭지 않은 달리의 작품 60여 점을 만났다. 요리사를 꿈꾸었던 6살의 꼬마, 그러다 겨우 1년 후이지만 7살 때는 나폴레옹이 되

기를 희망했던 살바도르 달리는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과, 스페인 내전이라는 대 참사 속에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인생을 살아나갔다. 그의 개성은 유년기에 만들어진 다다이즘 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어찌면 달리가 예술가로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도 자연스럽게 같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17세 때 달리는 슬픔을 안고 왕립미술학교에 입학한다. 이 시절 달리는 다른 천재들을 만나게 되는데 학창시절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낸 시인 로르카와 영화감독 부뉴엘을 만났다. 로르카는 달리가 천재라고 인정하는 스페인의 시인이다. 훗날 스페인 내전의 희생양으로 로르카가 어처구니 없이 그라나다에서 처형당하자 달리는 그 때의 심경을 일기에 다음과 같이 써 내려갔다.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그리고 무정부주의자들과 심지어는 프랑코를 추종하는 파시스트들까지도 로르카의 죽음을 이용하여 수치스러운 선전선동을 일삼았다. 오늘날 로르카는 어떻게 되었나? 그는 정치적 영웅이 되어 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한 때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나는 이제 신과 역사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바이다.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그는 백 퍼센트 순수한 시인이었으며 내가 만났던 사람 중 가장 완벽하게 비정치적인 사람이었음을 맹세한다.’라고 말이다. 그는 단지, 타인이 결코 범해서는 안 될 인간의 권리를 박탈당한 시대의 가련한 희생양이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특이함과 무한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화가,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작품세계는 너무나 강렬하다. 이번 전시회에는 달리의 조각품, 기발한 아이디어의 가구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품들이 전시되어 그의 끝없는 독창성에 감탄을 연발하게 된다.



2차 세계대전의 처참한 현실을 예술품으로: 삶의 애환, 불안, 허무를 그린 화가

베르나르 뷔페는 1950년대 당시 '모던아트의 모차르트'라는 평을 받으며 피카소의 대항마로 여겨졌다. 뷔페는 자신의 화풍에 대해 한 마디로 정리해 준다. '미술이 세상을 즐겁게 할 필요는 없다.'

파리에서 출생한 프랑스의 화가로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나치가 점령하고 있는 파리 시에서 데생을 공부했다. 18세부터 처음으로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하여 1948년부터 파리 화단에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고, 1949년부터 10년간 세계 각지에서 50회 이상의 개인전과 전람회를 열기도 했다.

사르트르 실존주의 철학, 전쟁후의 암울한 사회, 불안과 상실, 허무와 연민 등 현대인의 삶을 날카로운 선으로 표현했다. 2차 대전 이후 불안감을 작품으로 표현한 베르나르 뷔페, 굳은 표정의 그림 속 광대는 삶의 아이러니와 애환을 전한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공포 속에서 살았다. 그 시절에는 먹을 것과 그럴 것만 찾아 다녀야 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은 뷔페의 회상이다. 뷔페는 현실을 가감 없이 그림으로써 시대를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파괴와 좌절의 한복판에서 그가 그려낸 그림들은 거칠고 날카로운 선으로 삭막하고 쓸쓸한 풍경을 묘사하고 있으며, 바짝 마른 인물들로 표현된다. 그는 일찍 유명세를 타게 되고 부를 축적하게 되지만, 경제적인 성공이 그를 세속적인 예술가라는 오해를 받게 만들기도 한다. 뷔페는 파킨슨 병에 걸려 병마와 싸우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3인 3색의 20세기 현대미술의 세 거장을 한자리에서 만난 가슴 벅찬 전시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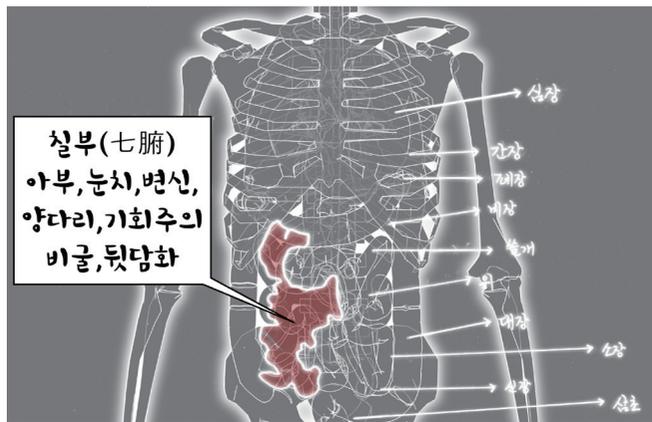
꼰대별곡 <소심한 상사가 날리는 로우~킵> 26화 - 건강검진

<http://comic.naver.com/challenge/detail.nhn?tidid=69362&no=27>(웹툰 링크)

- 건강검진 -

by 소심상사





한의학에서
인간은 뱃속에
'오장육부(五臟六腑)'의 장기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특별한 인간은 한가지 장기를
더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늘부'는 '심술부'하나가 더 있어
'오장칠부(五臟七腑)'의
소유자라고 하더군요.

살인적 격무와 스트레스를 버려내는
대한민국 직장인도
특별한 인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예! 맞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오장칠부'의
소유자였습니다!

책이 된 예술,
예술이 된 책展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1063745389>



이 망라되어 있는 전시회로, 한국 근현대 미술 특별전이라고 이름 붙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알찬 전시 구성을 자랑한다. 장정(裝幀)이란 책의 겉모양을 꾸미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에는 도서 장정이 ‘북 디자인(book design)’의 영역으로 전문화되었지만,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내로라하는 화가들이 솜씨를 뽐내는 영역이었다. 삼성출판박물관 김종규 관장은 이번 전시의 의의에 대해 “우리 출판물이 구현했던 아날로그 물질성에 바탕을 둔 예술성은 대단히 뛰어났다. 책은 그 내용에만 착심(著心)해야 할 대상이 아니며, 예

삼성출판박물관에서 2017년 8월 31일까지 ‘책이 된 예술, 예술이 된 책’展이 열렸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큰 획을 남긴 화가, 삽화가, 서예가의 표지화 및 삽화 작품



술적 특성으로도 조명하고 감상할 수 있다. 이번 특별전이 바로 그러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김용준 장정 '돌다리'(좌), 김환기 장정 '제3인간형'(우)

특징적인 전시

부부 장정가, 김기창과 박래현

윤영춘 시집 『무화과』(1948)의 장정은 운보 김기창, 제자(題字, 제목 글자)는 위창 오세창이 맡았다. 김기창의 아내인 화가 우향 박래현은 조풍연의 『청사수필』(1959)을 장정했으며, 이 책의 제자는 서예가 김충현이 담당했다.



김기창 장정 '무화과'(좌), 박래현 장정 '청사수필'(우)

가족이 쓴 책을 장정한 김환기와 장욱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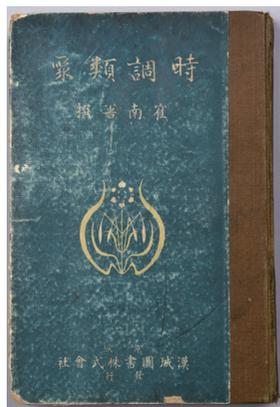
역사학자 이병도의 『내가 본 어제와 오늘』(1966)의 표지 도안은 이병도의 사위 장욱진의 작품이며, 제자(題字)는 서예가 월담 이동용이 했다. 김향안 수상집 『파리』(1962)의 도안은 김향안의 남편인 화가 김환기가 맡았다.



김환기 장정 '파리'(좌), 장욱진 장정 '내가 본 어제와 오늘'(우)

여러 화가와 문인이 장정에 참여한 최남선의 『시조유취』

시인 최남선이 우리나라 역대 문헌에 실린 시조를 모아서 만든 책 『시조유취(時調類聚)』(1928)의 표지는 동양화가 오일영이 장정했다. 제자(題字)는 3·1운동 당시 독립운동가였던 임규(1867~1948)의 글씨다. 최남선은 임규의 일본인 아내의 안방에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다. 이 책의 장정에는 위당 정인보와 1세대 유화가 김찬영도 참여했다.



오일영 장정 '시조유취'



천경자 장정 '역사는 흐른다' 정현웅 장정 '한하운시초'

화가 이기남 전시회 '나·無' 출품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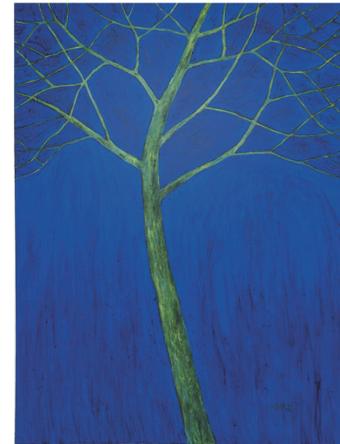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1071798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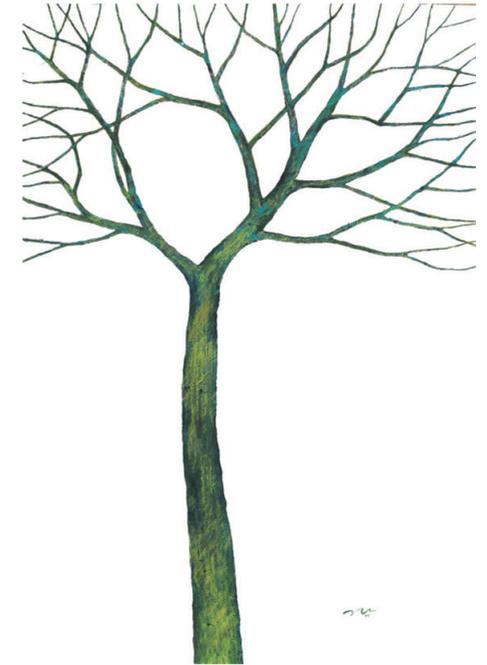
작가 노트

어느 날, 나는 내 가슴 속에 자라고 있던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였다. 그것은 여러 가닥의 생각들로 복잡하게 뒤얽힌 소위 나의 '하의식' 또는 '무의식'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 그 나무의 뚜렷한 모양을 살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나무는, 내가 그것을 발견한 순간,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 당당하게 그의 모습을 드러내 주었다. 한 참이 지난 후, 나는 단지 그것을 자각하지 못했을 뿐, 나의 어린 시절부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나무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내 마음 속의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임을 알았다. 놀랍게도 나의 의식의 눈(心眼)이 그것을 발견한 것이었다. 어쩌면 비록 늦었을지라도... 나는 그 나무의 생물학이나 신화학 그리고 종교학적인 의미와 가치 등을 여전히 나의 의식의 밑바탕에 깔아 두고자 한다. 또한 그것에 대해 알고 있는 얇은 지식을 자랑하지도 않겠다. 왜냐하면,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는 일이 얼마나 보

이 작품들은 갤러리 올 (2008.10.29~11.4)과 경희의료원 볼갤러리(2008.11.5~11.30)에서 진행된 이기남 화백 '나·無' 전시회 출품작입니다.



나·無0806_ oil on canvas_145X112cm_2008



나·無0809_ oil on canvas_145X112cm_2008



나·無0808_ oil on canvas_145X112cm_2008



나·無0811_ oil on canvas_162X112cm_2008



나·無0810_ oil on canvas_162X112cm_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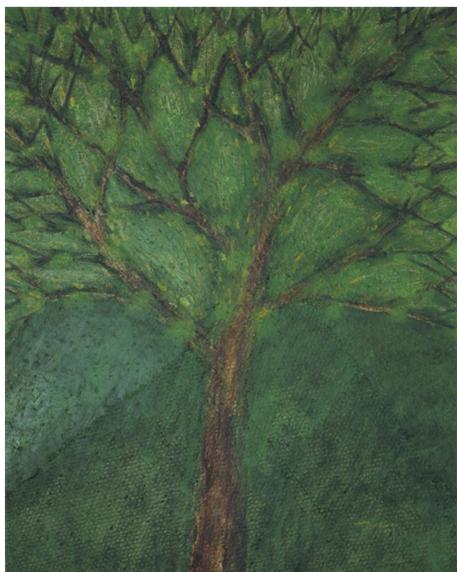
나·無0807_ oil on canvas_162X97cm_2008

잘것없고 또 부질없는 일인지 나는 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을 두고 품어온 억만 번의 생각만큼이나 그것의 이미지는 이미 충분한 거대함으로 나를 지탱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나는 비로소 '나무를 '나무'로 바라보기 시작했는지 모른다. 그 말은 그동안 나의 습관적인 눈(心眼)이 바라본 나무의 꺾데기가 아니라 그 속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는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꺾데기를 이루는속살이 비로소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나는 그 '속살'을 드러내기 위해 오랜 시간 몸살을 앓았다. 어쩌면 그것은 한 개체의 인간 또는 작가로서의 성장통(成長痛)일 것이다. 지독한 몸살을 앓고 난 후, 나는 비로소 '나무'가 '나·無'로 읽힐 수 있음도 알았다. 나는 그것을 가능한 한 똑바로 응시하고자 하였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모습을 담아두기 위하여 칠하였으며 굵었고 문지르고 덧칠하면서 또 다시 굵어대었다.

작가 프로필

- 이기남, 1966년 경상남도 하동 生
- 경희대 미대 졸업·동대학원 석사 학위 취득
- 독일 초대전 및 개인전 단체전 다수
- 작품소장 - 독일 오스트부르크엔의 병원, 선거관리위원회, 푸른한의원, 경희 의료원, 법원복지지원, 법무법인 우면, 대원국제중,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마르쿠스 폴만 교수 외 다수 개인 소장

“해거름이다. 안국동·북촌길이 고즈넉하다. 은행잎이 후두둑 떨어진다. 이기남 전시회를 찾았다. 나무그림 전시회다. 단순하고 형해화된 나무들이다. 하지만 강렬하다. 사물의 영역보다 혼과 정신의 즐기처럼 다가온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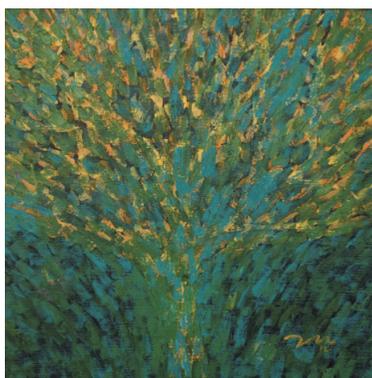
나·無0801_ oil on canvas_100X80cm_2008



나·無0804_ oil on canvas_72X91cm_2008



나·無0802_ oil on canvas_91X117cm_2008



나·無0803_ oil on canvas_45X45cm_2008



나·無0805_ oil on canvas_130X194cm_2008

화백은 어느날 비로소 나무를 나무로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동안 나무는 복잡하게 얽힌 무의식속에 갇혀 있었다. 그는 “지독한 몸살을 앓고 난후 나무가 ‘나·無’로 읽힐 수 있음을 알았다.”고 했다. 그는 젊다. 386세대다. 하지만 현대회화의 트렌드에 얽매이지 않는다. 전통, 향토의 질박함을 추구했다. 물감에 모래를 섞어 독특한 질감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의식의 시원(始原)에 다가가려는 몸부림이었다. 이번 전시는 그의 성숙한 정신세계의 표현이다. 전시회 준비 막바지때 그의 화실을 들렀다. 작업실 가득 널린 유화와 스케치들, 자유로운 그의 영혼이었다. 머리카락과 손톱 여기저기엔 물감들이 박혀있다. 넉넉한 품성의 잔영처럼 편안하다. 떠나는 가을이다. 스스로 없음(나·無)을 새삼 상기시킨 그가 고맙다.’

최태환 논설실장 yunjae@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2008-11-04] 기사

김동일 작가 사진展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1089026580>



기억하고 있는 순간들 (1), 김동일



기억하고 있는 순간들 (2), 김동일



기억하고 있는 순간들 (3), 김동일



기억하고 있는 순간들 (4), 김동일



기억하고 있는 순간들 (5), 김동일



김동일 작가

학력

국립창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국립경상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대학원 수료

자격증

사진실기교사 자격증 사진기능사 자격증

경력

- 전) 2006년 우리홈쇼핑(현 롯데홈쇼핑) 근무
- 전) 2006-2007년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현KTV) 근무
- 전) 2007-2008 CJ경남방송 “우리동네 최고” 연출
- 전) 2013년 하나방송 야구방송 오늘NC 총연출
- 전) 2006년-2014년 고성군청 홍보팀 사진영상 담당
- 전) 2014년-201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제작담당 전문경력관
- 현) 201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국 미디어과 근무

강의 경력

- 국립경상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진반 강의 (2008년-2014년)
- 국립경상대학교 비학위과정 쇼핑몰 창업반 강의
- 국립창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특강
- 이마트 문화센터 사진 특강
- 『제1기 경남미디어교육 지도사 양성과정』 사진 강의

08

영화 <서프러제트>, 여성에게 투표권을!

<http://blog.naver.com/jongheesalon/220798219553>

영화 《서프러제트(Suffragette)》는 1900년대 초에 영국에서 벌어진 여성들의 참정권 획득 운동에 관한 영화다. 1860년대부터 영국에서는 여성 참정권 운동이 시작되었고 ‘여성 참정권론자’를 ‘서프러지스트(suffragist)’라고 불렀다. 이 영화는 서프러지스트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모이게 되었으며, 여성 참정권 획득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서프러제트

감독 사라 가브론

출연 메릴 스트립, 캐리 멀리건, 헬레나 본햄 카터, 벤 위쇼, 브렌단 글리슨, 로물라 가레이

개봉 2015 영국

상세보기

영화 속 주인공 모드 와츠는 악덕사장 노먼 테일러가 운영하는 세탁공장에서 태어나 자랐고, 결혼 후에도 하루 종일 세탁공장에서 힘들게 일해 번 돈으로 하나 뿐인 아들 조지를 간신히 부양하고 있는 가난한 노동자이다. 우연히 세탁물을 배달하러 가던 길에 서프러제트 시위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시위 현장에서 만난 바이올렛 밀러가 서프러지스트임을 알게 되며, 그 후 에멀린 팡크허스트가 설립한 '여성사회정치동맹'(WSPU, Women's Social & Political Union)에 가입해 서프러제트 운동을 함께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영화 속 주인공은 여성 투표권을 주장하며 거리에서 투쟁하는 '서프러지스트'들을 처음 목격한 당시는 현실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여성에 대해 무너진 사회정의, 인권 유린의 부당함에 분노하게 되고 이에 맞서기 위한 운동에 가담하게 된다. 하지만 당시 남성들은 서프러제트 운동을 무시했다. 여성 참정권을 요구하는 이들의 활동을 비웃었으며, 정치 는 여전히 남성전유물이었다.



출처: Georgia Studies Images

약 100년 전만 해도 대부분 국가는 여성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영국에서는 19세기 중반 여성들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으나, 이 요구는 남성위주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50여 년 동안 무시되었다.



출처: Wikimedia

여성참정권 획득 운동은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1900년대에는 이 운동이 고조되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여성의 종속』이 출간되고 나서 여성들의 권익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게 되었고, 영국에서는 1870년에 기혼여성에 대한 재산소유권이 인정되었으며 1880년에는 여성에게 주의회 투표권이 주어졌으나 전국적으로 여성에게 투표권은 주어지지 않았다. 1883년과 1892년에 전국적으로 여성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부결되었다.

이때를 기점으로 그동안 서명운동과 청원운동으로 여성참정권 획득 운동을 벌이던 운동가들은 '전국여성선거권운동단체연합'(NUWSS, National Union of Women's Suffrage Societies)을 결성하였고, 정부가 비폭력적인 운동을 탄압하게 되자 점점 과격한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1903년 '여성사회정치동맹'이 결성되어 이들은 더욱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이 투옥되었으며 옥중 단식투쟁도 감내했다. 1912년 선거법 개정이 부결되자, 서

프리지스트들은 무력을 동반한 참정권 획득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들의 공세는 더욱 격렬해져 상점의 진열장을 부수기도 하고 건물을 불태우기도 하였으며 버킹엄 궁전 난간에 몸을 묶은 채 시위를 벌이기까지 하였다.



사진출처:Flickr_Leonard Bentley

영화 속에서는 모드 와츠라는 가상의 인물이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아무 말도 못하고 현실에 순종하며 살았던 노동자에서 여성인

권운동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과정에 에멀린 팡크허스트, 에밀리 데이비슨 등의 실제인물과 실제 사건들을 등장시킨다. 군중 사이를 뚫고 나가 “절대 굴복하지 말아요. 투쟁을 멈추지 마세요.”라는 말을 모드 와츠에게 남긴 채 달려오는 말에게 몸을 던진 에밀리의 죽음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실제로 1913년 6월 4일 에밀리 데이비슨은 영국 국왕의 말도 참가한 경마대회에서 여성참정권을 주장하며 달려오는 말 앞으로 뛰어들어 목숨을 던졌다. 에밀리 데이비슨은 옥스퍼드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던 여성이었다. 그녀의 죽음은 기사화 되었고 여성권리 투쟁에 대한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다. 많은 여성들이 희생되는 과정을 거치고서야 영국에서는 1918년에 30세 이상의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부여되기 시작했고, 1928년부터는 여성과 남성이 똑같은 참정권을 얻게 되었다.



출처: Wikimedia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나라는 뉴질랜드이다. 뉴질랜드는 1893년에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으며, 핀란드는 1906년, 미국은 1920년, 프랑스는 1946년, 한국은 1948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에야 비로소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영화 ‘서프리지트’는 20세기 초,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마저도 인정받지 못한 채 침묵하고 순종해야만 했던 여성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얻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저항했는지를 잘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20세기 초의 영국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고 있었는지를 사실적으로 그려내기 위해 공을 들인 영화이다. 서프리지스트들의 활동에 대한 생생한 묘사, 배우들의 혼신을 다한 연기는 강한 인상을 남기며, 그녀들의 노력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

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되새겨 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는 1948년 최초 선거에서 보통선거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영화에서처럼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희생의 역사를 거치지 않은 우리는 참정권의 소중함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 영화를 통해 현재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와 권리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 인지를 다시 되새기면서, 그 자유와 권리들을 획득하기 위해 희생된 많은 사람들을 떠올리면 숙연해진다. 이 영화를 계기로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과 불평등 문제 개선을 위한 대안들을 또 다시 구상해 보면서, 함께 하는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는 약자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도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나 하나 꽃 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마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민주시민이 미래다

발행일 2017년 11월

발행처 선거연수원 제도연구부

전화 031.296.8755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펴낸곳 솔과학 02.714.8655

<비매품>